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2021. 07.

제 출 문

경북도청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7월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 장 윤 은 주

연구수행기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연구책임 윤 은 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원 이 희 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주대응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연구원)

제1장 용역 개요 / 3

제1절 용역수행배경 및 목적 3

제2절 용역수행범위 6

 1. 용역수행기간 6

 2. 과업의 범위 6

 3. 주요 용역 내용 6

 4. 과업 수행방법 7

제2장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 7

제1절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 및 역할 변화 9

 1.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 기능 9

 2. 전시컨벤션센터의 수용 행사별 특성 9

 3.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 역할 11

 4. 전시컨벤션센터의 역할 변화 12

제2절 전시컨벤션센터의 현황 및 동향 분석 16

 1. 세계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16

 2. 국내 MICE산업 현황 22

 3. 국내외 컨벤션센터 현황 30

제3장 경상북도 MICE 제반여건 분석 / 39

제1절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분석 41

 1. 전시컨벤션센터 공급 현황 41

 2. 유니크베뉴 공급 현황 49

 3. 기타시설 내 회의실 공급 현황 53

 4. 회의실 총 공급 분석 72

 5. 대구광역시 내 공급현황(비교) 83

 6. 경상북도 MICE 시설 총 공급수준 분석 및 시사점 84

CONTENTS

제2절 경상북도 MICE 행사 수요 분석	
1. 국제회의 수요	87
2. 전시회 수요	90
제3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여건 분석	92
1. 경상북도 경제 현황	92
2. 경상북도 주요산업 현황	101
3.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여건 분석 시사점	108
제4절 경상북도 관광여건 분석	110
1. 관광자원 현황	110
2. 숙박시설 현황	120
3. 교통 인프라 현황	124
4. 경상북도 관광여건 분석 시사점	132
제5절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분석	134
1. MICE 전담조직 개요	134
2. 경상북도 외 광역단체 MICE 전담조직 현황	135
3.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현황	136
4.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분석 시사점	137

제4장 해외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 139

제1절 분석배경	141
제2절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142
1. 네덜란드 헬몬트	142
2. 일본 센다이	148
3. 호주 멜버른	153

제5장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개발방안 / 159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시	161
1. 기본방향	161
2. 비전 및 목표 제시	161
제2절 마케팅 방안 제시	163
1. 지역산업 기반 도시	163

2. R&D 기반 회의 도시	164
3. 문화관광자원 기반 관광 도시	165
제3절 중장기 발전 과제 제시	166
1. 과제방향	166
2. 중장기 발전 과제 제시	166

부록 / 170

표 목차

[표 2-1]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행사의 유형 및 내용	10
[표 2-2]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2-2019년)	16
[표 2-3] UIA 기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7-2019년)	17
[표 2-4] ICCA 기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7-2019년)	18
[표 2-5] UIA 기준 세계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2017-2019년)	19
[표 2-6] ICCA 기준 세계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7-2019년)	20
[표 2-7] 글로벌 전시산업 현황지표 비교(2008 vs 2018년)	21
[표 2-8] KTO의 회의부문 유형 및 범위	22
[표 2-9] 2019년 국내 도시별 컨벤션 개최현황	23
[표 2-10] 시설별 전시회 개최현황(2014-2019년)	26
[표 2-11] 유형별 전시회 개최건수(2015-2019년)	27
[표 2-12] 연도별 평균 참가업체 수 현황(2014-2018년)	27
[표 2-13] 시설별 전시회 평균 참가업체 수 비교(2014-2018년)	28
[표 2-14] 지역별·시설별 평균 참관객 수 비교(2015-2019년)	29
[표 2-15] 연도별 해외 총 참관객/참가업체 수 비교(2014-2018년)	30
[표 2-16] 국가별 전시장 공급현황 (총면적 7만㎡ 이상)	32
[표 2-17] 규모별 세계 전시장 현황(20만㎡ 이상 / 2019년 기준)	33
[표 2-18]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공급 현황	35
[표 2-19] 연도별 전시장 공급현황	37
[표 3-1] 구미코 개요	41
[표 3-2] 구미코 시설현황	42
[표 3-3]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요	43
[표 3-4]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시설현황	44
[표 3-5]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개요	45
[표 3-6]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시설현황	46
[표 3-7]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개요	46
[표 3-8] 엑스코 개요	47
[표 3-9] 엑스코 시설현황	48
[표 3-10] 경상북도 유니크베뉴 21선 현황	50
[표 3-11]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2,000명	55
[표 3-12]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500~1,000명	56
[표 3-13]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300~500명	57
[표 3-14]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250명 미만	58
[표 3-15]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500명 이상 1,500명 미만 ·	60
[표 3-16]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150명 이상 400명 미만 ·	61

[표 3-17]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150명 미만	62
[표 3-18]	숙박업체 보유 1개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별 현황	63
[표 3-19]	숙박업체 보유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650명 이상 숙박업체	64
[표 3-20]	경상북도 지역별 대학교 회의실 보유 현황	66
[표 3-21]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00명 이상	68
[표 3-22]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00명 미만	69
[표 3-23]	수용인원별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회의실 운영 현황	71
[표 3-24]	경북 도시 및 수용인원별 유니크베뉴, 기타시설 내 회의시설 현황	72
[표 3-25]	경상북도 지역에 따른 200명 이상 수용 가능 회의실 현황	73
[표 3-26]	경상북도 소재 회의실 리스트_수용가능인원순	74
[표 3-27]	대구광역시 내 MICE 행사 유치 가능 시설보유 현황	84
[표 3-28]	UIA 국제회의 집계 기준	87
[표 3-29]	UIA 기준 2019년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_A+C 기준	88
[표 3-30]	UIA 기준 2019년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_A+C 기준	89
[표 3-31]	2016-2019년 지역 및 시설별 전시회 개최건수	90
[표 3-32]	경상북도 총 인구 및 인구증가율	92
[표 3-33]	경상북도 시군별 총 인구 및 인구증가율	93
[표 3-34]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94
[표 3-35]	2017-2019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현황	95
[표 3-36]	2017-2019 전국 광역 시도 수출액 현황	95
[표 3-37]	전국 시도별 사업체수 현황	96
[표 3-38]	경상북도 시별 및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97
[표 3-39]	경상북도 군별 및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98
[표 3-40]	2019년 경상북도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99
[표 3-41]	2019년 전국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	100
[표 3-42]	전국 시도별 3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	101
[표 3-43]	경상북도 관광특구단지 현황	110
[표 3-44]	안동시 지정별 문화재 현황	112
[표 3-45]	경주시 지정별 문화재 현황	114
[표 3-46]	포항시 12경, 5미, 5락 내용	116
[표 3-47]	성주군 지정별 문화재 현황	118
[표 3-48]	칠곡군 지정별 문화재 현황	119
[표 3-49]	경상북도 vs 대구광역시 관광숙박업 업체 수 비교	120
[표 3-50]	경상북도 시군별 관광숙박업 업체 수 현황	121
[표 3-51]	경상북도 vs 대구광역시 면적 1km ² 당 숙박업체 및 객실 수	122
[표 3-52]	경상북도 시군별 등록 숙박업 및 미등록 관광호텔업 업체 수	123
[표 3-5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개요	124

[표 3-5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향후계획	125
[표 3-5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세부 추진과정	126
[표 3-56] 대구경북 철도 노선 확장 계획 I	127
[표 3-57] 대구경북 철도 노선 확장 계획 II	127
[표 3-58] 경북나드리 열차 테마01. 문경편 일정	130
[표 3-59] 경상북도 지역별 객실 수 100개 이상 기준 숙박업체 현황	133
[표 3-6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경상북도관광협회 주요업무	137
[표 4-1] 연도별 센다이 국제회의 개최건수	151
[표 4-2] 멜버른의 3대 지식지구 현황	154
[표 4-3] 연도별 멜버른 MICE산업 성과지표	157

그림 목차

[그림 2-1]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 및 역할	9
[그림 2-2]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와 센터 내 도입될 혁신 모빌리티 운송 수단	13
[그림 2-3] 방문객 경험 및 도시와의 지속가능한 연결에 방점을 둔 파리베르사유전시장(원) 과 자연친화적 공간의 파리노르빙팡트전시장(오)	14
[그림 2-4]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책을 기부한 롱비치컨벤션센터	14
[그림 2-5] 영국국립전시센터와 미국 조지아월드콩그레스센터	15
[그림 2-6] UIA 기준 주요국 국제회의 개최현황	18
[그림 2-7] ICCA 기준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1
[그림 2-8] 국내 전시회 개최현황 (2000-2019년)	25
[그림 2-9] 세계 전시장 공급현황 (2017년 기준)	30
[그림 2-10] 세계 전시장 공급 추이(2011-2017년 기준)	30
[그림 2-11]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인프라 공급추이(1999-2020년)	34
[그림 2-12]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인프라 현황(2021년 기준)	36
[그림 3-1] 구미코 전경	42
[그림 3-2]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경	44
[그림 3-3]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조감도	45
[그림 3-4]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상상도	46
[그림 3-5] 엑스코 전경	48
[그림 3-6] 유니크베뉴 21선 전경	52
[그림 3-7] 포항공대 회의실 - 포스코국제관 중회의실 및 국제회의실 전경	66
[그림 3-8]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시설공급 현황 안내도	83
[그림 3-9] 경상북도 지역별 시설 보유 현황 및 권역 마킹도	85
[그림 3-10] 경상북도 주요산업 권역별 설정 구역도	103
[그림 3-11]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조감도	107
[그림 3-12] 경상북도 주력산업 기반 권역 설정	108
[그림 3-13] 경상북도 2021년 도정계획 내 문화관광 Re-Start 프로젝트 도식	111
[그림 3-14] 안동시 주요 관광지 전경	113
[그림 3-15] 경주문화관광 웹사이트 권역별 관광지 정보 페이지	115
[그림 3-16] 포항시가 계획 중인 해양관광 육성 계획	117
[그림 3-17] 토지거래허가구역	126
[그림 3-18] 공항 조감도	126
[그림 3-1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 위치 및 주변 교통 인프라	127
[그림 3-20] 경북나드리 열차 운행노선도	129

[그림 3-21]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디자인 이미지	131
[그림 3-22] 경상북도 관광자원 기준 권역 설정	132
[그림 3-23] 광역단체 기준 MICE 전담조직 체계 도식	134
[그림 3-24]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MICE 전담조직 Work-Flow 도식	135
[그림 3-25]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현황 도식 - 통합관리 체계 조직 예시	138
[그림 4-1] 헬몬트 첨단자동차캠퍼스 전경	142
[그림 4-2] 에인트호번 광역도시권 개발권역 개념도	143
[그림 4-4] 2019년 네덜란드 권역별 관광수요 현황	145
[그림 4-5] 도호쿠대학 전경 및 특화산업 R&D 클러스터 현황	149
[그림 4-6] 센다이 국제 센터와 미야기 전시장 전경	150
[그림 4-7] 센다이시 MICE 인프라 지도	150
[그림 4-8] UN 방재세계회의 및 보사이 포럼 현장 사진	151
[그림 4-9] 멜버른컨벤션전시센터 내외부 전경	155
[그림 4-10] 멜버른컨벤션뷰로의 타깃 분야와 저명인사	156
[그림 5-1]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 비전 도식	162
[그림 5-2] 지역별 주력산업 브랜딩 및 MICE 행사 유치방안	164
[그림 5-3]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MICE 프로그램 순서도 예시	165

제 1 장

응역 개요

제1절 응역수행배경 및 목적

제2절 응역수행범위

제1장 응역 개요

제1절 응역수행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는 지역 혁신을 위한 R&D 및 특허 관련 자원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토대로 한 창업기업 수 증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지속, 안정적인 수출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의 핵심 마중물로서 전시·회의·혁신으로 연결된 MICE 특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 경주, 안동 등이 전시컨벤션시설을 중심으로 MICE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 등은 전문시설이 부재해도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지원 기관 등이 혁신을 주도하는 교류, 연구, 협력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제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MICE 관련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한 가운데 도내 MICE산업의 부가가치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숙박, 관광, 여가 등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경북도의 특화 산업 및 주력 경제 분야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전시컨벤션의 기획·개발·유치 등의 MICE 수요 개발 및 관리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의 MICE 특화도시 육성에 필요한 국내외 MICE산업 현황 및 동향과 경북도의 산업여건 및 환경 등을 분석하여 특화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진단하고, 해외 MICE 특화도시의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도의 MICE 특화도시 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 실행전략 수립에 더해 경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MICE 특화도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제2절 응역수행범위

1. 응역수행기간

- 응역수행기간: 2021년 4월 08일 - 2021년 7월 06일 / 약 90일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전역 및 국내·외 주요 도시
- 시간적 범위: 2021년~2026년 / 5개년
- 내용적 범위: 경북 MICE 인프라 현황 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 특화도시 육성전략 연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주요 과업 내용

-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
 - 대구경북지역 MICE 인프라 현황 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
 - 국제회의 개최 현황 및 코로나19 이후 MICE산업 전망 분석
- 경북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연구
 - 맞춤형 경북 국제회의도시 육성 및 개발방안 연구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경북 MICE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마련
 - MICE산업과 연계한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등 제반사항 검토 및 제안

4. 과업 수행 Process

- 1단계 현황 및 사례조사로 '국내외 MICE산업 현황 및 전망'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였음. 2단계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수립의 근거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MICE 제반여건 - 시설 공급, 수요, 주요산업, 관광, 전담조직 분석'을 진행하였음. 이를 토대로 3단계 '비전 및 목표 제시', '마케팅 방안',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음.

제 2 장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 제1절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 및 역할 변화
- 제2절 전시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제2장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제1절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 및 역할 변화

1.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 기능

-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기반 및 국제적 수준의 전시회, 회의, 문화예술행사, 이벤트 등의 개최를 통해 무역상거래를 증진시키고,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교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 및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임.



[그림 2-1]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 및 역할

2. 전시컨벤션센터의 수용 행사별 특성

-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회의, 집회,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행사에 따른 내용과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2-1]과 같음.

- 각각은 개별적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회의 또는 전시회와 이벤트 등과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 회의 및 전시와 같은 주요 기능 외에도 졸업식, 기관, 단체모임 등의 일반 집회와 결혼식, 가족모임과 같은 연회 및 파티 등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는 각종 기념모임도 개최함.
- 또한 의상쇼, 무용, 오락, 스포츠, 대중가수의 공연, 경연대회, 지역축제 등과 같은 다수 대중 및 시민이 관심 있는 대중적 행사가 수시로 개최됨.

[표 2-1]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행사의 유형 및 내용

행사유형	행사내용	비고
전 시	Trade Show	전문 기술형(무역/기술전시)과 비전문 공개형(일반전시)으로 구분
	Public Exhibition	
	신상품/신기술 소개	
회 의	Convention	일반 공개형(공개세미나, 토론회 등)과 비공개형(기업회의)등으로 구분
	Conference(기술, 학술회의)	
	Round Table Discussion	
	Symposium	
교 육	Workshop	일반인,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연회, 문화 예술 강좌, 건강강좌 등 기업/학교의 연수
	Lecture	
	Training	
	Short Course	
일반집회 (Ceremony)	Exam	다수 사용자의 일시적 모임으로, 행사 간 인터벌이 짧고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필요 없이 시설활용의 순환이 빠름
	종교집회	
기념행사 및 여흥집회	정당/기관/협회의 등의 집회	식사 및 음료가 제공이 수반되는 각종 여흥위락 행사 대규모/소규모의 기념 모임
	Reception	
	Party	
	결혼식	
문화체육행사	Memorable Gathering	무용, 음악회 등의 공연, 노래자랑, 춤경연 등, 영상쇼, 로봇, 도미노 경연 등
	기타 가족모임, 회사모임	
	Fashion Show	
	Performance	
	Entertainment	
	Sports	
판매행사	Festival(민속/지역축제)	전시 및 즉석판매 수익사업 옥외공간 활용가능
	기타경기, 경연행사	
	Bazaar	
	Garage Sale	
	벼룩시장	

자료: ICEM, 광주전시컨벤션센터 운영방식 연구(2003년)

3.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 역할

- 전시컨벤션센터는 일반적으로 무역 및 상거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주민 및 시민의 교육 또는 문화활동을 장려하며, 국제적 도시로 이미지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과 국가의 산업, 무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1) 무역/상거래 증진

- 전시회 개최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무역거래, 사업 아이디어 및 파트너 개발 및 확보, 산업에 관한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와 동향 파악 등의 기회를 창출하는 국제적 마켓플레이스로서 무역/상거래의 증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지역경제활성화

- 국제적 컨벤션, 전시회, 회의를 유치 및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 숙박, 수송, 인쇄, 정보산업 등의 전시컨벤션 연계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큼.
- 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및 증대, 생산효과, 소득 및 세수효과를 비롯하여, 외국인 참가자 및 참가업체 유치를 통한 외화가득효과 창출 등 지역 전반으로 유입되는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수행함.

3) 정보네트워크 중심

-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와 전시, 최신 산업 및 기업 동향이 소개되는 등 최신정보가 집중되고, 민간 및 학술 전문가, 정책결정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함.

4) 교육/문화 활동 활성화

- 학술회의 및 학술교류회, 심포지엄, 강연, 세미나, 기업연수 등의 교육활동과 대규모 연주회나 전시회, 문화행사, 연예 및 오락행사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참가자 유치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교육 문화적 역량과 교양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5) 국제도시로 성장

-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과 국가의 산업, 무역경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시설로서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며, 주변시설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표현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긍정적 위상 및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함.

4. 전시컨벤션센터의 역할 변화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시컨벤션센터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시설 기능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전시장 운영에만 집중된 과거의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커뮤니티 플랫폼이자 MICE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추가됨.

1) MICE산업의 디지털화 견인

- 글로벌 비즈니스의 축이 디지털 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도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됨.
- 물리적 공간의 디지털화 등 단일 시설을 둘러싼 변화를 넘어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써 전시컨벤션센터의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흠 없는 온오프라인 연결과 방문 목적의 달성을 효율적으로 돕는 지능적 기반, 도시의 웰빙 및 진정한 스토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센터를 찾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요소임.
 -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의 경우 대표적 국제행사인 가전산업 전문 전시회 CES와 STEM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모이는 행사를 유치하면서 관련 인프라와 시설에 관한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음.
 - 밀라노전시장도 모던화 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 전시장 부지 일대를 스마트 디스트릭트로 개발하여 최첨단 인프라와 수준 높은 안전 및 보안 시스템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그림 2-2]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와 센터 내 도입될 혁신 모빌리티 운송 수단

2) 책임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선도

-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는 비즈니스 공동체는 물론 지역민 모두에게 일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경제와 거버넌스에 관한 책임 소재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녹색 경제와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역의 권한과 리더십으로 브랜드 되는 추세임.
- 글로벌 시장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 친화적 책임 경영과 ESG 모델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음.

- 파리노르빌팽트전시장은 부지 자체가 녹지 및 산림공원에 자리한 만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잘아하며 운영사인 브이아이파리(VIPARIS)의 다양성 증진 방침에 의거하여 차별에 투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특별한 비중을 두고 있음.



[그림 2-3] 방문객 경험 및 도시와의 지속가능한 연결에 방점을 둔 파리베르사유전시장(왼)과 자연친화적 공간의 파리노르빌팽트전시장(오)

3)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 플랫폼

- 이전 세대의 인프라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혹은 정치적 목적의 확장체로서 기능했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에 기술을 결합하여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효율성을 재편하고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션을 기반한 유기체로서 기능하게 됨.
- 전시컨벤션센터의 투명 경영과 지역민 참여 기회 증대를 통한 도시와 센터의 새로운 연결성 강화를 추진해야 함.



[그림 2-4]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책을 기부한 롱비치컨벤션센터

4) MICE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설로 변모

- MICE 행사는 사교, 네트워킹, 도시의 문화 및 자원의 경험 등의 활동으로 이어져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에 초점을 둠.
-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로서의 역할은 지역주민과 일반 관광객의 다양한 소비활동과 추가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발할 수 있음.
- 글로벌 전시장들은 시설 운영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지역민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멀티플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추세임.
 - 영국국립전시센터는 2015년 리조트월드 레저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를 오픈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전시·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로 발전하였음.
 - 미국 조지아월드콩그레스센터는 규모의 전시홀과 오디토리움, 야외플라자 공간 외에도 야외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센테니얼올림픽파크, 조지아돔, 스테이트팜아레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 등 인접 복합문화공간들과 함께 전시컨벤션·스포츠·엔터테인먼트 개최지로서 연간 1천억 달러의 지역경제효과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5] 영국국립전시센터와 미국 조지아월드콩그레스센터

제2절 전시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1. 세계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1)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가.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보고서를 발간하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이하 UIA) 및 국제컨벤션회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이하 ICCA) 기준에 따르면, 2019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UIA기준 12,472건, ICCA기준 13,254건임.

- UIA 통계¹⁾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했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 -2%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보임.

- ICCA 통계²⁾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4%, 1%씩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3%, 2018년 -2%로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9년에 2% 소폭 상승함.

[표 2-2]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2-2019년) (단위: 건)

개최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UIA	11,135	12,212	12,350	11,000	10,786	11,240	12,472
증감	▲1,077 (+10%)	▲138 (+1%)	▼1,350 (-11%)	▼214 (-2%)	▲454 (+4%)	▲1,232 (+11%)	
ICCA	12,696	13,253	13,524	13,651	13,275	12,951	13,254
증감	▲557 (+4%)	▲271 (+1%)	▲127 (+1%)	▼376 (-3%)	▼324 (-2%)	▲303 (+2%)	

자료: UIA("e13-"e1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 ICCA("e13-"e19), The ICCA Statistics Reports

1) UIA(201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61th Edition)

2) ICCA(2019), ICCA Statistics Report

나. 주요국 국제회의 개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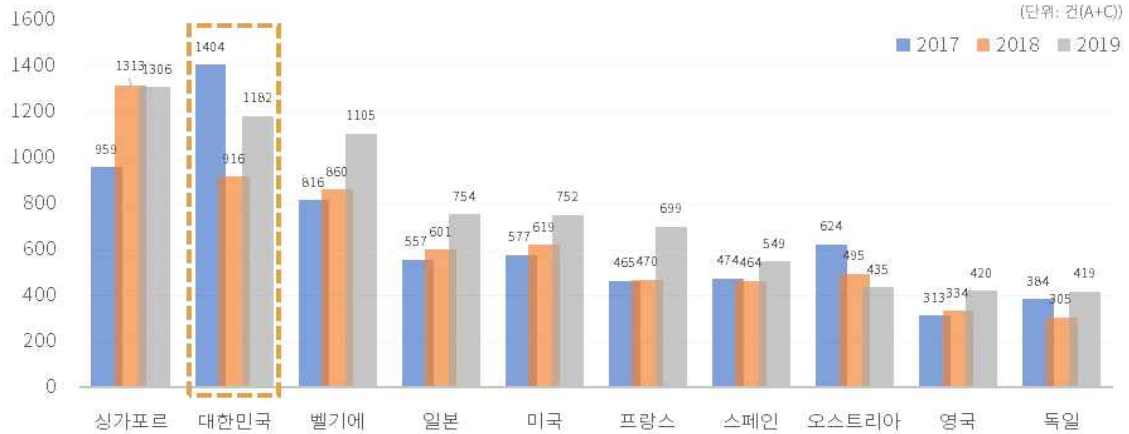
○ UIA 기준 2019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순위는 싱가포르가 1,306건을 개최하여 1위, 2위는 1,182건을 개최한 한국, 3위는 1,105건을 개최한 벨기에 순이었으며, 4위와 5위는 일본(754건)과 미국(752건)으로 1위인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20위 내에 60%가 유럽 국가였고, 30%는 아시아 국가였음.

○ 지난 3개년(2017~2019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약 1,16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벨기에에는 각각 1,192건, 927건, 일본과 미국이 각각 649건 및 637건을 개최하는 수준임.

[표 2-3] UIA 기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7-2019년) (단위: 건(A+C))

순위	국가명	2017년	순위	국가명	2018년	순위	국가명	2019년
1	대한민국	1,404	1	싱가포르	1,313	1	싱가포르	1,306
2	싱가포르	959	2	대한민국	916	2	대한민국	1,182
3	벨기에	816	3	벨기에	860	3	벨기에	1,105
4	오스트리아	624	4	미국	619	4	일본	754
5	미국	577	5	일본	601	5	미국	752
5	일본	557	6	오스트리아	495	6	프랑스	699
7	스페인	474	7	프랑스	470	7	스페인	549
8	프랑스	465	8	스페인	464	8	오스트리아	435
9	독일	384	9	영국	334	9	영국	420
10	태국	316	10	독일	305	10	독일	419
11	영국	313	11	네덜란드	294	11	태국	347
12	캐나다	246	12	캐나다	265	12	핀란드	321
13	스위스	237	13	이탈리아	236	13	네덜란드	320
14	네덜란드	228	14	호주	225	14	캐나다	269
15	아랍에미리트	227	15	스위스	210	15	이탈리아	268
16	호주	187	16	노르웨이	196	16	포르투갈	259
17	포르투갈	186	17	포르투갈	188	17	노르웨이	257
18	이탈리아	163	18	태국	185	18	스위스	251
19	핀란드	162	19	핀란드	181	19	호주	248
20	스웨덴	162	20	아랍에미리트	177	20	스웨덴	214



[그림 2-6] IAIA 기준 주요국 국제회의 개최현황

- ICCA 기준 2019년 1위는 미국으로 934건을 개최하였고, 2위는 독일(714건), 3위 프랑스(595건)이며, 아시아 국가로 중국 7위(539건), 일본 8위(527건), 한국 13위(248건) 등이 20위 내에 포함되었음.

[표 2-4] ICCA 기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7-2019년) (단위: 건)

순위	국가명	2017년	순위	국가명	2018년	순위	국가명	2019년
1	미국	1,007	1	미국	947	1	미국	934
2	독일	709	2	독일	642	2	독일	714
3	영국	609	3	스페인	595	3	프랑스	595
4	스페인	577	4	프랑스	579	4	스페인	578
5	이탈리아	548	5	영국	574	5	영국	567
6	프랑스	534	6	이탈리아	522	6	이탈리아	550
7	일본	427	7	일본	492	7	중국	539
8	중국	418	8	중국	449	8	일본	527
9	캐나다	378	9	네덜란드	355	9	네덜란드	356
10	네덜란드	327	10	캐나다	315	10	포르투갈	342
11	포르투갈	303	11	포르투갈	306	11	캐나다	336
12	대한민국	298	12	대한민국	273	12	호주	272
13	오스트리아	287	13	호주	265	13	대한민국	248
14	호주	268	14	스웨덴	257	14	벨기에	237
15	스웨덴	266	15	벨기에	252	15	스웨덴	237
16	브라질	248	16	오스트리아	240	16	오스트리아	231
16	스위스	244	17	브라질	233	17	스위스	221
18	폴란드	230	18	아르헨티나	232	18	아르헨티나	214
19	벨기에	226	19	폴란드	211	19	폴란드	213
20	아르헨티나	203	20	스위스	208	20	브라질	209

다. 세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UIA 기준 1위는 싱가포르(1,306건)이며, 2위 브뤼셀(971건), 3위 서울(639건), 4위 파리(434건), 5위 비엔나(337건) 순임.

- 그 외 상위 20위 내에 아시아 도시는 6위 도쿄(311건), 7위 방콕(294건), 15위 부산(182건) 세 건임.

- 충남도의 경우 당진, 서산 등에서 총 3건 개최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경기도가 20건, 광주광역시 22건, 대전광역시 44건인 점을 미루어보면 충남도의 MICE 관련 인프라와 관리 전담조직 등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시사함.

[표 2-5] UIA 기준 세계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2017-2019년) (단위: 건(A+C))

순위	도시명	2017	순위	도시명	2018	순위	도시명	2019
1	싱가포르	959	1	싱가포르	1,313	1	싱가포르	1,306
2	브뤼셀	768	2	브뤼셀	735	2	브뤼셀	971
3	서울	714	3	서울	449	3	서울	639
4	비엔나	533	4	비엔나	405	4	파리	434
5	파리	305	5	도쿄	328	5	비엔나	337
6	도쿄	275	6	파리	264	6	도쿄	311
7	부산	239	7	마드리드	208	7	방콕	294
8	방콕	236	8	런던	187	8	마드리드	224
9	바르셀로나	211	9	바르셀로나	153	9	런던	219
10	베를린	208	10	리스본	147	10	리스본	205
11	마드리드	175	11	제네바	145	11	베를린	193
12	런던	170	12	부산	137	12	헬싱키	191
13	제네바	158	12	프라하	134	12	부산	182
14	제주	151	12	헬싱키	133	12	제네바	174
15	몬트리올	149	15	코펜하겐	132	15	바르셀로나	167
16	두바이	140	16	베를린	131	16	스톡홀름	150
17	리스본	140	17	방콕	121	17	몬트리올	129
18	코펜하겐	132	18	스톡홀름	121	18	암스테르담	125
19	스톡홀름	123	19	두바이	117	19	코펜하겐	114
20	헬싱키	116	20	시드니	111	20	시드니	104

○ 2019년 ICCA 기준 1위는 파리(237건)이며, 2위 리스본(190건), 3위 베를린(176건), 4위 바르셀로나(156건), 5위 마드리드(154건) 순임.

- 상위 10개 도시 중 싱가포르(148건)와 도쿄(131건)를 제외한 8개가 유럽 도시이며, 20권내에 포함된 아시아 도시는 13위 방콕(124건), 15위 서울(114건), 19위 타이페이(101건)이 있음.

[표 2-6] ICCA 기준 세계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7-2019년) (단위: 건)

순위	도시명	2017	순위	도시명	2018	순위	도시명	2019
1	파리	204	1	파리	212	1	파리	237
2	바르셀로나	202	2	비엔나	172	2	리스본	190
3	비엔나	194	3	마드리드	165	3	베를린	176
4	베를린	189	4	바르셀로나	163	4	바르셀로나	156
5	런던	181	5	베를린	162	5	마드리드	154
6	싱가포르	159	6	리스본	152	6	비엔나	149
7	프라하	158	7	런던	150	7	싱가포르	148
8	리스본	152	8	싱가포르	145	8	런던	143
9	서울	149	9	프라하	136	9	프라하	138
10	마드리드	148	10	방콕	135	10	도쿄	131
11	부다페스트	139	11	부에노스아이레스	133	11	부에노스 아이레스	127
12	부에노스아이레스	133	12	홍콩	129	12	코펜하겐	125
13	홍콩	129	13	암스테르담	123	13	방콕	124
14	코펜하겐	127	13	도쿄	123	13	암스테르담	120
15	암스테르담	119	15	서울	122	15	서울	114
16	방콕	116	16	코펜하겐	120	16	더블린	109
17	더블린	114	17	브뤼셀	112	17	아테네	107
18	스톡홀름	106	18	더블린	104	18	로마	102
19	도쿄	105	19	스톡홀름	103	19	타이페이	101
20	브뤼셀	98	20	부다페스트	100	20	시드니	93



[그림 2-7] ICCA 기준 주요 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1) 세계 전시회 개최현황

가. 세계 전시회 개최현황

○ UFI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180개 국가에서 32,000건(전시면적, 138백만㎡)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3억 명 이상의 방문객과 450만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하였음.

- 2018년 세계 전시장 사용면적은 총 1억 3,750만㎡, 대륙별로 유럽(4천8백만㎡, 34.9%), 북미(4,650만㎡, 33.8%), 아시아태평양(3,380만㎡, 24.6%) 순임.
- 방문객 수는 유럽이 약 1억 1,200만 명(37.0%)로 가장 많았고 대륙별 참가업체 수는 북미가 160만 개사(35.3%)로 가장 많았음.
- 유럽의 경우 3개 지표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본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유럽 주최자들이 중국 등 신흥국으로 진출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표 2-7] 글로벌 전시산업 현황지표 비교(2008 vs 2018년)

지역	판매전시면적(백만㎡)			방문객(천명)			참가업체(천개사)		
	2008년	2018년	증가율	2008년	2018년	증가율	2008년	2018년	증가율
유럽	53.0	48.0	(-9.4%)	123,000	112,000	(-8.9%)	1,400	1,340	(-4.3%)
북미	28.3	46.5	(0.6%)	67,400	91,200	(35.3%)	750	1,600	(113.3%)
아시아 태평양	19.8	33.8	(64.3%)	47,200	81,500	(72.7%)	520	1,210	(132.7%)
중남미	4.0	5.2	(30.0%)	9,500	9,900	(4.2%)	110	217	(97.3%)
중동	2.4	3.0	(25.0%)	5,700	6,250	(9.6%)	64	125	(95.3%)
아프리카	1.0	1.0	(0.0%)	2,400	2,100	(-12.5%)	27	42	(55.6%)
총 합계	109.0	137.5	(26.1%)	254,808	302,950	(18.9%)	2,871	4,534	(57.9%)

자료: UFI(2020), Global Economic Impact of Exhibitions

2. 국내 MICE산업 현황

1) 국내 컨벤션/미팅 개최현황

-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의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기준에 따르면 회의 부문에 해당하는 Meeting과 Convention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2-8] KTO의 회의부문 유형 및 범위

구분	정의	범위
Convention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며 동시에(and)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 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
Meeting		Convention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 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 * 단,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행사는 국내 Meeting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2020)

가. 국내 컨벤션 개최현황

- 2019년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컨벤션은 모두 5,519건, 전체 참가자 수는 약 365만 명이며, 그중 국내 참가자 수는 약 295만 명, 해외 참가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나타남.
- 서울은 컨벤션 1,935건을 개최하고 총 151만 명의 참가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35%를 넘었고, 그다음으로는 제주와 부산이 각각 904건과 550건을 개최하고, 34만 명 및 29만 명의 참가자를 유치하면서 2위와 3위를 차지함.

[표 2-9] 2019년 국내 도시별 컨벤션 개최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개최건수		참가자수		회의 당 참가자수
서울	1,935	35.1%	1,514,306	41.4%	782
제주	904	16.4%	343,565	9.4%	380
부산	550	10.0%	299,446	8.2%	545
경기	455	8.2%	432,412	11.8%	949
인천	343	6.2%	228,099	6.2%	664
강원	341	6.2%	254,015	6.9%	746
전남	181	3.3%	82,786	2.3%	458
경북	155	2.8%	111,690	3.1%	721
광주	113	2.0%	60,277	1.6%	535
경남	102	1.8%	63,748	1.7%	623
대전	101	1.8%	81,022	2.2%	801
대구	92	1.7%	115,709	3.2%	1,262
충남	90	1.6%	23,294	0.6%	260
충북	85	1.5%	22,721	0.6%	267
전북	71	1.3%	22,879	0.6%	324
울산	1	0.0%	300	0.0%	300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9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2021)

나. 국내 미팅 개최현황

- 2019년 전국에서 개최된 미팅의 개최건수는 약 22만 건, 참가자 수는 약 2,056만 명이며, 미팅 한 건당 평균 참가자 수는 91명이었으며, 총 참가자 중 국내 참가자 수는 약 2,043만 명, 해외 참가자 수는 약 13만 명이었음.
- 서울시는 71,480건을 개최하고 참가자 약 575만 명을 유치하여 1위에 오르며 국내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함. 2위는 부산광역시로 24,120건을 개최하고 참가자수 191만 명을 유치하였음.

[표 2-10] 2019년 국내 도시별 미팅 개최현황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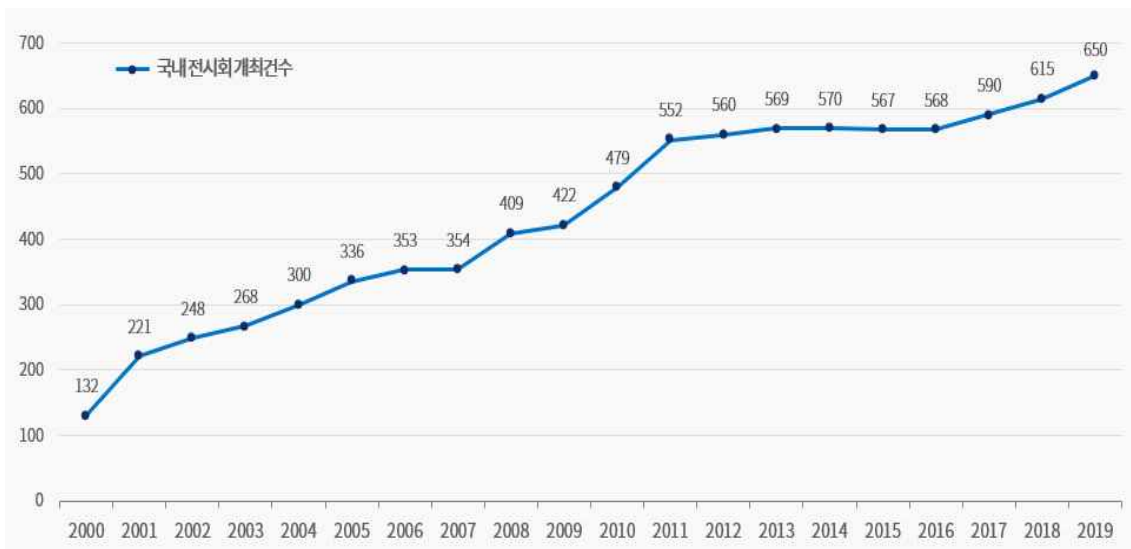
구분	개최건수		참가자수		회의 당 참가자수
	건수	비율	인원	비율	
서울	71,480	31.7%	5,756,091	28.0%	81
부산	24,120	10.7%	1,918,369	9.3%	80
경기	23,771	10.5%	2,215,105	10.8%	93
강원	18,048	8.0%	1,758,516	8.6%	97
대전	12,299	5.5%	716,804	3.5%	58
대구	10,428	4.6%	736,837	3.6%	71
경북	10,080	4.5%	1,144,659	5.6%	114
경남	9,252	4.1%	1,183,316	5.8%	128
충남	8,968	4.0%	875,941	4.3%	98
인천	8,821	3.9%	1,126,271	5.5%	128
전남	6,103	2.7%	668,124	3.2%	110
제주	5,590	2.5%	478,998	2.3%	86
광주	5,096	2.3%	909,466	4.4%	179
전북	4,673	2.1%	458,134	2.2%	98
충북	3,824	1.7%	489,576	2.4%	128
울산	3,101	1.4%	130,145	0.6%	42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19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 국내 전시회 개최현황

가. 연도별 전시회 개최 동향

- 국내 전시회 개최건수는 2000년 이후 국내 전시시설 건립 및 확충으로 인한 공급면적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 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2014년 이후로는 570건 내외를 기록함.
- 2017년 이후에는 전시장 확충 및 중소형 시설의 가동률 제고에 따른 개최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615건을 개최하였음.
- 국내 전시시설 신규 건립 및 확충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제 및 무역 규모의 성장 기회, 신산업/신기술/신제품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시산업은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내전시산업통계 재구성(2020년)

[그림 2-8] 국내 전시회 개최현황 (2000-2019년)

나. 지역별 · 시설별 개최현황

- 최근 5년의 시설별 전시회 개최건수는 지역별 시장의 성장 및 가동률 제고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중 5년간 가장 큰 평균 증감률은 경상북도 +37.7%,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0.9%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평균 증감률은 3.1%,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5.4% 성장하여 국내 전반의 개최건수 성장을 주도하였음.

○ 최근 3년의 개최건수 증가는 서울, 수도권, 경상북도 등이 주도하였으며, aT센터와 송도컨벤시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구미 GUMICO, 경주 HICO, 군산 GSCO 등 지역 소형 시설들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2-11] 시설별 전시회 개최현황(2015-2019년)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증감률		
지역	시설명						'15~'19	'17~'19	
수도권	서울특별시	aT Center	39	40	52	48	51	6.9%	-1.0%
		Coex	131	136	135	140	143	2.2%	2.9%
		SETEC	42	43	43	46	46	2.3%	2.2%
		소 계	212	219	219	240	240	3.1%	1.9%
	경기도	KINTEX	107	104	104	107	107	0.0%	0.5%
		SCC	-	-	-	25	25	-	-
		소 계	107	104	106	106	132	5.4%	11.6%
인천광역시	ConvensiA	16	18	21	26	26	12.9%	11.3%	
수도권 소계		335	341	358	367	398	4.4%	5.4%	
기타 권역	부산광역시	BEXCO	73	75	80	77	77	1.3%	-1.9%
	경상남도	CECO	27	29	24	28	28	0.9%	8.0%
	대구광역시	EXCO	45	46	41	48	50	2.7%	10.4%
	경상북도	GUMICO	5	4	4	9	10	18.9%	58.1%
		HICO	5	2	6	8	8	12.5%	15.5%
		소 계	5	6	10	17	18	37.7%	34.2%
	대전광역시	DCC	7	5	5	5	13	16.7%	61.2%
		KOTREX	12	10	13	17	-	-	-
		소 계	10	10	18	22	-	-	-
	광주광역시	KDJ Center	33	15	38	36	36	2.2%	-2.7%
	전라북도	GSCO	5	39	3	5	8	12.5%	63.3%
제주도	ICC Jeju	8	8	13	10	15	17.0%	7.4%	
기타 권역 소계		215	221	227	243	245	3.3%	3.9%	
기타 시설		12	6	5	5	7	-12.6%	18.3%	
총 계		567	568	590	615	650	3.5%	5.0%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8), 국내전시산업통계

다. 전시회 유형별 개최현황(2015-2019년)

- 전시회 유형별 개최현황에 따르면, 무역전시회의 감소가 지속되어 2015년 이후 7.7% 이상 감소하였으나, 혼합전시회와 일반전시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혼합전시회의 경우 2015년 대비 30.5%(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유형별 전시회 개최건수(2015-2019년)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5~'19 증감	'17~'19 증감
무역전시회	130	120	125	129	120	-7.7%	-4.0%
혼합전시회	177	191	254	259	231	30.5%	-9.1%
일반전시회	260	257	211	227	299	15.0%	41.7%
합계	567	568	590	615	650	14.6%	10.2%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20), 2019 전시산업 통계조사 결과표

라. 참가업체 수 현황(2014-2018년)

- 최근 5년의 국내 전시회 평균 참가업체 수는 2016년 128개사에서 2018년 136개사로 3.1% 증가하였으며, 해외 업체보다는 국내 참가업체 수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표 2-13] 연도별 평균 참가업체 수 현황(2014-2018년)

(단위: 개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18 증감	'16~'18 증감
국내	127 (88.2%)	128 (84.9%)	128 (84.7%)	144 (87.3%)	136 (87.4%)	1.7%	3.1%
해외	17 (11.8%)	23 (15.1%)	23 (15.3%)	21 (12.7%)	20 (12.6%)	4.1%	-6.7%
전체	144	156	151	165	155	1.9	1.3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 2019 전시산업 통계조사 결과표

[표 2-14] 시설별 전시회 평균 참가업체 수 비교(2014-2018년)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지역	시설명						'14~'18	'16~'18	
수도권	서울특별시	aT Center	58	135	109	127	106	82.8%	-2.8%
		Coex	184	189	186	190	192	4.3%	3.2%
		SETEC	96	141	121	144	134	39.6%	10.7%
		소 계	144	155	159	154	162	12.5%	1.9%
	경기도	KINTEX	209	215	218	228	230	10.0%	5.5%
	인천광역시	ConvensiA	151	124	113	124	154	2.0%	36.3%
	수도권 소계		165	182	175	183	181	9.7%	3.4%
기타 권역	부산광역시	BEXCO	152	143	124	164	103	-32.2%	-16.9%
	경상남도	CECO	118	130	102	121	114	-3.4%	11.8%
	대구광역시	EXCO	124	120	114	166	160	29.0%	40.4%
	경상북도	GUMICO	70	70	71	78	70	0.0%	-1.4%
		HICO	-	57	71	97	60	-	-15.5%
		소 계	70	64	71	87	65	-7.1%	-8.5%
	대전광역시	DCC	86	88	86	65	68	-20.9%	-20.9%
		KOTREX	96	143	108	143	102	6.3%	-5.6%
		소 계	91	116	101	104	94	3.3%	-6.9%
	광주광역시	KDJ Center	105	93	111	101	117	11.4%	5.4%
	전라북도	GSCO	-	56	48	115	115	-	139.6%
제주도	ICC Jeju	57	64	69	76	76	33.3%	10.1%	
기타 권역 소계		123	122	111	137	113	-8.1%	1.8%	
기타 시설		86	201	272	261	277	222.1%	1.8%	
총 계		144	151	151	166	155	7.6%	2.6%	
*기타시설 제외 합계		147	150	150	165	154	4.8%	2.7%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 국내전시산업통계

마. 참관객 수 현황(2015-2019년)

○ 국내 참관객 수의 경우, 2019년 평균 12,134명으로, 2017년 평균 13,280명 대비 8.6% 가량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aT센터, SETEC, KINTEX, ConvensiA의 평균 참관객이 감소했고, 창원 CECO, 대구 EXCO, 대전 DCC 등의 평균 참관객이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참관객 수 감소는 전시회 개최건수 증가 및 신규 런칭한 소형 전시회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격년 개최 행사로 인해 짝/홀수 년도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15] 지역별·시설별 평균 참관객 수 비교(2015-2019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지역	시설명						'15~'19	'17~'19	
수도권	서울특별시	aT Center	5,284	6,345	5,329	4,637	4,776	-9.6%	-10.4%
		Coex	16,248	16,572	15,317	15,379	15,626	-3.8%	2.0%
		SETEC	5,698	8,221	8,996	8,316	6,390	12.1%	-29.0%
		소 계	9,077	10,379	9,881	11,714	11,550	27.2%	16.9%
	경기도	KINTEX	26,483	18,961	25,961	19,688	22,009	-16.9%	-15.2%
		SCC	-	-	-	-	5,461	-	-
		소 계	26,483	18,961	25,961	19,688	18,875	-28.7%	-27.3%
인천광역시	ConvensiA	6,931	5,401	6,901	6,673	5,807	-16.2%	-15.9%	
수도권 소계		16,473	14,458	15,493	13,715	13,225	-19.7%	-14.6%	
기타 권역	부산광역시	BEXCO	7,909	21,042	12,768	11,212	12,198	54.2%	-4.5%
	경상남도	CECO	5,291	7,120	5,556	7,051	8,346	57.7%	50.2%
	대구광역시	EXCO	6,180	9,031	7,837	7,898	8,033	30.0%	2.5%
	경상북도	GUMICO	2,077	4,926	4,127	3,683	3,720	79.1%	-9.9%
		HICO	1,784	1,725	2,043	1,817	1,840	3.1%	-9.9%
		소 계	1,931	3,325	3,085	2,805	2,885	49.4%	-6.5%
	대전광역시	DCC	1,459	2,250	1,711	2,305	4,101	181.1%	139.7%
	광주광역시	KDJ Center	4,339	5,307	5,706	6,162	6,384	47.1%	11.9%
	전라북도	GSCO	2,613	3,599	5,070	2,307	2,711	3.8%	-46.5%
제주도	ICC Jeju	3,899	5,124	4,588	3,767	3,222	-17.4%	-29.8%	
기타 권역 소계		12,725	13,838	13,580	12,144	8,080	-36.5%	-40.5%	
기타 시설		76,860	112,907	118,748	121,055	96,926	26.1%	-18.4%	
총 계		12,725	13,838	13,580	12,144	12,419	-2.4%	-8.5%	
*기타시설 제외 합계		11,338	12,780	12,682	11,252	12,404	9.4%	-2.2%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 국내전시산업통계

바.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수 현황(2014-2018년)

- 2018년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는 12,038개사, 해외 참관객은 277,283명이었으며, 2016년 이후 참가업체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참관객 수는 201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함.

[표 2-16] 연도별 해외 총 참관객/참가업체 수 비교(2014-2018년)

(단위: 개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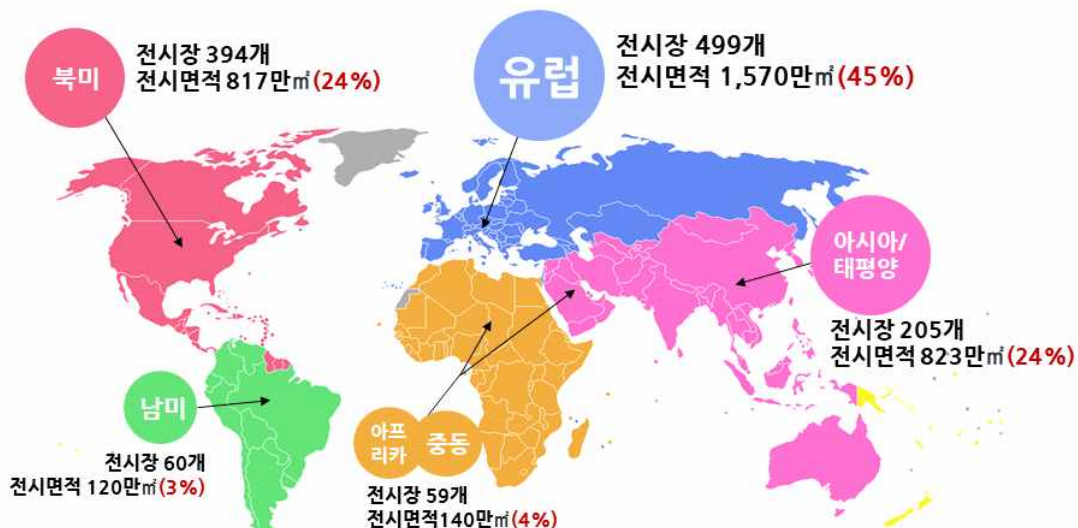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18 증감	'16~'18 증감
해외 총 참가업체	9,516	12,854	13,195	12,363	12,038	-12.4%	-3.8%
해외 총 참관객	173,699	215,745	214,429	177,230	277,283	7.0%	3.0%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9), 국내전시산업통계

3. 국내외 컨벤션센터 현황

1) 세계 인프라 공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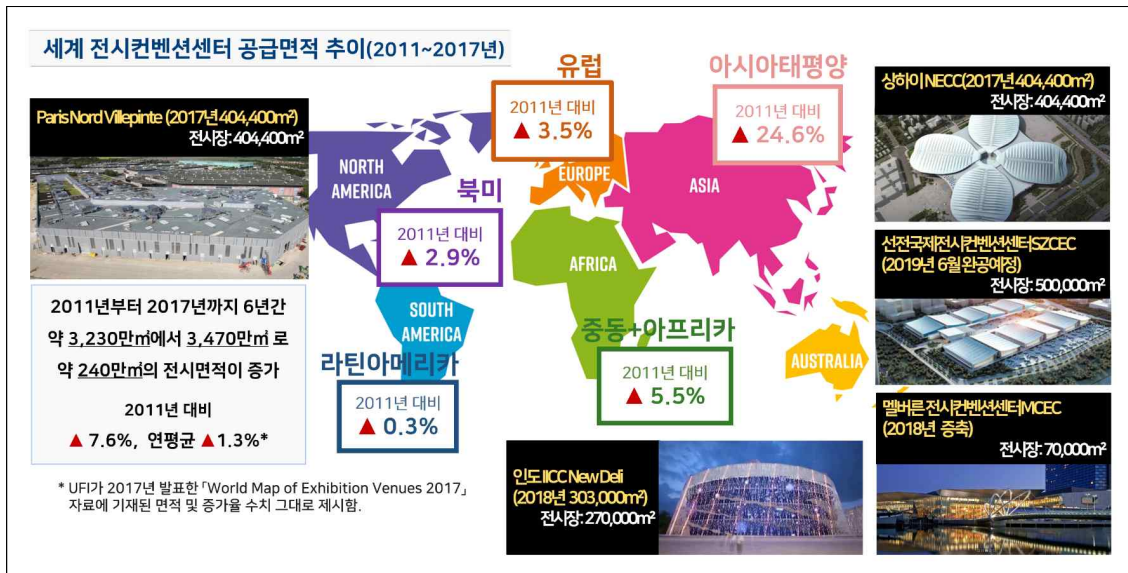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전시장을 신규 건립하거나 확충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시장 공급시설 및 공급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전시장은 총 1,217개, 공급면적은 총 3,470만㎡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2-9] 세계 전시장 공급현황 (2017년 기준)

가. 세계 전시장 공급면적 추이

- 세계 전시장 공급면적은 신규시설 건립 및 기존시설 확장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230만㎡에서 3,470만㎡로 약 240만㎡(7.6%,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대륙별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약 163만㎡ 증가하여 세계 전시장 공급면적 증가분의 약 70%를 이끌며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 지원 및 발전계획에 따라 국내외 자본 투자를 통해 도시별로 시설을 건립 및 확충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유럽과 미주지역도 기존 전시장 확충 및 개보수 사업 진행을 통해 전시장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자료: UFI(2017), The world map of exhibition venues 2017.

[그림 2-10] 세계 전시장 공급 추이(2011-2017년 기준)

나. 국가별 전시장 공급현황(10만㎡ 이상)

- 전 세계적으로 전시면적 7만㎡ 이상의 전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그중 중국이 39개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3개의 전시장을 보유한 독일의 총 공급면적은 약 246만㎡로 15%의 점유율을 기록함 국가별 순위 1, 2위를 기록한 중국과 독일 두 국가의 전시면적은 800만㎡가 넘어 전 세계 중대형 전시장 공급면적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7] 국가별 전시장 공급현황 (총면적 7만㎡ 이상)

순위	국가명	전시장 수(개)	총 공급면적(㎡)	평균면적(㎡)	점유율 (공급면적기준)
1	중국	39	5,598,068	143,540	34.2%
2	독일	13	2,462,318	189,409	15.0%
3	미국	14	1,615,161	115,369	9.9%
4	이탈리아	10	1,416,722	141,672	8.6%
5	스페인	6	970,598	161,766	5.9%
6	프랑스	5	758,152	151,630	4.6%
7	브라질	4	329,077	82,269	2.0%
8	러시아	2	320,960	160,480	2.0%
9	영국	2	289,267	144,634	1.8%
10	터키	3	276,880	92,293	1.7%
11	스위스	2	247,000	123,500	1.5%
12	폴란드	2	238,270	119,135	1.5%
13	일본	3	237,499	79,166	1.4%
14	캐나다	2	185,806	92,903	1.1%
15	아랍에미리트	2	185,491	92,746	1.1%
16	네덜란드	2	179,754	89,877	1.1%
17	태국	1	137,000	137,000	0.8%
18	벨기에	1	115,000	115,000	0.7%
19	덴마크	1	110,000	110,000	0.7%
20	체코	1	110,000	110,000	0.7%
21	대한민국	1	108,011	108,011	0.7%
22	싱가포르	1	100,000	100,000	0.6%
23	이란	1	96,334	96,334	0.6%
24	대만	1	79,480	79,480	0.5%
25	인도	1	77,453	77,453	0.5%
26	마카오	1	74,862	74,862	0.5%
27	스웨덴	1	70,000	70,000	0.4%
합계		122	16,389,163	134,337	100.0%

자료: 글로벌MICE인사이드 vol.38(2019)

다. 세계 TOP 전시장 현황(10만㎡ 이상)

-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전시장 규모가 20만㎡ 이상인 전시장은 총 22개 이며, 초대형 전시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역시 중국과 독일로, 각각 8개와 5개를 보유하고 있음.

[표 2-18] 규모별 세계 전시장 현황(20만㎡ 이상 / 2019년 기준)

순위	국가명	도시명	전시장명	옥내 전시면적(㎡)	구분
1	중국	상하이	상하이국립전시컨벤션센터	400,000	40만㎡ 이상
2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전시장	393,838	35만㎡ 이상~ 40만㎡ 미만
3	독일	하노버	하노버전시장	392,453	
4	중국	선전	선전월드전시컨벤션센터	368,000	
5	이탈리아	밀라노	피에라밀라노	345,000	30만㎡ 이상~ 35만㎡ 미만
6	중국	광저우	중국수출입페어콤플렉스	338,000	
7	중국	쿤밍	쿤밍디앤츠전시컨벤션센터	310,000	
8	독일	켈른	켈른전시장	284,000	25만㎡ 이상~
9	중국	빈저우	중국추두국제전시컨벤션센터	250,000	30만㎡ 미만
10	독일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전시장	249,362	20만㎡ 이상~ 25만㎡ 미만
11	프랑스	파리	파리노르빌뱅뜨전시장	246,312	
12	미국	시카고	맥코믹플레이스	241,548	
13	스페인	발렌시아	발렌시아전시장	223,090	
14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엑스포전시장	215,960	
15	중국	청두	서부중국국제엑스포시티전시장	205,000	
16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그란비아전시장	203,106	
17	프랑스	파리	파리베르사유전시장	202,036	
18	독일	뮌헨	뉴뮌헨전시장	200,000	
18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전시장	200,000	
18	이탈리아	볼로냐	볼로냐전시장	200,000	
18	중국	상하이	상하이뉴국제엑스포센터	200,000	
18	중국	광저우	광저우국제소싱센터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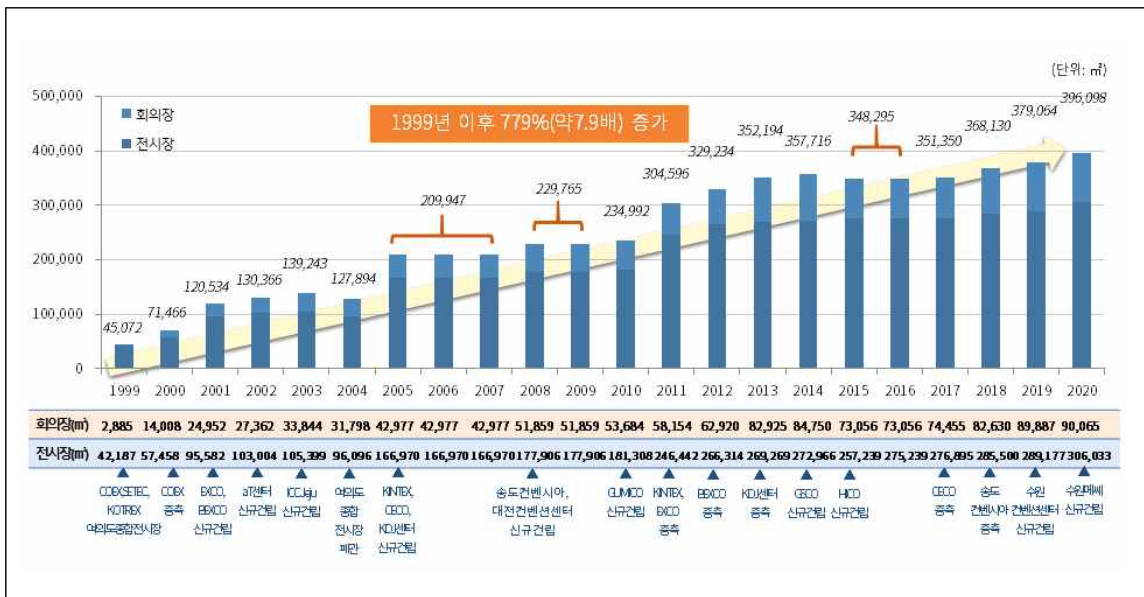
자료: 글로벌MICE인사이트 vol.38(2019)

1) 국내 인프라 공급현황

가. 국내 전시컨벤션 인프라 공급추이

○ 국내 전시컨벤션 행사의 개최수요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시설의 공급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2019년 국내 총 공급면적은 1999년 대비 약 779%(회의장 : 약 3,022%, 전시장: 약 6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전시컨벤션 인프라 공급면적 증가 추이는 전시컨벤션시설 신규 건립과 기존 전시컨벤션시설의 확충사업에 따른 것임.



[그림 2-11]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인프라 공급 추이(199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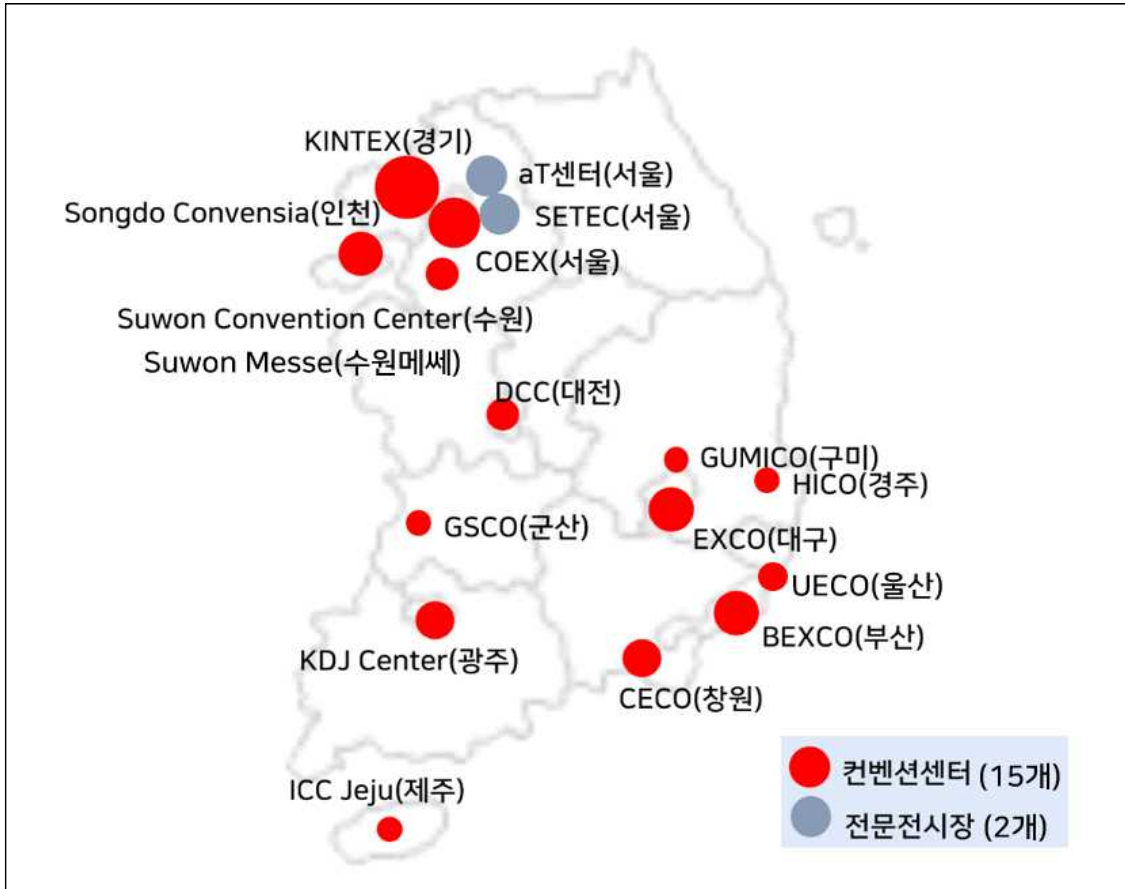
나. 국내 지역별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운영 중인 전시컨벤션센터는 서울시 3개, 경기도 및 인천 등 수도권 4개, 충청권(대전) 1개, 동남권(부산, 창원) 2개, 대경권(대구, 구미, 경주, 울산) 4개, 호남권(광주, 군산) 2개, 제주권(제주) 1개 등 총 17개로, 이들 시설의 총 공급면적은 전시장 면적 308,577m², 회의장 면적 84,931m² 등 총 393,508m²임.

[표 2-19]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공급 현황

구분	시설명	전시장 현황		회의장 현황		총면적(㎡)			
		전시장 면적(㎡)	비중(%)	회의장 면적(㎡)	비중(%)				
서울시	코엑스	36,007	51,377	11.8	11,123	13,037	13.1	47,130	64,414
	세텍	7,948		2.6	839		1.0	8,787	
	aT Center	7,422		2.4	1,075		1.3	8,497	
수도권	킨텍스	108,566	142,544	35.7	10,188	25,765	12.0	118,754	168,309
	송도 컨벤시아	17,021		5.6	8,142		9.6	25,163	
	수원 컨벤션 센터	7,877		2.6	7,257		8.6	15,134	
	수원 메세	9,080		3	178		0.2	9,258	
충청권	대전 컨벤션 센터	2,520	2,520	0.8	4,064	4,064	4.8	6,584	6,584
동남권	백스코	46,380	54,207	15.2	11,607	14,391	13.7	57,987	68,598
	창원 컨벤션 센터	7,827		2.6	2,784		3.3	10,611	
대경권	EXCO	22,159	35,610	7.3	7,903	13,993	9.3	30,062	49,603
	HICO	2,273		0.7	5,137		6.1	7,410	
	구미코	3,402		1.1	953		1.1	4,355	
	UECO	7,776		2.6	0		0	7,776	
호남권	KDJ CENTER	12,027	15,724	4	4,529	6,354	5.4	16,556	22,078
	군산새만 금컨벤션 센터	3,697		1.2	1,825		2.2	5,522	
제주권	ICC제주	2,395	2,395	0.8	7,009	7,009	8.3	9,404	9,404
총계		304,377		100	84,613		100	388,990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그림 2-12]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인프라 현황(2021년 기준)

다. 연도별 전시장 공급현황

- 국내 전시컨벤션시설의 공급면적은 1991년 코엑스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센터의 건립과 기존 시설의 증축을 통해 확충되어 왔으며, 2021년 6월 기준의 국내 전시장 총 공급면적은 328,53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0] 연도별 전시장 공급현황

연도	전시장(㎡)	비고
1991년	20,736	COEX 건립(20,736㎡)
1995년	24,936	KOTREX 건립(+4,200㎡)
1996년	34,239	여의도전시장 건립(+9,303㎡)
1999년	42,187	SETEC 건립(+7,948㎡)
2000년	57,458	COEX 증축(+15,271㎡)
2001년	95,582	EXCO 건립(+11,616㎡) BEXCO 건립(+26,508㎡)
2002년	103,004	aT Center 건립(+7,422㎡)
2003년	105,399	ICC Jeju 건립(+2,395㎡)
2004년	96,096	여의도전시장 폐관(-9,303㎡)
2005년	166,970	KINTEX 건립(+53,975㎡) CECO 건립(+7,827㎡) KDJ Center 건립(+9,072㎡)
2008년	177,906	송도컨벤시아(+8,416㎡) DCC 건립(+2,520㎡)
2010년	181,308	GUMICO 건립(+3,402㎡)
2011년	246,442	KINTEX 건립(+54,591㎡) EXCO 건립(+10,543㎡)
2012년	266,314	BEXCO 건립(+19,872㎡)
2013년	269,269	KDJ Center 증축(+2,955㎡)
2014년	272,966	GSCO 건립(+3,697㎡)
2015년	275,239	HICO 건립(+2,273㎡)
2017년	276,895	CECO 증축(+1,656㎡)
2018년	282,500	송도컨벤시아 증축(+8,605㎡)
2019년	289,177	수원컨벤션센터 건립(+7,877㎡) KOTREX 폐쇄(-4,200㎡)
2020년	298,257	수원메세 건립(+9,080㎡)
2021년	328,533	울산전시컨벤션 건립(+7,776㎡)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15,000㎡)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증축(+7,500㎡)
2022년(예정)	428,901	킨텍스 증축(+70,000㎡)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15,000㎡) ICC JEJU 증축(+5,000㎡) 충북청주전시장 증축(+10,368㎡)

자료: 전시산업진흥회(2019)

제 3 장

경상북도 MICE 제반여건 분석

제1절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분석

제2절 경상북도 MICE 행사 수요 분석

제3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 분석

제4절 경상북도 관광 분석

제5절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분석

제3장 경상북도 MICE 제반여건 분석

제1절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분석

1. 전시컨벤션센터 공급 현황

1) 구미코(GUMICO)

가. 설립배경

- 구미시는 수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위치한 산업도시로써 경상북도와 대경권의 중요한 경제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구미의 200만 달러 수출을 기념하면서 디지털전자산업과 IT산업의 메카로 그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시설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현 구미코) 설립을 결정함.

[표 3-1] 구미코 개요

개관일	2010년 10월 8일
운영자	㈜엑스코
규모	지상 3층 부지 31,339㎡ 연면적 14,392㎡
시설	실내전시장 3,402㎡ 회의실 953㎡ 기타홍보관 1,090㎡
건설비	380 억 원 (국비 185억, 도비 80억, 시비 115억)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홈페이지	www.gumico.com

자료: 구미코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나. 주요 개최행사

- 전시회: 구미건축박람회, 경북캠핑레저박람회, 구미맘아랑베이페어, 한국
출판 산업박람회, 3D프린팅코리아엑스포
- 컨벤션: 국제탄소포럼, 엘지이노텍 현장직 입문교육, 경북 아대양주해외바
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다. 시설현황



[그림 3-1] 구미코 전경

[표 3-2] 구미코 시설현황

전시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부스	비고
전시장	2F	전시, 이벤트 등	3,402㎡	150개	2분할
시설면적 합계			3,402㎡		
회의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인원	최대 개실 수
대회의실	3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452㎡	400명	
중회의실	3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223㎡	150명	2개
소회의실	3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278㎡	180명	4개
시설면적 합계			953㎡		
기타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부스	비고
홍보관	1F	예술작품, 소규모 전시회	1,090㎡	60개	3분할
시설면적 합계			1,090㎡		

자료: 구미코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2)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2023년 증축 예정

가. 설립배경

- 경주시는 역사적 문화 기반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문 관광단지 조성 이후로는 서울, 제주, 부산을 제외하고 특급호텔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소규모 컨벤션과 심포지엄 개최지로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었고, 방폐장 유치와 한국수력원자력 이전으로 인한 지원금을 배경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이 결정됨.

[표 3-3]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요

개관일	2015년 3월 2일
운영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 42,774㎡ 연면적 31,336㎡
시설	실내전시장 2,273㎡ 옥외전시장 4,000㎡ 회의실 5,137㎡
건립비	1,200억 원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8116
홈페이지	www.crowncity.kr

자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나. 주요 개최행사

- 전시회: 국제문화재산업전, 한옥문화박람회,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 컨벤션: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국제치료 초음파 학술대회, 국제바이오 복합재 학술대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국제학술대회

다. 시설현황



[그림 3-2]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경

[표 3-4]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시설현황

전시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부스	비고
전시장	1F	전시, 이벤트 등	2,273㎡	115개	2분할/무주
시설면적 합계			2,273㎡		
회의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인원	최대 개실 수
회의실(101-106)	1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730㎡	480명	6개
회의실(201-206)	2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826㎡	520명	6개
귀빈회의실	2F	VIP회의	160㎡	68명	2개
대회의실	3F	연회, 이벤트, 대형회의	3,421㎡	3,500명(극장식)	3개
시설면적 합계			5,137㎡		

자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라. 증축계획 및 규모

○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시장과 회의장뿐 아니라 관광 등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의 증축을 2019년에 발표함.

- 2023년 증축 완료 예정
- 전시장 규모 4,000㎡ 증축 시 총 전시장 면적 6,273㎡ 예정, 176% 증축
- 증축 시 회의장 면적은 5,137㎡으로 유지

3)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 2021년 완공 예정

가. 설립배경

- 안동시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사업 중 선도 사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유교 자원을 활용한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유치로 MICE산업 육성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축 역할을 위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음.

[표 3-5]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개요

개관일	2021년 11월 예정
운영자	안동시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 부지 29,583㎡ 연면적 28,430㎡
시설	회의실 3,786㎡ 세계유교문화박물관 4,641㎡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130-50

자료: 안동시청 제공 자료 재구성 (2021년 5월)

나. 주요 개최행사

- 컨벤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22년 예정)

다. 시설현황



[그림 3-3]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조감도

[표 3-6]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시설현황

회의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인원	최대 개실 수
대회의실	B1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2,400㎡	2,000명	3개
중소회의실	2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1,386㎡	1,200명	13개
시설면적 합계			3,786㎡		

자료: 안동시청 제공 자료 재구성 (2021년 5월)

4)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 2025년 완공 예정

가. 설립배경

- 포항시는 환동해권 해양관광도시 및 환동해 경제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의 2023년 준공 및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함.

[표 3-7]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개요

개관일	2025년 예정
규모	지상 3층
	부지 26,243㎡
	연면적 35,456㎡
시설	전시장 8,000㎡
	회의실 8,000㎡
사업비	971억 원(예정)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옛 미군부대 부지 일원

자료: 포항시청 제공 자료 재구성 (2021년 5월)



[그림 3-4]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상상도

5) 대구 엑스코(비교)

가. 설립배경

- 국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대구 엑스코는 대경권 첫 국제규모 전시컨벤션센터로써 전시컨벤션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더해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4월에는 제 2전시장(동관)을 개관하며 기본 전시장 규모 약30,000㎡와 각 시설을 활용하여 전시회 개최 시 최대 규모 약 35,000㎡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재탄생함.

[표 3-8] 엑스코 개요

개관일	2001년 4월 19일
운영자	(주)엑스코
규모	[제 1전시장/서관] 지상 5층, 지하 4층 부지 26,944㎡ 연면적 43,014㎡ [제 2전시장/동관] - 2021년 4월 28일 개관 지상 1층, 지하 2층 부지 36,952㎡ 연면적 40,472㎡
시설	전시장 29,439㎡ 회의실 3,724㎡(기타 겸용시설 활용 시 10,838㎡)
사업비	1,800억 원(서관) + 2,694억 원(동관) = 4,494억 원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자료: 엑스코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나. 주요 개최행사

- 전시회: 그린에너지엑스포, 대구국제광학전,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 컨벤션: 그린뉴딜산업육성포럼,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 세계가스총회

다. 시설현황



[그림 3-5] 엑스코 전경

[표 3-9] 엑스코 시설현황

전시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최대 수용부스	비고
서관 전시장	1F	전시, 이벤트 등	14,415㎡	700개	3분할
동관 전시장	1F	전시, 이벤트 등	15,024㎡	750개	3분할/무주
시설면적 합계			29,439㎡		
회의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수용인원	최대 개실 수
국제회의실 211호	2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476㎡	450명	1개
3층 회의실	3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2,768㎡	2,710명	18개
5층 회의실	5F	각종회의, 학술대회 등	480㎡	275명	4개
시설면적 합계			3,724㎡		
기타 및 겸용시설	위치	용도	시설면적	수용부스 및 인원	비고
서관 그랜드볼룸	3F	전시, 각종회의 겸용	3,242㎡	160개/2,800명	2분할
서관 컨벤션홀	5F	전시, 각종회의 겸용	3,872㎡	200개/3,500명	2분할/무주
옥외전시장	옥외	기타 부대행사	3,940㎡	-	8분할
5층 오디토리움	5F	소규모 회의 및 공연 등	160㎡	1,400명	극장식
시설면적 합계			11,214㎡		

자료: 엑스코 홈페이지 재구성 (2021년 5월)

2. 유니크베뉴 공급 현황

1) 유니크베뉴 21선 현황

가. 선정배경

-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도 내 문화적 독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회의장소를 조사하여 원활한 MICE 행사 유치와 특색 있는 도 브랜딩을 위해 각 시군 내 유니크베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 유니크베뉴 21선’을 선정하였음.

나. 현황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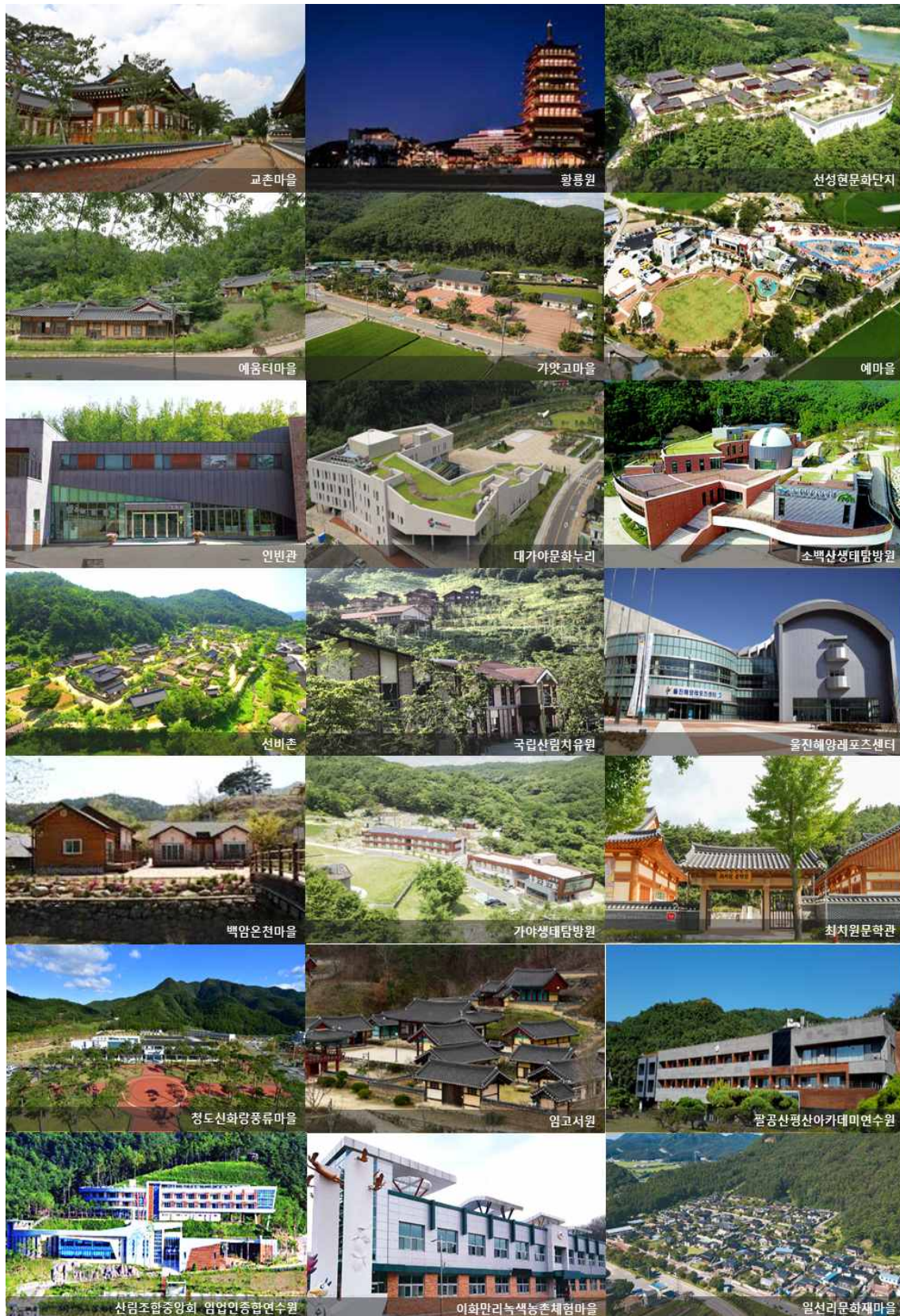
- 유니크베뉴 21선에 선정된 시설은 경주시 2개소, 안동시 2개소, 고령군 4개소, 영주시 3개소, 울진군 2개소, 성주군, 의성군, 청도군, 영천시 칠곡군, 청송군, 김천시, 구미시 각 1개소이며, 최대 규모 회의실을 보유한 베뉴는 의성군의 최치원문학관 대강당으로 754명 수용 가능한 규모임.
 - 경주시에 소재한 황룡원은 유니크베뉴 21선 중 과거 기업회의 및 행사 유치 경험이 가장 많은 베뉴로 ‘2019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 ‘포스코 50주년 세계철강협회’ 등을 유치한 경험이 있음.
 - 안동시 소재 예옴터마을은 한양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워크숍과 불보코리아 등 기업 워크숍에 더해 ‘경북 23개 시장군수도지사 동백회’, ‘아세안 10개국 대상 지속가능문화유산관광 워크숍’, ‘2020년 제 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등을 유치한 경험이 있으며, 이 외 고령군 인빈관, 청도군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김천시 이화만리녹색농촌체험마을,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등이 활발하게 행사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10] 경상북도 유니크베뉴 21선 현황

지역	유니크베뉴	수용인원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숙박가능여부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774명	대강당	754명	가능
			세미나실	20명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808명	우륵홀	638명	불가능
			가야금홀	140명	
			회의실	30명	
칠곡군	팔공산 평산아카데미 연수원	610명	컨벤션홀	300명	가능
			리더스홀	120명	
			에센스홀	60명	
			아너스홀	50명	
			로즈홀	30명	
			아트홀	30명	
			미팅룸	20명	
영주시	소백산생태탐방원	210명	회의실	210명	가능
고령군	가얏고마을	250명	문화관	200명	가능
			체험관	50명	
청송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400명	대강당	200명	가능
			세미나실	80명	
			중강의실	80명	
			소강의실	40명	
경주시	황룡원	510명	대연회장	200명	가능
			금강홀	150명	
			화랑홀	150명	
			미팅룸	10명	
청도군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397명	대강당	194명	가능
			다목적홀	150명	
			회의실	30명	
			세미나실	23명	

지역	유니크베뉴	수용인원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숙박가능여부
울진군	울진해양 레포트센터	362명	대강당	176명	가능
			중강당	101명	
			중강의실	50명	
			소강의실	35명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	336명	컨퍼런스홀	150명	가능
			중강당	80명	
			중회의실1	20명	
			교육실	20명	
			소회의실	15명	
			중회의실2	13명	
			중회의실3	13명	
			중회의실4	13명	
영주시	선비촌 외 2개소	228명	소수박물관	128명	가능
			수련원	100명	
고령군	예마을	120명	대강당	100명	가능
			소회의실	20명	
김천시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	100명	회의실	100명	가능
영천시	임고서원	120명	대회의실	100명	가능
			소회의실	20명	
			포은연수관	-	
경주시	교촌마을	80명	교육장	80명	가능
성주군	가야산생태탐방원	96명	강당	60명	가능
			제1강의실	20명	
			제2강의실	16명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50명	한옥체험관	50명	가능
고령군	인빈관	78명	주산실	50명	가능
			금산실	28명	
안동시	예움터마을	50명	가변형실	30명	가능
			소회의실	20명	
울진군	백암온천마을	-	-	-	가능
구미시	일선리문화재마을	-	-	-	가능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그림 3-6] 유니크베뉴 21선 전경

3. 기타시설 내 회의실 공급 현황

1) 숙박업체

가. 분석배경 및 현황

- 호텔(관광호텔업), 리조트(휴양콘도업) 등의 업체들은 세미나실부터 그랜드 볼룸의 형태까지 다양한 회의실을 보유하고 대관하며, 숙박과 식음료 제공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MICE 행사, 특히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유치에 있어 지역 내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외 미등록 업체까지 조사하여 경상북도의 숙박시설 내 회의실 공급현황을 파악하였음.
- 숙박업체 내에서 단일 대규모 MICE 행사가 개최될 시, 참가자의 식사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1개실 내 구역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수용 가능인원 구간을 설정하고, 설정 값에 따른 분석이 요구됨.
- MICE 행사기간이 2일 이상이라면 객실 수가 행사 유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회의실 보유 숙박업체의 객실 수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경상북도 소재 숙박업체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내 전체 숙박업체 수는 130개로 조사되었으며,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체는 총 55곳으로 보유 회의실 수는 총 172개임.
 - 이 중 외부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숙박업체는 51곳으로 보유 회의실 수는 168개실로 조사됨.
 - 대관이 가능한 회의실을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경주시 업체가 20곳으로 총 92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주시를 제외한 타 도시의 경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등 12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31곳의 업체가 76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경주시 숙박업체 보유 회의실 현황

- 경주시 소재 숙박업체 중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체는 20곳으로 총 92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경상북도 내 회의실 대관이 가능한 숙박업체는 총 51곳임을 감안했을 때, 약 40% 규모의 숙박업체가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중 최대 수용가능 인원 2,000명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3곳으로 라한셀렉트, 코모도호텔, 더케이호텔로 조사됨.
 - 라한셀렉트의 경우 총 4개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명 수용가능 회의실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외에도 코모도호텔은 총 11개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명 수용가능 회의공간이 야외이기 때문에 실내 개최가 필수인 행사 대상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케이호텔은 총 10개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최대 수용가능 인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 미만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5곳으로 그 중 켄싱턴리조트는 1,200명 수용가능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최대 수용가능 인원 300명 이상부터 500명 미만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3곳으로 그 중 한화리조트는 80명부터 300명까지 다양한 규모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회의실을 총 13개 보유하고 있음.
-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250명 미만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9곳으로 더-영호스텔의 경우 1개 세미나룸에 1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경주시 대상 조사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단일-대규모 회의실 공급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2,000명 정도인 숙박업체의 3곳의 객실 수를 살펴보면, 각 라한셀렉트 440개, 코모도호텔 263개, 더케이호텔 304개를 보유하여 1,000명 이상급 행사 개최 시 주변 타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1]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2,000명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라한셀렉트	440개	4,740명	컨벤션홀	2,000명	3분할
			다이너스티홀	2,000명	-
			아제나&리겔	370명	2분할
			베가홀, 카펠라홀	370명	2분할
코모도호텔	263개	3,872명	야외가든	2,000명	-
			반월성	800명	-
			임해전	300명	-
			서라벌	200명	-
			계림	200명	-
			신라	120명	-
			월지	60명	-
			금관A	60명	-
			금관B	60명	-
			화랑	60명	-
			미팅룸	12명	-
더케이호텔	304개	3,130명	거문고	2,000명	3분할
			원화A	240명	-
			대금홀	220명	2분할
			화랑홀	200명	2분할
			남산홀	120명	-
			해금홀	120명	-
			원화	90명	-
			향비파A,B	50명	2분할
			가야금CD	45명	2분할
			가야금AB	45명	2분할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인 숙박업체 5곳 중 소노벨 경주의 경우 41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140개에서 300개 정도임.

[표 3-12]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500~1,000명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켄싱턴리조트	204개	2,350명	마키컨벤션	1,200명	-
			포럼	600명	-
			로커스	200명	-
			씨어터	150명	-
			포인트	100명	-
			센트럴	100명	-
소노벨 경주	417개	1,440명	그랜드볼룸	1,000명	2분할
			에메랄드	320명	2분할
			사파이어	120명	2분할
코오롱호텔	317개	1,810명	오운홀	800명	-
			신라A홀	180명	-
			남산 F	150명	-
			남산 A	120명	-
			남산 C	120명	-
			남산 D	120명	-
			남산 E	120명	-
신라B홀	80명	-			
블루원리조트	295개	1,680명	그랜드볼룸	800명	-
			더썬	300명	-
			더프라미스	200명	-
			디에어	100명	-
			크리스탈	100명	-
			멤버스세미나	90명	-
성호리조트	141개	1,060명	다이아몬드홀	700명	-
			에메랄드홀	150명	-
			루비홀	100명	-
			사파이어홀	70명	-
			골드홀	40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인 숙박업체 3곳 중 한화리조트의 객실수는 555개로 경주시 소재 숙박업체 중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 업체도 각 324개, 394개로 객실 공급 수가 높은 편임.

[표 3-13]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300~500명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힐튼경주	324개	1,550명	그랜드볼룸	600명	3분할
			주니퍼룸	550명	3분할
			체리룸	250명	4분할
			파인룸	90명	2분할
			오크룸	60명	2분할
일성보문 휴양콘도미니엄	394개	890명	신라홀	500명	-
			보문홀	150명	-
			천마홀	120명	-
			첨성홀	120명	-
한화리조트	555개	1,720명	담톤연오랑	300명	-
			담톤세오녀	180명	-
			담톤미추	170명	-
			담톤파사	170명	-
			담톤유리	150명	-
			담톤소지	90명	-
			담톤선화	90명	-
			담톤수로	90명	-
			담톤아로	90명	-
			에톤미시랑	90명	-
			에톤기파랑	80명	-
			에톤원술랑	80명	-
			에톤죽지랑	80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250명 미만인 숙박업체는 총 9곳으로 객실 수는 8개부터 193개까지 넓은 범위로 보유하고 있음.
- 더-영호스텔의 경우, 사실상 일반적인 행사 개최 형태보다는 시간당 대관으로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음.

[표 3-14] 경주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250명 미만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스위트호텔경주	34개	250명	스위트홀	250명	2분할
마우나오션리조트	122개	540명	콜롬비아홀	230명	-
			옥스포드홀	200명	-
			스탠포드홀	80명	-
			버클리홀	30명	-
한국콘도경주	193개	200명	연회장	200명	-
라마다호텔&리조트 경주	170개	120명	미팅룸	120명	-
경주지관광호텔	53개	185명	대연회장	120명	-
			중회의실	40명	-
			소회의실	25명	-
베니키아스위스로젠	60개	130명	크레타룸	100명	-
			산토리니룸	30명	-
불국사비즈니스호텔	18개	80명	세미나실	80명	-
노벰버리조트	39개	32명	세미나실	32명	-
더-영호스텔	8개	10명	세미나룸	10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다.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보유 회의실 현황

- 경주시 외 타 도시 소재 숙박업체 중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체는 31곳으로 총 76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경주시와 비교 시 숙박업체 수는 11곳 더 많으나, 회의실 수는 16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숙박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등 12개 도시임.
- 그 중 최대 수용가능 인원 500명 이상 1,500명 미만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7곳으로 울진군에 위치한 한화리조트 백암이 1,500명 수용이 가능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외 구미시 호텔금오산이 1,000명급, 문경시 STX리조트가 800명급, 성주군 가야호텔이 674명급, 문경시 성보촌유스호스텔이 558명급, 포항시 필로호텔과 구미시 구미센츄리호텔이 각 500명급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음.
-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400명 미만 급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는 총 24곳으로 그 중 안동시 안동씨엠파크호텔,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울진군 울진그랜드호텔이 각 400명급 회의실을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회의실 공급이 가능하며, 가장 작은 규모는 구미시의 피오레관광호텔이 보유한 9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로 조사됨.
- 규모에 따라 유치 가능한 행사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치 목표하는 행사에 대한 정확한 성격 파악 후 각기 다른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10명 이하 급의 초소규모 회의실은 사실상 MICE 행사 유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타 주변 시설에서 회의 개최 시 해당 숙박업체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주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업체 중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500명에서 1,500명 정도인 7곳의 객실 수를 살펴보면, 한화리조트 백암이 250개로 가장 많은 수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경주시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수의 객실 수임.

[표 3-15]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500~1,500명

지역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울진군	한화리조트백암	250개	2,020명	아트홀	1,500명	-
				백암홀	220명	-
				매실	150명	-
				난실	150명	-
				태백홀	60명	-
구미시	호텔금오산	125개	1,230명	대연회장	1,000명	-
				중연회장	150명	-
				매화홀	40명	-
				국화홀	40명	-
문경시	STX리조트	200개	1,734명	그랜드볼룸	800명	-
				파인홀	448명	-
				대강의실	300명	-
				중강의실	86명	-
				소강의실	70명	-
				세미나실	30명	-
성주군	가야호텔	60개	1,441명	연회장4	674명	-
				연회장3	360명	-
				연회장2	307명	-
				연회장1	100명	-
문경시	성보촌 유스호스텔	64개	646명	갤러리홀	558명	-
				워크샵홀	88명	-
포항시	필로스호텔	51개	964명	그랜드캐슬	500명	-
				컨벤션	230명	-
				아레나	140명	-
				페테파크코	94명	-
구미시	구미센추리호텔	131개	720명	센추리홀	500명	-
				스카이홀	120명	-
				장미홀	100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 경주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업체 중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150명에서 400명 정도인 8곳의 객실 수를 살펴보면, 100개 넘게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체는 없으며, 이는 경주시 소재 동급 수용규모의 회의실을 보유한 숙박업체인 마우나오션리조트(최대수용 230명, 객실 수 122개), 한국콘도경주(최대수용 200명, 객실 수 193개) 등과 비교 시 매우 적은 수입.

[표 3-16]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150~400명

지역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안동시	안동씨엠파크호텔	61개	640명	대연회장	400명	-
				루프탑홀	150명	-
				로얄볼룸홀	100명	-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텔	44개	580명	대강당	400명	-
				중강당	80명	-
				소강당	70명	-
				세미나실	30명	-
울진군	울진그랜드호텔	40개	500명	그랜드볼룸	400명	-
				사파이어홀	100명	-
안동시	안동그랜드호텔	77개	540명	그랜드볼룸	300명	-
				그랑데홀	140명	-
				세미나실1	60명	-
				세미나실2	40명	-
군위군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30개	480명	파인홀	300명	-
				사파이어홀	80명	-
				메이플홀	70명	-
				에메랄드홀	30명	-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호텔	98개	460명	대연회장	300명	-
				소연회장	150명	2분할
				분임토의장	10명	-
문경시	라마다문경새재호텔	71개	310명	연회장	250명	-
				세미나룸	60명	-
영덕군	오션비치콘도	58개	200명	연회장	200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 경주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업체 중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가능 인원이 150명 미만인 곳은 16곳으로 그 중 라한호텔포항의 객실 수가 160개, 라마다바이원덤구미호텔의 객실 수가 213개, 호텔로제니아 객실 수가 416개로 최대 수용규모가 더 큰 회의실을 보유한 타 숙박업체보다 많은 수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경주시 외 도시 숙박업체 내 최대 규모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 150명 미만

지역	숙박업체명	객실수	수용인원 합계	회의실명	수용인원	분할
문경시	문경새재리조트	66개	200명	문희홀	150명	-
				경서홀	50명	-
상주시	블루원골프리조트	52개	214명	그랜드홀	150명	-
				PDR	64명	3분할
포항시	라한호텔포항	160개	160명	릴리&로즈	150명	2분할
				PDR	10명	-
구미시	호텔BS	45개	150명	세미나실	150명	-
영주시	풍기관광호텔	51개	150명	세미나실	150명	-
울릉군	리조트라페루즈	73개	272명	세미나실1	120명	-
				세미나실2	120명	-
				미팅룸	20명	-
구미시	라마다바이원덤구미호텔	213개	132명	봄여름가을	108명	3분할
				겨울1,2	24명	2분할
포항시	포항코모도호텔	45개	100명	연회장	100명	-
구미시	호텔파크비즈니스	45개	90명	연회장	90명	-
김천시	호텔로제니아	416개	144명	대회의실	80명	-
				중회의실	40명	-
				소회의실	24명	-
안동시	안동리첼호텔	90개	130명	사파이어A	80명	-
				사파이어B	50명	-
김천시	김천파크관광호텔	40개	42명	세미나실	42명	-
영덕군	힐링턴콘도	40개	30명	연회장	30명	-
영주시	풍기온천리조트	51개	30명	세미나실1	30명	-
포항시	베니키아호텔	90개	30명	미팅룸	30명	-
구미시	피오레관광호텔	60개	9명	세미나실	9명	-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라. 숙박업체 보유 1개 회의실 수용인원별 현황

- 경상북도 숙박업체의 대관 가능한 회의실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주시가 단연 MICE 개최지로써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며, 이어서 문경시, 구미시, 울진군, 안동시, 성주시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경주시, 구미시, 울진군의 경우 숙박업체 내 1,000명 이상 급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2일 이상의 MICE 행사 유치에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높아 보임.
 - 대규모 회의실 보유여부가 MICE 행사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숙박업체 외 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도 가능하기에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연계 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3-18] 숙박업체 보유 1개 회의실 기준 수용인원별 현황

(단위: 개)

지역	4 ~49	50 ~99	100 ~199	200 ~299	300 ~599	600 ~800	1,000 ~1,500	2,000 ~2,200
경주시	10	21	29	12	8	6	2	4
문경시	2	7	1	1	4	1		
구미시	4	1	5		1		1	
울진군	1	1	4	1	2		1	
안동시	1	3	3		2			
포항시	2	1	3	1	1			
군위군	1	2			1			
성주군			1		2	1		
울릉군	1		2					
김천시	3	1						
영주시	1		1					
상주시		1	1					
영덕군	1			1				
합 계	27	38	50	16	21	8	4	4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마. 숙박업체 보유 1개 회의실 수용인원 650명 이상

- 1개 회의실 내 6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숙박업체를 살펴보면, 총 12곳이 있으며, 경주시에 8곳, 울진군, 구미시, 문경시, 성주군에 각 1곳이 있음.
 - 더욱이 수용인원 2,000명 급의 대규모 회의실은 모두 경주시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됨.
 - 성주군의 경우에는 650명 이상 급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객실 수가 60개로 숙박이 필요한 행사개최는 주변 숙박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함.
- 국제회의 등 장기간 행사개최가 필수인 수요를 고려했을 때, 경주시 외 도시에서는 호텔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수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임.

[표 3-19] 숙박업체 보유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650명 이상 숙박업체

지역	숙박업체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객실수
경주시	라한셀렉트경주	스위트홀	2,000명	440개
		다이너스티홀	2,000명	
경주시	코모도호텔경주	야외가든	2,000명	263개
		반월성	800명	
경주시	더케이호텔경주	거문고	2,000명	304개
울진군	한화리조트백암	아트홀	1,500명	250개
경주시	켄싱턴리조트경주	마키컨벤션	1,200명	204개
경주시	소노벨경주	그랜드볼룸	1,000명	417개
구미시	호텔금오산	대연회장	1,000명	125개
경주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800명	317개
문경시	STX 리조트	그랜드볼룸	800명	304개
경주시	블루원리조트	그랜드볼룸	800명	295개
경주시	성호리조트	다이아몬드홀	700명	141개
성주군	가야호텔	연회장 4	674명	60개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2) 대학교

가. 분석배경 및 현황

- 대학교는 산학협력, 각종 산업 R&D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MICE 행사 유치에 있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행사 및 연사 연결과 섭외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조직임.
-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 UIA 기준 포항시의 유치 국제회의 수가 높은 것은 포항공대(포스텍)이 산업 R&D 조직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관리와 행사 개최 업무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됨.
- 이에 경상북도 내 소재한 대학교와 대학교가 보유한 회의실 현황, 규모, 대관여부, 소재 도시, 그리고 타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 조사된 경상북도 내 대학교 수는 20개이며, 회의실을 보유하여 대관이 가능한 곳은 3곳으로 대구카톨릭대, 포항공대(포스텍), 금오공대가 있음.
 - 대학교 중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카톨릭대가 11개 회의실을 대관하고 있으며, 최소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80명의 강의실부터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160명 대강당까지 대관하고 있음.
 - 금오공대는 6개 회의실을 대관하고 있으며, 최소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155명의 글로벌관부터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은 700명의 강당까지 대관하고 있음.
 - 포항공대(포스텍)는 8개 회의실을 대관하고 있으며, 최소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4명의 소회의실부터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88명의 국제회의장까지 대관하고 있음.
 - 포항공대 8개 회의실의 경우 수용인원 4명 규모의 소회의실 4개가 포함된 수치임. 함.
- 위 3개 대학교 내 회의가능 시설은 대부분 일반 세미나식의 회의실보다는 극장식의 강의가 가능한 회의실 형태를 갖추고 있음.



[그림 3-7] 포항공대 회의실 - 포스코국제관 중회의실 및 국제회의실 전경

[표 3-20] 경상북도 지역별 대학교 회의실 보유 현황

지역	숙박업체명	총 수용인원	회의실명	수용인원
경산시	대구카톨릭대	4,689명	대강당	2,160명
			중강당	515명
			효음아트홀	400명
			문화관광당	350명
			소강당	324명
			교육관소강당	250명
			도서관세미나실	210명
			취창업관강의실	180명
			산학협력관세미나실	120명
			대학극장	100명
			강의실	80명
구미시	금오공대	1,654명	강당	700명
			대회의실	239명
			청운대	220명
			디지털관	180명
			테크노관	160명
			글로벌관	155명
포항시	포항공대(포스텍)	662명	국제회의장	288명
			그랜드볼룸	200명
			대회의실	98명
			중회의실	60명
			소회의실 1,2,3,4	각 4명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3) 기타 공공시설

가. 분석배경 및 현황

-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량에 대한 전체 조사를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유니크베뉴, 숙박업체, 대학교 외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중 회의실을 보유하고 대관까지 진행하는 공공시설을 조사하고 분석함.
- 조사 결과, 시설의 종류는 상공회의소, 시민회관, 수목원 등 행정구역상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임.
- 회의실을 보유한 공공시설은 총 35곳이었으며, 외부기관 대상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은 29곳의 60개 회의실이었음.
 - 기타 공공시설의 대관 가능한 회의실 보유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주시 공공시설 4곳의 회의실 11개, 포항시 공공시설 4곳의 회의실 11개, 경산시 공공시설 3곳의 회의실 9개, 안동시 공공시설 4곳의 회의실 8개, 영천시 공공시설 3곳의 회의실 5개, 칠곡군 공공시설 2곳의 회의실 3개, 봉화군 공공시설 1곳의 회의실 3개, 군위군 공공시설 1곳의 회의실 3개, 구미시 공공시설 1곳의 회의실 2개, 의성군 공공시설 1곳의 회의실 2개, 이 외 김천시, 문경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은 각 공공시설 1곳의 회의실 1개를 보유하고 대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회의실 수용인원 200명 이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산시 경산시민회관이 보유한 대강당이 724명으로 기타 공공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인원 수용이 가능하며, 이어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대강당 494명, 포항시 복합문화센터 대강당 414명, 경주시 화랑마을 기파랑관 411명, 영천시 평생학습관 우석홀 303명,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강당 277명, 칠곡군 국립칠곡숲체원 강당 250명,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연장 240명, 문경시 서울대병원인재원 228명,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 2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1]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00명 이상

지역	시설명	총 수용인원	회의실명	수용인원
경산시	경산시민회관	824명	대강당	724명
			소강당	100명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494명	대강당	494명
포항시	복합문화센터	414명	덕업관 대강당	414명
경주시	경주시화랑마을	741명	기파랑관	411명
			다목적대회의실	150명
			대회의실	100명
			중회의실	50명
			소회의실	30명
영천시	영천시평생학습관	383명	우석홀	303명
			회의실	80명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327명	대강당	277명
			회의실	30명
			세미나실	20명
칠곡군	국립칠곡숲체원	310명	강당	250명
			세미나실	60명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74명	공연장	240명
			회의실	34명
문경시	서울대병원인재원	228명	인재원	228명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240명	정서함양장	200명
			다목적집회장	40명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표 3-22]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최대 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200명 미만

지역	시설명	총 수용인원	회의실명	수용인원
포항시	평생학습원	190명	대강당	190명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195명	강당	165명
			세미나실	30명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	150명	회의실	150명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246명	국제회의실	130명
			지하세미나실	42명
			세미나실	24명
			4층 회의실	20명
			3층 회의실	20명
			5층 회의실	10명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377명	다목적실	124명
			제5벤처동회의실	104명
			연수실	42명
			AV회의실	30명
			첨단바이오융합센터 회의실	28명
			제4벤처동회의실	20명
			제1벤처동회의실	20명
			CEO룸	9명
김천시	김천상공회의소	120명	대회의실	120명
경산시	경산상공회의소	120명	세미나실	120명
군위군	청소년수련원	140명	강당	100명
			세미나1실	30명
			세미나2실	10명

지역	시설명	총 수용인원	회의실명	수용인원
안동시	안동상공회의소	120명	컨퍼런스룸(대)	100명
			컨퍼런스룸(소)	20명
칠곡군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	100명	교육관 강당	100명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96명	대공연장	96명
영양군	장계향문화 체험교육원	80명	홍도관	80명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	60명	세미나실	60명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95명	대회의실	50명
			세미나실	30명
			영상회의실	15명
예천군	예천박물관	42명	회의실	42명
안동시	유교랜드	65명	원형무대	40명
			세미나실	25명
구미시	경북창조경제혁신 센터	50명	세미나실	30명
			Lab실	20명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30명	세미나실	30명
포항시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30명	교육장	30명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나. 기타 공공시설 보유 1개 회의실 수용인원별 현황

-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의 대관 가능한 회의실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용가능 인원 200명 이하 급의 회의실이 총 5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200명 미만 급 회의실은 15개,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은 6개, 50명 미만 급은 29개로 조사됨.
 -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 건립 목적에 맞게 시민들 대상 개방 혹은 특수 목적의 행사 개최 등 회의실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요가 있다면 외부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공공시설 보유 회의실은 국제회의 대상 유치 가능성이 전시컨벤션센터와 숙박업체 보유 회의실 대비 매우 낮지만, 국내 기업행사 혹은 단기 및 공공회의 대상 유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표 3-23] 수용인원별 경상북도 기타 공공시설 내 회의실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지역	4 ~49	50 ~99	100 ~199	200 ~299	300 ~599	600 ~1,000	1,000 ~1,500	1,500 ~2,000
포항시	7		3		1			
경주시	4	2	2	1	2			
경산시	5		3			1		
안동시	4		2	1				
영천시	1	2			1			
군위군	2		1					
칠곡군		1	1	1				
봉화군	2			1				
의성군	1		1					
구미시	2							
김천시			1					
문경시				1				
예천군	1							
영덕군			1					
영양군		1						
합 계	29	6	15	5	4	1	0	0

자료: ICEM 직접 조사(2021)

4. 회의실 총 공급 분석

1) 도시 및 수용인원별 회의실

○ 전시컨벤션센터를 제외한 경상북도 내 지역별 유니크베뉴 및 기타시설 보유의 회의실 인원 수용능력을 분석했을 때 100~199명 규모의 중형 규모 시설이 81개실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49명 78개실, 50~99명 55개실, 300~599명 30개실, 200~299명 29개실 순이었음.

- 대형 규모의 1,500~2,00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은 5개, 1,000명~1,500명 규모는 4개실로 가장 적었음.

[표 3-24] 경북 도시 및 수용인원별 유니크베뉴, 기타시설 내 회의시설 현황

(단위: 명, 개)

지역	4 ~49	50 ~99	100 ~199	200 ~299	300 ~599	600 ~1,000	1,000 ~1,500	1,500 ~2,000
경주시	15	24	33	14	10	6	2	4
포항시	13	3	6	3	2			
경산시	5	1	6	2	4	1		1
안동시	7	4	5	1	2			
구미시	6	1	8	2	1	1	1	
문경시	2	7	1	2	4	1		
울진군	2	2	6	1	2		1	
군위군	3	2	1		1			
김천시	3	1	2					
성주군	2	1	1		2	1		
영천시	2	2	1		1			
봉화군	2			1				
영덕군	1	1		1				
울릉군	1		3					
칠곡군	3	3	2	1	1			
상주시		1	1					
영주시	8	1	4	1				
의성군	2		1			1		
영양군		1						
예천군	1							
합 계	78	55	81	29	30	11	4	5

자료: 세부 지역별 대관시설 보유 현황은 부록에 첨부함

2) 도시 및 수용인원별 회의실 - 200명 이상

○ 전시컨벤션센터를 제외한 경상북도 지역별 유니크베뉴 및 기타 회의시설 중 2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분석했을 때도 총 수용인원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주시 소재 회의시설의 수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00~2,2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시설은 총 5개로 경주시 4개, 경산시 1개 시설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경상북도 지역에 따른 200명 이상 수용 가능 회의실 현황

(단위: 명, 개)

지역	200~299	300~599	600~1,000	1,000~1,500	1,500~2,000
경주시	14	10	6	2	4
포항시	3	2			
경산시	2	4	1		1
안동시	1	2			
구미시	2	1	1	1	
문경시	2	4	1		
울진군	1	2		1	
군위군		1			
김천시					
성주군		2	1		
영천시		1			
봉화군	1				
영덕군	1				
울릉군					
칠곡군	1	1			
상주시					
영주시	1				
의성군			1		
영양군					
예천군					
합 계	29	30	11	4	5

자료: 세부 지역별 대학교 대관시설 보유 현황은 부록에 첨부함

3) 수용가능 규모별 전체 회의실 리스트

- 조사된 경상북도 내 전체 회의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행사규모별 개최 가능한 장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표 3-26] 경상북도 소재 회의실 리스트_수용가능인원순

(단위: 명)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2,000명급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대강당	2,160
경주시	숙박업체	라한셀렉트 경주	다이너스티홀	2,000
경주시	숙박업체	라한셀렉트 경주	컨벤션홀	2,000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야외가든	2,00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	2,000
수용가능 인원 1,000~1,500명급				
울진군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백암	아트홀	1,500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마키컨벤션	1,200
경주시	숙박업체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	1,00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금오산	대연회장	1,000
수용가능 인원 500~1,000명급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그랜드볼룸	80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	800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반월성	800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그랜드볼룸	800
의성군	유니크베뉴	최치원문학관	대강당	754
경산시	기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724
경주시	숙박업체	성호 리조트	다이아몬드홀	700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강당	700
성주군	숙박업체	가야호텔	연회장 4	674
고령군	유니크베뉴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638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포럼	600
경주시	숙박업체	힐튼 경주	그랜드볼룸	600
문경시	숙박업체	성보촌 유스호스텔	갤러리홀	558
경주시	숙박업체	힐튼 경주	주니어룸	55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중강당	515
경주시	숙박업체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신라홀	500
구미시	숙박업체	구미 센츄리 호텔	센츄리홀	500
포항시	숙박업체	필로스 호텔	그랜드캐슬홀	50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300~500명급				
경주시	기타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494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파인홀	448
포항시	기타	복합문화센터	덕업관 대강당	414
경주시	기타	경주시 화랑마을	기파랑관	411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효음아트홀	40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대강당	40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 씨엠파크 호텔	대연회장	400
울진군	숙박업체	울진 그랜드 호텔	그랜드볼룸	400
경주시	숙박업체	라한셀렉트 경주	베기홀, 카펠라홀	370
경주시	숙박업체	라한셀렉트 경주	아제나&리겔	370
성주군	숙박업체	가야호텔	연회장 3	36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문화관 강당	35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소강당	324
경주시	숙박업체	소노벨 경주	에메랄드	320
성주군	숙박업체	가야호텔	연회장 2	307
영천시	기타	영천시평생학습관	우석홀	303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임해전	300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더션	30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연오랑	300
군위군	숙박업체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파인홀	300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대강의실	30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300
울진군	숙박업체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대연회장	30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컨벤션홀	300
수용가능 인원 100~300명급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국제회의장	288
봉화군	기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강당	277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군사교육관소강당	250
경주시	숙박업체	스위트 호텔 경주	스위트홀	250
경주시	숙박업체	힐튼 경주	체리룸	250
문경시	숙박업체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	연회장	250
칠곡군	기타	국립칠곡숲체원	강당	250
경주시	기타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연장	24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원화A	240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대회의실	239
경주시	숙박업체	마우나 오션 리조트	콜롬비아홀	23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300명급(계속)				
포항시	숙박업체	필로스 호텔	컨벤션홀	230
문경시	기타	서울대병원 인재원	서울대병원인재원	228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대금홀	220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청운대	220
울진군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백암	백암홀	22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영상세미나실	210
영주시	유니크베뉴	소백산생태탐방원	회의실	210
경주시	유니크베뉴	황룡원	대연회장	200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로커스	200
경주시	숙박업체	마우나 오션 리조트	옥스포드홀	200
경주시	숙박업체	쥬코모도호텔 경주	계림	200
경주시	숙박업체	쥬코모도호텔 경주	서라벌	200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더프라미스	20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화랑홀	200
경주시	숙박업체	한국콘도경주	연회장	200
고령군	유니크베뉴	가얏고마을	문화관	200
안동시	기타	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	200
영덕군	숙박업체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연회장	200
청송군	유니크베뉴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	대강당	200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그랜드볼룸	200
청도군	유니크베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대강당	194
포항시	기타	평생학습원(여성문화관)	대강당	19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계단강의실	18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신라A홀	18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세오녀	180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디지털관	180
울진군	유니크베뉴	울진해양레포츨센터	회의실 대강당	176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미추	17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파사	170
의성군	기타	조문국박물관	강당	165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테크노관	160
구미시	대학교	금오공대	글로벌관	155
경주시	유니크베뉴	황룡원	금강홀	150
경주시	유니크베뉴	황룡원	화랑홀	150
경주시	기타	경주시 화랑마을	다목적대회의실	15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소지	15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300명급(계속)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유리	15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F	150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씨어터	150
경주시	숙박업체	성호 리조트	에메랄드홀	150
경주시	숙박업체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보문홀	15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BS	세미나실	15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금오산	중연회장	15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리조트	문희홀	150
상주시	숙박업체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	그랜드홀	150
안동시	기타	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	15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 씨엠파크 호텔	루프탑홀	150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컨퍼런스홀	150
영주시	숙박업체	풍기관광호텔	세미나실	150
울진군	숙박업체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소연회실	150
울진군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백암	난실	150
울진군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백암	매실	150
청도군	유니크베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다목적홀	150
포항시	숙박업체	라한호텔 포항	릴리&로즈	150
고령군	유니크베뉴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	14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그랜드호텔	그랑데홀	140
포항시	숙박업체	필로스 호텔	아레나홀	140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130
영주시	유니크베뉴	선비촌 외 2개소	소수박물관	128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다목적실	124
경산시	기타	경산상공회의소	세미나실	12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세미나실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E	12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해금홀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D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B	120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신라	12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남산홀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A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C	12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지지 관광호텔	대연회장	120
경주시	숙박업체	라마다호텔&리조트 경주	미팅룸	12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300명급(계속)				
경주시	숙박업체	소노벨 경주	사파이어	120
경주시	숙박업체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천마홀	120
경주시	숙박업체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첨성홀	120
구미시	숙박업체	구미 센추리 호텔	스카이홀	120
김천시	기타	김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20
울릉군	숙박업체	리조트라페루즈	세미나실	120
울릉군	숙박업체	리조트라페루즈	세미나실	12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리더스홀	120
구미시	숙박업체	라마다바이원덤구미호텔	봄여름가을	108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회의실	104
울진군	유니크베뉴	울진해양레포츨센터	회의실 중강당	101
경산시	기타	경산시민회관	소강당	100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대학극장	100
경주시	기타	경주시 화랑마을	대회의실	100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포인트	100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디에어	100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크리스탈	100
경주시	숙박업체	켄싱턴 리조트 경주	센트럴	100
경주시	숙박업체	베니키아 스위스로젠 호텔	크레타룸	100
경주시	숙박업체	성호 리조트	루비홀	100
고령군	유니크베뉴	예마을	대강당	100
구미시	숙박업체	구미 센추리 호텔	장미홀	100
군위군	기타	청소년수련원	강당	100
김천시	유니크베뉴	이화만리녹색농촌체험마을	회의실	100
성주군	숙박업체	가야호텔	연회장 1	100
안동시	기타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대)	10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 씨엠파크 호텔	로얄볼룸홀	100
영주시	유니크베뉴	선비촌 외 2개소	수련원	100
영천시	유니크베뉴	임고서원	대회의실	100
울진군	숙박업체	울진 그랜드 호텔	사파이어홀	100
칠곡군	기타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신림문화교육관강당	100
포항시	숙박업체	포항 코모도 호텔	연회장	100
수용가능 인원 100명 미만급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대회의실	98
영덕군	기타	예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6
포항시	숙박업체	필로스 호텔	페테파르코홀	94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명 미만급(계속)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멤버스 세미나	90
경주시	숙박업체	블루원 리조트	다이아몬드	9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미시랑	9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원화	9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선화	9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수로	9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아로	90
경주시	숙박업체	힐튼 경주	파인룸	9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파크 비즈니스	연회장	90
문경시	숙박업체	성보촌 유스호텔	워크숍홀	88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중강의실	86
경산시	대학교	대구카톨릭대	강의실	80
경주시	유니크베뉴	교촌마을	아카데미교육장	8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기파랑	8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원술랑	80
경주시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죽지랑	80
경주시	숙박업체	마우나 오션 리조트	스탠포드홀	80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코오롱호텔	신라B홀	80
경주시	숙박업체	불국사 비즈니스 호텔	세미나실	80
군위군	숙박업체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사파이어홀	80
김천시	숙박업체	호텔로제니아	대회의실	8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 유스호텔	중강당	8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A	80
영양군	기타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홍도관	80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상업시설중강당	80
영천시	기타	영천시평생학습관	회의실	80
청송군	유니크베뉴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	세미나실	80
청송군	유니크베뉴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	중강의실	80
경주시	숙박업체	성호 리조트	사파이어홀	70
군위군	숙박업체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메이플홀	70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소강의실	7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 유스호텔	소강당	70
상주시	숙박업체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	PDR	64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화랑	60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금관A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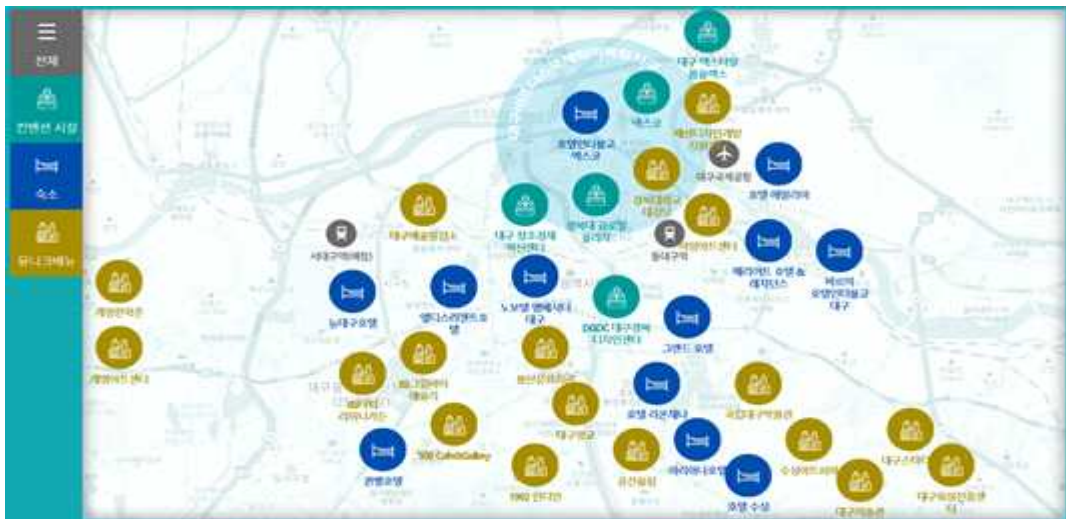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명 미만급(계속)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금관B	60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월지	60
경주시	숙박업체	힐튼 경주	오크룸	60
문경시	숙박업체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	세미나룸	60
성주군	유니크베뉴	가야산생태탐방원	강당	6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그랜드호텔	1층 세미나실	60
영천시	기타	보현산천문과학관	세미나실	60
울진군	숙박업체	한화리조트 백암	태백홀	6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에센스홀	60
칠곡군	기타	국립칠곡숲체원	세미나실	60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중회의실	60
경주시	기타	경주시 화랑마을	중회의실	50
경주시	기타	경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5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향비파A,B	50
고령군	유니크베뉴	가얏고마을	체험관	50
고령군	유니크베뉴	인빈관	주산실	5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리조트	경서홀	50
안동시	유니크베뉴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	5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B	50
울진군	유니크베뉴	울진해양레포츨센터	회의실중강의실	5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아너스홀	50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가야금 AB	45
경주시	숙박업체	더케이호텔 경주	가야금 CD	45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지하세미나실	42
김천시	숙박업체	김천파크관광호텔	세미나실	42
예천군	기타	예천박물관	회의실	42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연수실	42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지지 관광호텔	중회의실	40
경주시	숙박업체	성호 리조트	골드홀	4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금오산	국화홀	40
구미시	숙박업체	호텔 금오산	매화홀	40
김천시	숙박업체	호텔로제니아	중회의실	40
안동시	기타	유교랜드	원형무대	40
안동시	기타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집회장	40
안동시	숙박업체	안동그랜드호텔	2층 세미나실	4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명 미만급(계속)				
청송군	유니크베뉴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	소강의실	40
울진군	유니크베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회의실소강의실	35
경주시	기타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34
경주시	숙박업체	노뽀머 리조트	세미나실	32
경주시	기타	경주시 화랑마을	소회의실	30
경주시	기타	경주예술의전당	세미나실	30
경주시	숙박업체	베니키아 스위트로젠 호텔	산토리니룸	30
경주시	숙박업체	마우나 오션 리조트	버클리홀	30
고령군	유니크베뉴	대가야문화누리	회의실	30
구미시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조실	30
군위군	기타	청소년수련원	세미나1실	30
군위군	숙박업체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에메랄드홀	30
문경시	숙박업체	STX 리조트	세미나실	30
문경시	숙박업체	문경새재 유스호텔	세미나실	30
봉화군	기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회의실	30
안동시	유니크베뉴	예움터마을	가변형실	30
영덕군	숙박업체	힐링턴콘도	연회장	30
영주시	숙박업체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세미나실 1	30
영천시	기타	화랑설화마을	세미나실	30
의성군	기타	조문국박물관	세미나실	30
청도군	유니크베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회의실	3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로즈홀	3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아트홀	30
포항시	기타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동부지소	교육장	30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AV회의실	30
포항시	숙박업체	베니키아 호텔 포항	미팅룸	30
고령군	유니크베뉴	인빈관	금산실	28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	28
경주시	숙박업체	경주 지지 관광호텔	소회의실	25
안동시	기타	유교랜드	세미나실	25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세미나실	24
구미시	숙박업체	라마다바이원덤구미호텔	겨울1,2	24
김천시	숙박업체	호텔로제니아	소회의실	24
청도군	유니크베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세미나실	23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3층 회의실	20

지역	시설종류	시설명	회의실명	수용인원
수용가능 인원 100명 미만급(계속)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4층 회의실	20
고령군	유니크베뉴	예마을	소회의실	20
구미시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ideapark/lab	20
봉화군	기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미나실	20
성주군	유니크베뉴	가야산생태탐방원	제1강의실	20
안동시	유니크베뉴	예움터마을	소회의실	20
안동시	기타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소)	20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중회의실1	20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교육실	20
영천시	유니크베뉴	임고서원	소회의실	20
울릉군	숙박업체	리조트라페루즈	미팅룸	20
의성군	유니크베뉴	최치원문학관	세미나실	20
칠곡군	유니크베뉴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미팅룸	20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1번처회의실	20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4번처회의실	20
성주군	유니크베뉴	가야산생태탐방원	제2강의실	16
경주시	기타	경주예술의전당	영상회의실	15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소회의실	15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중회의실2	13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2층 중회의실	13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1층 중회의실	13
경주시	숙박업체	(주)코모도호텔 경주	미팅룸	12
영주시	유니크베뉴	국립산림치유원	센터2층 중회의실	12
경산시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5층 회의실	10
경주시	유니크베뉴	황룡원	미팅룸	10
경주시	숙박업체	더-영호스텔	세미나룸	10
군위군	기타	청소년수련원	세미나2실	10
울진군	숙박업체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분임토의장	10
포항시	숙박업체	라한호텔 포항	PDR	10
구미시	숙박업체	피오레 관광호텔	세미나실	9
포항시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CEO룸	9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4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4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4
포항시	대학교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4

5. 대구광역시 내 공급현황(비교)

-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는 대구광역시 내 활용 가능한 베뉴와 수용인원 등을 정리해 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공급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EXCO)를 제외하면, 유니크베뉴 17곳, 숙박시설 12곳, 기타시설 4곳에 MICE 행사 유치 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수용인원 능력을 총 합하면 약 25,860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각 시설 내 행사 유치 가능시설 수를 보면 유니크베뉴 17곳 내 20개, 숙박시설 12곳 내 37개, 기타시설 4곳 내 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활용 가능 베뉴의 종류 및 수용 인원 외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베뉴 위치 등의 정보도 상세히 나와 있어 대구광역시를 행사 유치 지역으로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대 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상황과 비교하면 MICE 행사 개최지 정보제공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 이는 MICE 전담 모니터링 조직의 부재로 야기된 결과로 판단됨.



[그림 3-8]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시설공급 현황 안내도

[표 3-27] 대구광역시 내 MICE 행사 유치 가능 시설보유 현황

(단위: 개)

종 류	시설수	행사시설	형태별 최대 수용인원				
			라운드식	세미나식	리셉션	극장식	기타
유니크베뉴	17	20	250	1,077	0	500	6,515
숙박시설	10	37	7,660	10,281	2,650	14,378	0
기타시설	4	7	160	180	0	517	2,977
합 계	31	64	8,070	11,538	2,650	15,395	9,492

자료: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06월)

6. 경상북도 MICE 시설 총 공급수준 분석 및 시사점

- 경상북도는 2021년 6월 기준, 전시컨벤션센터 2곳, 유니크베뉴 21곳, 숙박업체 55곳, 대학교 3곳, 기타 공공시설 29곳에서 전시회 혹은 회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진행하고 있음.
 - 안동시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11월 개관 예정이며, 포항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는 2025년 완공 예정임.
- 경상북도 내 전시컨벤션센터의 전시 가능 총 면적은 5,675m²으로 조사됨.
 -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증축 완료 시, 전시장 규모는 4,000m² 늘어난 6,273m²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등의 완공을 고려한 전시 가능 총 면적은 17,675m²이 될 예정임.
 - 유니크베뉴, 숙박시설, 대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과거 산업전시회 개최 등의 경험이 전무하여 전시가능면적에서 제외했고, 해당 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시설은 예술, 역사 등의 작품전시회(박물관) 성격이 대부분임.
- 전시 및 회의시설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국제회의, 컨벤션, 기업

인센티브 행사 개최를 위한 공급 현황 수준이 독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구미시 또한 구미코를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이 외 경산시, 문경시, 울진군, 안동시, 포항시 등이 주요도시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21년 말 안동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2025년 포항시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가 건립된다면, 두 도시의 MICE 행사 유치에 위한 공급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단, 단일-대형 회의실이 아닌 여러 시설에 나뉜 상황에서 MICE 행사 유치를 고려 시 유기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됨.

1) 공급수준에 따른 권역별 구분 가능

- 경상북도 내 MICE 행사 개최 가능시설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함.
- 동남부 지역은 경주시, 서남부 지역은 구미시, 북부지역은 안동시를 중심으로 공급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 수요 유치 및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그림 3-9] 경상북도 지역별 시설 보유 현황 및 권역 마킹도

-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권역을 구분 짓고, 해당 권역별로 MICE 특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권역별 도시들의 공급 인프라 제공 연계 필요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규모 행사 개최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경상북도의 공급량은 단일 시설 기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됨.
 - 대규모 국제회의를 다수 개최하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권역별로 타 시설들과 연계하여 단일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유기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획이 필요함.
 - '국제', '대규모'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MICE 행사 유치를 목표하는 것은 경상북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규모가 작은 행사 유치를 목표로하더라도 권역별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적절하게 공급 수준을 고려하고, 특색을 살린 지역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3) 시설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위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소규모 단위로 광범위하게 소재해 있는 공급 시설들을 활용한 유기적이고 빠른 수요 대응을 위해 권역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본 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시설의 공급 수준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중 각 시설의 담당자가 시설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다수 관찰됨.
 - 데이터 관리 뿐만 아니라 개최지 세일즈 전략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풀(pool)을 소유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단연 시설의 공급현황 뿐만 아니라 MICE 산업 및 관련 육성전략 수행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경상북도 MICE 행사 수요 분석

1. 국제회의 수요

○ UIA(국제협회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는 매년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A, B, C 타입으로 나누어 집계 및 발표함.

- 본 분석에서는 UIA 집계 기준 중 최댓값을 알 수 있는 A+C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함.

[표 3-28] UIA 국제회의 집계 기준

구 분	주 관	참가자 수	최소기간	외국인 참가	참가국가
A	국제기구 주관 및 후원	50명 이상	무관	무관	무관
B	국제기구 국내지부 혹은 국가기관	300명 이상	3일 이상	외국인 참가 40% 이상	최소 5개국
C	국제기구 국내지부 혹은 국가기관	250명 이상	2일 이상	외국인 참가 40% 이상	최소 5개국

○ 2019년 기준 UIA 공식 집계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전문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대구 등의 도시에서 국제회의가 다수 개최됨.

- 2019년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UIA 기준 국제회의는 총 35건이며, 이는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수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임.
- 대구광역시는 총 48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합하면 총 83건으로 전국 기준 3번째로 많은 수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임.
- 단, 경상북도 개최 35건 중 32건(91.4%)이 최소 참가자 수 50명이며 외국인 참가와 최소 참가국 수 기준이 없는 A 타입으로 나타남.

[표 3-29] UIA 기준 2019년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_A+C 기준

(단위: 건)

순위	도시	A+B	A+C	A	B	C
1	서울특별시	609	639	579	30	60
2	부산광역시	160	182	138	22	44
3	제주특별자치도	96	98	85	11	13
4	인천광역시	56	57	50	6	7
5	대구광역시	42	48	35	7	13
6	대전광역시	42	44	34	8	10
7	경상북도	34	35	32	2	3
8	광주광역시	22	22	21	1	1
9	경기도	17	20	15	2	5
10	강원도	15	17	12	3	5
11	경상남도	5	5	3	2	2
12	충청북도	4	4	4	-	-
13	울산광역시	3	3	3	-	-
14	전라북도	3	3	3	-	-
15	충청남도	3	3	3	1	1
기타		2	2	2	-	-
합계		1,113	1,182	1,018	95	164

자료: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1st Edition(2020)

- 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국제회의 개최한 도시를 살펴보면, 포항시 22건, 경주시 12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경상북도 기타지역 1건으로 집계됨.
 - 전시컨벤션센터가 부재한 포항시에서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가장 높을 수 있었던 요인은 포항공대(포스텍) 등의 R&D 및 연구기반 시설과 포스코 등의 기업 영향으로 판단됨.

[표 3-30] UIA 기준 2019년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_A+C 기준

(단위: 건)

도시	A+B	A+C	A	B	C
포항시	22	22	22	0	0
경주시	11	12	9	2	3
경상북도 기타	1	1	1	0	0
합계	34	35	32	2	3

자료: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1st Edition(2020)

- 이 외 본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은 2021년 5월에 경상북도 내 각 지자체 대상 국제회의 및 일반회의 개최 현황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함.
 -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우에만 과거 유치한 국제회의, 포럼 등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사 수요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수집이 어려웠음.
 - UIA 기준 집계 현황과 비교하더라도 경주시와 포항시 외 지자체에서는 국제회의 및 포럼 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직 그 노력과 행정상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해 경주시 측에서 회신한 답변에 의하면 동아시아원자력포럼, 국제 치료초음파 학술대회, 물리학 학술대회, 식물생장물질학학술대회, 국제산언어학술대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에너지 관련 행사 외 지역의 산업적 특색을 살린 행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포항시 측에서 회신한 답변에 의하면 환동해거점도시회의, 환동해국제심포지엄, 한-러지방협력포럼,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배터리선도도시포항국제컨퍼런스 등을 포스코 국제관(포항공대 시설)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전시회 수요

-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공식 집계한 2019 국내전시산업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별 전시회 개최건수 기준 8번째 지역으로 조사됨.

[표 3-31] 2016-2019년 지역 및 시설별 전시회 개최건수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순위	지역	시설명				
1	서울	at센터	52	48	51	-1.0 %
		Coex	135	140	143	2.9 %
		SETEC	44	51	46	2.2 %
		소계	231	239	240	1.9 %
2	경기	KINTEX	106	106	107	0.5 %
		SCC	-	-	25	- %
		소계	106	106	132	11.6 %
3	부산	BEXCO	80	77	77	-1.9 %
4	대구	EXCO	41	48	50	10.4 %
5	광주	KDJ Center	38	36	36	-2.7 %
6	경남	CECO	24	28	28	8.0 %
7	인천	송도컨벤시아	21	22	26	11.3 %
8	경북	Gumico	4	9	10	58.1 %
		HICO	6	8	8	15.5 %
		소계	10	17	18	34.2 %
9	제주	ICC Jeju	13	10	15	3.9 %
10	대전	DCC	5	5	13	61.2 %
		KOTREX	13	17	-	- %
		소계	18	22	13	-9.3 %
11	전북	GSCO	3	5	8	63.3 %
합 계			585	610	643	4.8 %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19 국내전시산업통계(2020)

- 경상북도 내 개최된 전시회는 총 18건으로 대구광역시 개최 건수인 50건과 큰 차이로 비교되는 수치임.
 - 2019년 기준 구미코(GUMICO)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의 전시 가능면적인 5,675㎡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엑스코(EXSCO)의 전시 가능면적인 14,415㎡ 대비 약 39.4% 수준임.
 - 대구광역시 전시회 개최건수 50건 대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건수 18건이 36.0% 수준인 것을 고려해보면, 다른 요인보다도 공급수준의 차이가 총 개최 건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외 본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은 2021년 5월에 경주시와 구미시 대상 전시회 개최 현황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함.
 - 개최되는 전시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참관객 대상으로 진행되는 B2C 형태의 판매전과 정부 주최 형태의 전시회가 대부분임을 확인함.
 - 경주시와 구미시가 응답한 B2C 전시회는 경주국제주방 및 식품박람회, 경주맘아랑베이비페어, 더골프쇼, 경주블루아트페어, 경북캠핑레저박람회, 경북식품박람회, 구미베이비페어, 대학입시박람회, 한국춘란산업박람회 등이 개최되었음.
 - 정부 주최 전시회로는 국제문화재산업전, 한옥문화박람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식품박람회, 경북건축문화제, 경북과학축전, 힐링레저산업전, 취창업박람회, 포항철강 산업대전,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등이 개최되었음.
- 반드시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B2B 전시회 혹은 일반주최사 개최 성격의 전시회만이 MICE 행사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나, 효과적이면서 장기적인 산업 성장과 상대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경상북도 내 지역적 특징을 살린 일반 주최사의 B2B 전시회 개최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제3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여건 분석

1. 경상북도 경제 현황

1) 인구 현황

- 2020년 기준 경상북도 총 인구는 약 264만 명이며 최근 5년간 평균 1.08% 인구증가율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3-32] 경상북도 총 인구 및 인구증가율

년도	총 인구(명)	인구증가율(%)
2016	2,751,729	-1.29
2017	2,745,070	-0.24
2018	2,733,800	-0.41
2019	2,723,955	-0.36
2020	2,639,422	-3.10

자료: 통계청, 인구증가율 (2021년 05월)

- 경상북도 시군별 최근 5년간 총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예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특히, 예천군은 2016년 대비 2020년 인구수 19.12%이라는 큰 증가폭이 나타났으며, 이는 경상북도청 이전으로 안동과 예천 접경지역에 경상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대로 고령군 -13.05%, 울릉군 -10.54%, 영덕군 -9.16% 등의 상대적으로 큰 수치의 감소를 나타낸 지역도 존재함.
 - 포항시가 502,916명 인구수로 경상북도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까지 인구 수 10만 명이 넘는 시군으로 나타남.

[표 3-33] 경상북도 시군별 총 인구 및 인구증가율

지 역	총 인구(명)					2016-2020 인구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2020	
포항시	522,030	519,216	515,945	513,104	502,916	-3.66
구미시	425,492	427,248	426,684	424,719	416,328	-2.15
경산시	266,486	268,679	272,070	274,898	263,728	-1.03
경주시	268,928	268,091	268,160	267,196	253,502	-5.74
안동시	170,133	167,737	163,713	161,533	158,907	-6.60
김천시	144,254	145,068	143,480	143,620	140,548	-2.57
칠곡군	127,330	124,837	122,789	121,085	114,758	-9.87
영주시	110,287	109,468	107,976	106,170	103,119	-6.50
영천시	103,613	104,161	104,970	105,721	102,015	-1.54
상주시	102,701	101,860	101,237	101,678	97,228	-5.33
문경시	75,357	73,926	72,547	72,924	71,406	-5.24
예천군	46,688	49,786	53,811	55,664	55,613	19.12
의성군	54,722	54,080	53,579	53,237	51,724	-5.48
울진군	52,974	52,337	51,538	50,810	48,716	-8.04
성주군	46,886	46,846	46,323	45,713	43,414	-7.41
청도군	44,603	44,366	44,129	43,952	42,263	-5.25
영덕군	39,973	39,475	39,104	38,358	36,313	-9.16
봉화군	33,809	33,561	33,150	32,464	31,494	-6.85
고령군	36,069	35,525	34,673	34,122	31,361	-13.05
청송군	26,552	26,201	25,881	25,623	25,044	-5.68
군위군	24,787	24,780	24,465	24,381	23,256	-6.18
영양군	17,929	17,696	17,562	17,198	16,692	-6.90
울릉군	10,146	10,126	10,014	9,785	9,077	-10.54

자료: 통계청, 인구증가율 (2021년 06월)

2) 경제활동인구 현황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로 전국 참가율 62.5% 대비 상회하는 수준이나,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 실업률과 같음.
- 경제활동인구 추이는 MICE 행사 유치과정 중 행사 성공여부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됨.

[표 3-34]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경상 북도	2017	2,316	1,488	1,447	41	2.8	64.2
	2018	2,316	1,488	1,427	61	4.1	64.2
	2019	2,318	1,488	1,430	58	3.9	64.2
	2020	2,321	1,478	1,418	60	4.0	63.7
전국	2020	44,785	28,012	26,904	1,108	4.0	6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5월)

3) 지역 내 총생산 및 수출 현황

- 1인당 총생산과 수출 현황은 지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규모가 크다면 행사 규모 및 수요 확대의 여지가 있음.
-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별 2019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2020년 수출 현황에서 각 6번째 규모로 나타남.
- 단,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했던 대기업 계열사의 공장들이 부지를 매각하고 해외로의 이전이 일부 진행됐으며, 향후 추가 이전될 시 해당 수치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음.
- 2020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가 구미 사업장을 매각했으며, LG전자 구미공장 TV 생산라인 일부가 인도네시아로 이전함.

[표 3-35] 2017-2019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 천원)

지역	2017	2018	2019
울산광역시	65,370	63,793	65,352
충청남도	53,663	53,006	52,402
서울특별시	41,374	43,664	44,865
전라남도	41,076	42,131	43,323
충청북도	40,590	43,016	42,653
경상북도	41,130	40,677	40,272
경기도	35,307	36,821	36,133
세종특별자치시	40,043	36,570	35,826
경상남도	32,789	32,993	33,690
강원도	29,925	30,856	32,061
제주특별자치도	31,470	30,721	30,720
인천광역시	30,284	30,194	30,425
전라북도	26,988	27,797	28,740
대전광역시	26,533	27,214	28,364
광주광역시	25,240	26,654	27,548
부산광역시	25,650	26,464	27,409
대구광역시	22,310	23,151	23,744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021년 6월)

[표 3-36] 2017-2019 전국 광역시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17	2018	2019
경기도	124,129	143,338	116,686
충청남도	79,842	91,968	79,951
울산광역시	66,700	70,127	69,530
서울특별시	57,386	64,618	57,379
인천광역시	39,287	40,781	38,018
경상북도	44,870	40,891	37,712
경상남도	59,474	40,257	39,353
전라남도	31,054	36,622	32,587
충청북도	20,001	23,233	22,080
광주광역시	14,951	14,664	13,415
부산광역시	15,064	14,407	13,924
대구광역시	7,213	8,103	7,491
전라북도	6,309	7,828	6,537
대전광역시	4,454	4,515	4,048
강원도	1,783	2,097	2,088
세종특별자치시	1,024	1,229	1,285
제주특별자치도	155	182	149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2021년 6월)

4) 사업체 및 업종 현황

- MICE 행사 개최에 있어 사업체 수는 참가기업 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시회 및 컨퍼런스 규모 확대 및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 내 사업체의 임직원들은 지역 잠재적인 양질의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경상북도 내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236,807개이며 전국 사업체 수의 5.6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약 4.75% 증가함.

[표 3-37] 전국 시도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지역	2017	2018	2019
경기도	878,275	909,032	934,349
서울특별시	822,863	823,385	823,624
부산광역시	286,571	288,860	290,357
경상남도	274,490	281,685	286,752
경상북도	226,079	232,030	236,807
대구광역시	209,376	210,547	210,944
인천광역시	196,705	202,493	206,244
충청남도	166,247	172,242	176,643
전라남도	153,280	156,914	161,883
전라북도	148,269	151,011	154,082
강원도	140,058	143,475	146,815
충청북도	126,224	129,920	133,522
광주광역시	118,409	119,617	123,706
대전광역시	115,423	117,557	119,628
울산광역시	83,872	85,662	87,054
제주특별자치도	60,063	62,871	66,098
세종특별자치시	13,668	15,871	18,041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7-2019년 기준 시도별 사업체수 (2021년)

- 2019년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체수가 10,000개 이상인 시는 각 포항시 43,428개, 구미시 36,282개, 경주시 26,067개, 경산시 21,183개, 안동시 14,098개, 김천시 10,885개로 나타났고, 군은 칠곡군이 12,509개로 유일함.

[표 3-38] 경상북도 시별 및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업종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도소매업	11,361	7,881	5,671	4,753	3,731	2,580	2,789	2,064	1,920	1,574
숙박, 음식점업	9,686	6,830	6,701	3,998	3,125	2,298	2,065	1,634	1,589	1,531
제조업	3,140	4,849	3,845	3,488	944	1,055	824	1,744	832	569
협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5,028	3,758	2,487	2,162	1,655	1,343	1,212	925	979	735
운수/창고업	3,731	3,910	2,007	1,751	1,103	938	800	715	682	565
건설업	1,794	1,462	914	662	615	500	428	338	438	264
교육 서비스업	2,051	1,881	957	1,033	714	463	448	284	379	247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1,524	1,236	692	744	500	430	313	314	321	240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1,377	1,224	712	607	433	308	233	185	177	145
부동산업	1,166	1,044	565	804	267	267	149	226	131	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1	646	434	450	309	175	154	119	137	98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726	699	483	306	211	176	115	126	120	84
금융 및 보험업	434	378	193	142	188	108	111	96	93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7	96	92	56	100	74	57	59	67	55
정보통신업	213	208	110	109	110	56	43	35	52	26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1	91	107	84	34	61	33	81	21	25
농업, 임업 및 어업	24	32	46	17	26	32	13	37	19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2	50	34	12	18	10	6	12	2	3
광업	12	7	17	5	15	11	8	2	9	5
합 계	43,428	36,282	26,067	21,183	14,098	10,885	9,801	8,996	7,968	6,355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9년 기준 경상북도 사업체수 (2021년)

[표 3-39] 경상북도 군별 및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업종	칠곡	울진	성주	청도	의성	고령	영덕	예천	봉화	청송	군위	영양	울릉
도소매업	2,893	1,288	878	1,080	1,067	864	1,086	925	598	505	413	306	287
숙박, 음식점업	2,084	1,435	844	1,031	752	509	1,183	810	644	640	386	273	442
제조업	3,070	280	1,295	511	452	1,501	310	337	243	193	300	106	98
협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3	506	348	459	553	290	435	446	302	272	230	168	115
운수/창고업	1,061	189	199	246	349	225	194	228	122	109	145	80	86
건설업	446	343	236	237	312	182	198	194	264	128	131	180	94
교육 서비스업	415	159	92	122	101	87	106	159	78	59	44	48	28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337	127	125	148	188	108	123	184	79	83	70	55	18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07	129	64	75	64	67	90	89	64	50	45	25	22
부동산업	310	52	82	142	51	68	52	89	24	23	50	2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0	62	59	73	75	42	46	61	36	23	34	20	10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147	86	48	52	54	32	27	50	16	14	16	17	42
금융 및 보험업	69	55	37	36	66	31	46	41	31	27	23	14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46	37	38	58	29	41	51	37	37	38	27	23
정보통신업	40	26	20	19	30	20	21	32	16	15	13	10	10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1	20	42	16	28	50	18	15	22	11	17	6	10
농업, 임업 및 어업	21	19	21	55	42	23	9	18	16	8	12	12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7	6	20	34	5	11	6	5	3	7	3	4
광업	8	8	3	2	6	4	5	2	5	4	2	1	0
합계	12,509	4,837	4,436	4,362	4,282	4,137	4,001	3,737	2,602	2,204	1,976	1,353	1,308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9년 기준 경상북도 사업체수 (2021년)

- MICE 행사 개최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조업 사업체 수가 2019년 기준 총 29,986개로 경상북도 내 사업체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업종으로 조사됨.

[표 3-40] 2019년 경상북도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업종	사업체 수
도소매업	56,514
숙박, 음식점업	50,490
제조업	29,986
협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5,441
운수/창고업	19,435
건설업	10,360
교육 서비스업	9,955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7,959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6,492
부동산업	5,6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74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3,647
금융 및 보험업	2,2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02
정보통신업	1,234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74
농업, 임업 및 어업	5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10
광업	141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9년 경상북도 사업체수 (2021년 05월)

○ 경상북도는 2019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수가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3-41] 2019년 전국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지역	1 -4명	5 -9명	10 -19명	20 -49명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합계
경기	73,955	34,589	12,754	8,851	2,077	928	98	41	24	133,317
서울	42,675	10,601	2,492	1,189	238	110	12	1	3	57,321
경남	23,780	7,638	3,139	2,626	712	377	42	21	17	38,352
부산	20,958	5,630	2,115	1,409	343	153	9	9	4	30,630
경북	18,773	6,033	2,321	2,000	511	272	38	27	11	29,986
대구	18,762	4,561	1,771	1,075	291	118	12	9	1	26,600
인천	14,672	5,887	2,347	1,641	407	199	20	9	8	25,190
충남	11,010	3,655	1,725	1,654	577	358	39	19	13	19,050
전남	9,981	2,702	896	649	201	91	3	8	6	14,537
충북	8,008	3,029	1,257	1,230	425	257	42	18	7	14,273
전북	9,213	2,236	795	706	198	114	16	5	5	13,288
광주	6,402	1,566	641	443	127	73	7	3	4	9,266
강원	6,294	1,542	475	399	117	54	6	2	0	8,889
대전	6,142	1,318	436	316	86	70	4	5	3	8,380
울산	4,522	1,327	595	717	339	185	16	16	12	7,729
제주	2,021	403	142	76	12	3	1	0	0	2,658
세종	790	196	125	114	34	33	4	3	1	1,300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9년 기준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 (2021년)

- 2019년 기준 전국 시도별 제조업 내에서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수만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전국 3번째로 많은 수의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전국 시도별 3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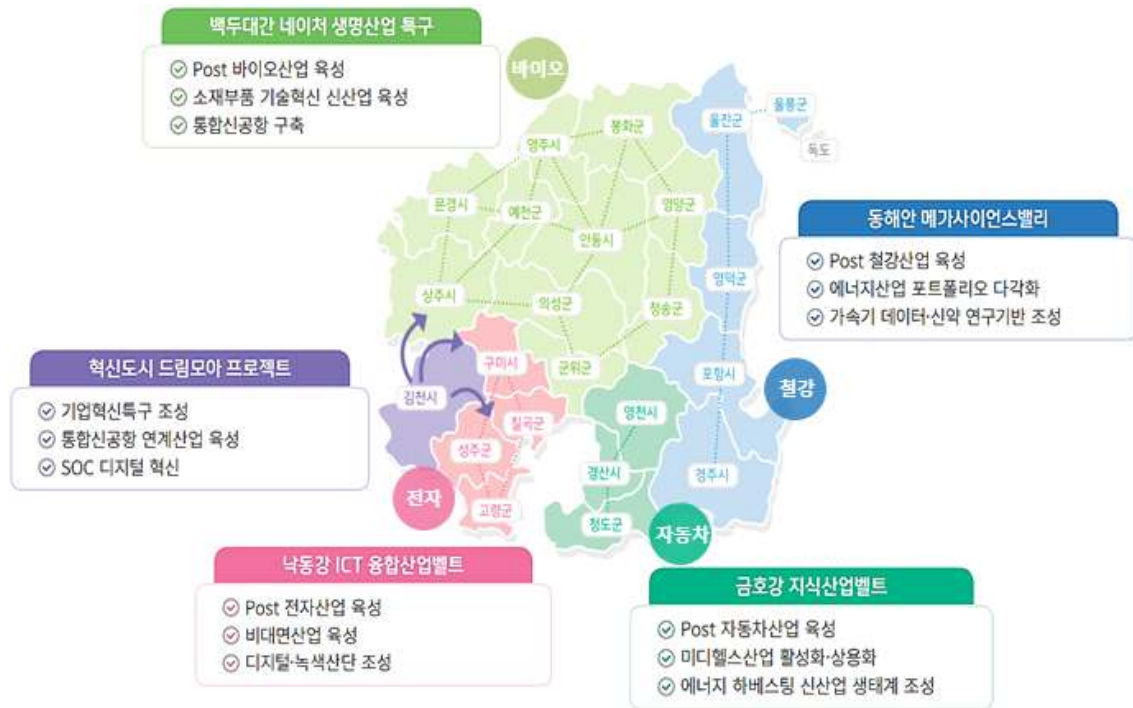
(단위: 개)

지 역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합 계
경기도	98	41	24	163
경상남도	42	21	17	80
경상북도	38	27	11	76
충청남도	39	19	13	71
충청북도	42	18	7	67
울산광역시	16	16	12	44
인천광역시	20	9	8	37
전라북도	16	5	5	26
부산광역시	9	9	4	22
대구광역시	12	9	1	22
전라남도	3	8	6	17
서울특별시	12	1	3	16
광주광역시	7	3	4	14
대전광역시	4	5	3	12
강원도	6	2	0	8
세종특별자치시	4	3	1	8
제주특별자치도	1	0	0	1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9년 기준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 (2021년)

2. 경상북도 주요산업 현황

- 경상북도가 발표한 ‘경상북도 스마트-X 산업혁신 신전략 2022’에서 나타나듯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첨단제조업 거점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7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주력산업의 핵심 방향을 설정했음.
 - 7대 핵심 산업분야는 전기·자율차, 인공지능, 5G 융합기기, 차세대 반도체, 미래혁신소재, 바이오·헬스, 라이프테크로 설정됨.
 - 기존 핵심 산업인 전자, 자동차, 철강, 바이오를 중심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기반조성과 기계 및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섬유소재산업 활성화, 경상북도형 지역뉴딜 추진 등을 포함.
- 경상북도는 기존 핵심 산업의 중심 지역을 기준으로 각 특성을 살린 권역별 주요산업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이 포함된 서남부지역을 ‘낙동강 ICT 융합 산업벨트’로 설정하여 Post 전자산업 육성, 비대면산업 육성, 디지털 및 녹색산단 육성을 목표로 함.
 -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이 포함된 동남부지역을 ‘금호강 지식산업벨트’로 설정하여 Post 자동차산업 육성, 미디헬스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 에너지 하베스팅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함,
 -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의성군이 포함된 북부지역을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특구’로 설정하여 Post 바이오 산업 육성, 소재부품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통합신공항 구축을 목표로 함.
 -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포함된 동부지역을 ‘동해안 메가 사이언스 밸리’로 설정하여 Post 철강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기 데이터 및 신약 연구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김천시를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기업혁신특구 조성, 통합신공항 연계산업 육성, SOC 디지털 혁신 등을 목표로 함.



[그림 3-10] 경상북도 주요산업 권역별 설정 구역도

1) 전자산업

- 전자 분야의 경우 기존의 구미 지역의 전자 산업 제조기반의 강점을 활용하고 포스텍 등의 우수한 연구 기반을 살려 인공지능 산업과 차세대 반도체 산업, 5G 융합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 시도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밸리, 인공지능 홈케어 가전 특화단지, 5G 코어부품 복합 클러스터, 지능형반도체 응용부품 클러스터,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특구 조성, 지능형 드론 R&D 특화단지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
 - 특히 홈케어 가전의 경우 정부에서도 육성의지를 밝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 경상북도는 2021년 도정계획을 통해 新 전자산업 혁신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는데, 전자산업 내에서도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
 - 스마트 홈 플랫폼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대표산업으로 가전산업을

선정하고, AI 기반의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개인 맞춤형 자율 선제적 케어산업 또한 육성 예정

- R&D에 집중한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기획에서 기업지원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는 사업위주 지원으로 전환 예정

○ 도정계획 내 명시된 전자 산업 육성 관련 사업계획 및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규모 순으로 나열함.

-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 육성사업(23년-29년, 5,000억원)
- 홀로그램 기술개발 추진(20년~27년, 1,818억원)
- 중소기업 시스템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 조성(21년-27년, 811억원)
- 시스템반도체 신규 R&D 등(20년-26년, 400억원)
-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22년~26년, 300억원)
-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19년~23년, 198억원)
- 사물무선충전 실증지원 기반조성사업(20년~23년 180억원)
-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20년~24년, 150억원)
- S/W기반 지능형 SoC 플랫폼 구축(21년~23년, 111억원)
- 7+3 신전자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20년~23년, 70억원)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선정(20년 5월)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중소중견기업 육성,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 실내 테스트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실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도 및 9개 시군에서 단계적 확대)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시형, 단지형, 솔루션형) 추진

○ 전자 산업 관련 LG,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구미산업단지에서 나와 이전했어도 핵심기술분야 과제를 위해 산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총 28개 과제에 아진산업, 에코넷 코리아 등 지역기업 29개, 대학교, 연구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

2) 자동차 산업

-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존 내연기관과 차체, 새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배터리(이차전지), 자동차 전장부품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팩, 자율 주행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무선충전 복합 Complex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경상북도는 미래자동차 시장은 전기, 수소차, 자율 주행차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부품 국산화 및 고부가화 등 미래차 시장수요 대응 필요하도 판단함.
 - 이에 더해 경량화, 친환경화, 지능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자동차 부품산업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있음.
- 도정계획 내 명시된 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사업계획 및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규모 순으로 나열함.
 -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2차전지 기술개발 사업(22년~28년, 5,400억원)
 - 고마력 상용전기차 인휠시스템 핵심부품 국산화(22년~25년, 500억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21년~24년, 470억원)
 - 미래교통안전 e-모빌리티 클러스터 육성(18~36, 459억원)
 -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22년~25년, 450억원)
 -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19년~23년, 414억원, 김천)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20년~22년, 300억원)
 -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22년~24년, 250억원, 금호강 지식산업벨트, 영천-경산-청도)
 -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기반조성(20년~22년, 140억원)
 - 미래교통안전분야 OpenLAB 연계지원사업(18년-22년, 178억원)
- 관련하여 주요 기업은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벅셀(Bexel), 에코프로(EcoPro), 토레이(Toray)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철강 산업

- 경상북도는 차세대 철강 산업 클러스터와 지능형 농기계 클러스터, 스마트 의료기기 클러스터, 에코섬유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포항, 경주, 영천 지역에서 철강 및 장비 분야의 재도약을 꾀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원의 규모 사업으로 예상
 - 산단 대개조를 통한 권역별 신성장 동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
- 포항은 철강 산업의 중심도시로 강소연구개발 중심 첨단 신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철강 산업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를 위한 신소재 관련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도정계획 내 명시된 철강 산업 육성 관련 사업계획 및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규모 순으로 나열함.
 -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21년~'25년, 1,354억원)
 -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19년~'23년, 414억원)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20년~'22년, 300억원)
 - 고품질 강관 인증기반 구축('17년~'21년, 204억원)
 -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모듈 기반조성('20년~'22년, 140억원)
- 이 외 철강 산업의 도약을 통해 기계, 항공, 로봇 산업의 성장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여 경량고강도 소재 생산 기반 구축 등의 철강 소재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탄소성형 부품에 있어 기반을 구축하여 신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 철강 산업의 도약 외에도 스마트 기술의 접목에 더해 타 산업과의 복합적인 융합이 필수인 사항임.

4) 바이오산업

- 경상북도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백신, 신약개발,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 바이오와 라이프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의료, 푸드테크, 친환경 섬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도정계획 내 명시된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사업계획 및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규모 순으로 나열함.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21년 6월, GMP승인, 1,029억원)
 -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22년 하반기 준공 및 기업입주, 463억원)
 -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립('21년 1월 준공, 458억원)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20년~'24년, 390억원)
 -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건립('21년 5월 착공, 278억원)
 -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21년 5월 준공, 165억원)
 -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20년~'24년, 130억원)
 - 신약개발 벤처기업 육성(50억원)
 -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추진('19년~'23년, 25억원)
 -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14억원)
 -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19년~'21년, 13.34억원)
 - 식물기반 의약 및 소재 사업화 지원(10억원)
 - 경북 K-뷰티 특화 디지털 뷰티 산업 육성(10억원)



[그림 3-11]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조감도

3.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여건 분석 시사점

1) 주력산업 기반 권역별 MICE 행사 유치전략 필요

- 기존 주요산업에 더해 신기술을 접목한 권역별 신규 산업들이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점은 MICE 행사 유치 시 유사한 도메인으로 엮어 해당 권역 혹은 도시를 브랜딩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
 - 북부는 바이오, 동남부는 철강과 자동차, 서남부는 전자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지, 소재 등의 하위개념 산업들이 융합하여 관련 MICE 행사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권역 설정은 공급 시설을 기준으로 설정한 권역과도 맞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동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공급 시설 수준과 전략적인 유치 및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것은 해결해야할 부분임.



[그림 3-12] 경상북도 주력산업 기반 권역 설정

- 주력산업과 더불어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수 또한 함께 고려할 사항임.
 - 과거와 비교해 몇 몇의 대기업이 구미산업단지로부터 나와 타 지역 혹은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여전히 전국 기준 많은 수의 사업체, 특히 제조업체 수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기준, 전국 기본 제조업 수로만 보더라도 5번째로 많은 사업체 소재 지역이며, 3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전국 기준 3번째로 많은 사업체 소재 지역이며, 이는 MICE 행사 유치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임.

2) R&D 역량 적극 활용한 MICE 행사 유치전략 기획 필요

- 경상북도는 산업 현황에 더해 그동안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의 분야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공급자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에 따라 산업계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행정-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을 발표함.
 - 이를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 연구개발 실적, 특허, 연구인력 등을 분석하여 대학별 강점을 도출하고, 각 산업별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강화 할 예정임.
 - MICE 행사 중 특히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등에 있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활발한 유치활동 혹은 주요연사의 네트워크 활용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실제로 포항시의 경우 전시컨벤션센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국제관(포항공대) 공급 시설과 포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R&D 역량을 통해 2019년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으로 조사됨.

제4절 경상북도 관광여건 분석

1. 관광자원 현황

1) 관광특구, 관광단지, 관광지 및 개발계획 현황

- MICE 행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요소 중 참가자 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자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경상북도는 총 4곳의 관광특구, 5곳의 관광단지, 32곳의 관광지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안동시, 경주시, 문경시, 상주시, 울진군 등은 총 3~4곳의 관광특구단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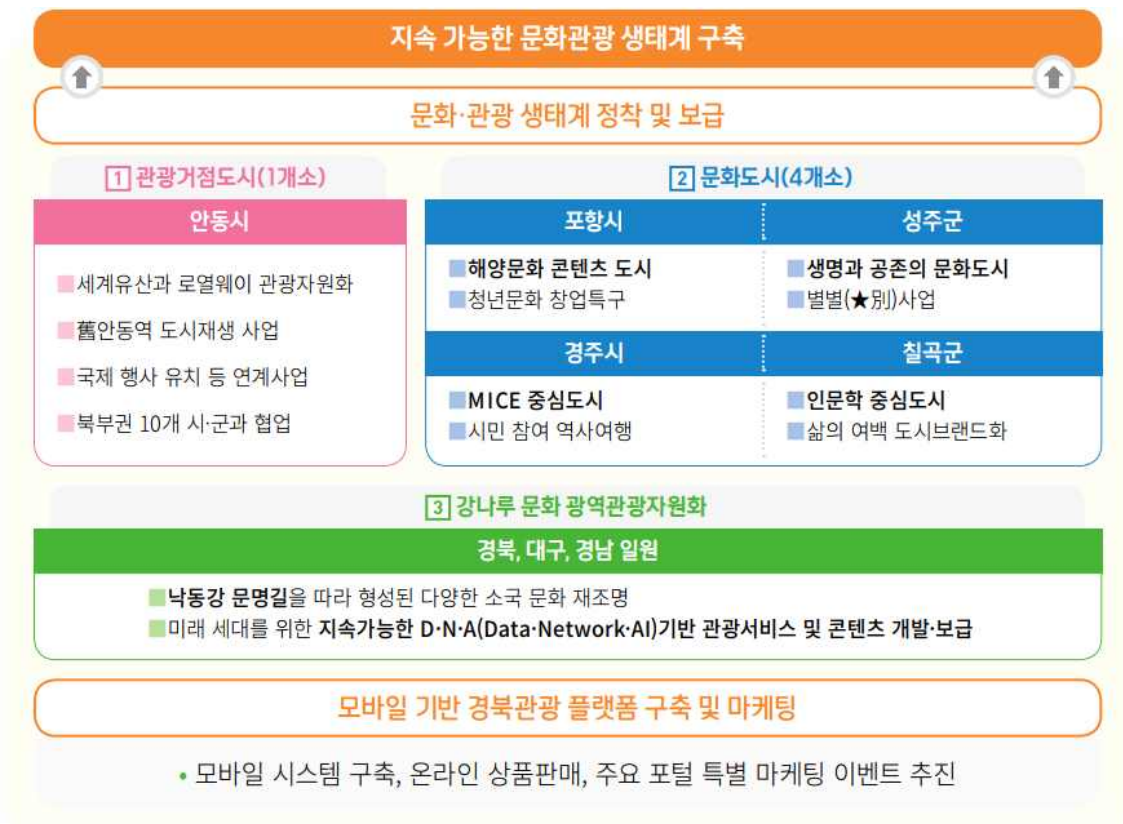
[표 3-43] 경상북도 관광특구단지 현황

지 역	관광특구	관광단지	관광지
경주시	1	3	
문경시	1		2
울진군	1		2
안동시		1	2
상주시			3
청도군			3
포항시	1		1
영주시			3
예천군			2
울릉군			2
영덕군			2
봉화군			2
김천시		1	
경산시			1
구미시			1
영천시			1
고령군			1
울주군			1
의성군			1
청송군			1
칠곡군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단지 현황(2020년)

2) 주요 지역 문화관광 자원

- 경상북도는 2021년 도정계획 내 10대 역점시책 중 ‘문화관광 Re-Start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원에 걸친 강나루 문화 광역관광자원화를 기반으로 관광거점도시로 안동시 1개소와 문화도시로 경주시, 포항시, 성주군, 칠곡군 4개소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 재생사업 및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유기적인 문화관광 생태계로의 재창조하고, 유희 문화관광 자원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함.
-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6년간 사업비 1조 3,82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



[그림 3-13] 경상북도 2021년 도정계획 내 문화관광 Re-Start 프로젝트 도식

가. 안동시

- 안동시는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맡은 도시이며,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국제행사 유치 관련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안동시는 국보 5개와 보물 42개를 포함한 유형문화재 47개에 더해, 국가민속문화재 34개, 기념물 11개, 등록문화재 4개, 국가무형문화재 3개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유적지 또한 위치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꾀함.

[표 3-44] 안동시 지정별 문화재 현황

구분		문화재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5
		보물	42
	국가무형문화재		3
	기념물	사적	2
		명승	2
		천연기념물	7
	국가민속문화재		34
	등록문화재		4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80
	무형문화재		5
	기념물		21
	민속문화재		53
	문화재자료		70
총 합계		328	

자료: 안동시청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181.2㎡ 면적에 국비, 지방비, 공사, 민자 등 총 사업비 약 5,680억원 규모로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서원종택정자 등 목조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시 전체가 지붕 없는 야외박물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
-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북부 11개 시군의 유교 문화권관광개발사업 중 중심숙박휴양거점 조성 사업으로서 경상북도 북부 내륙을 연계하는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음.
 - 단지 내 콘도, 스파랜드, 가족호텔, 유교문화 체험센터, 허브랜드, 골프장 등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음.
- 안동시는 도산서원, 하회마을, 주왕산국립공원, 청량산, 문경새재도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유교문화와 전통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체류형 복합휴양 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그림 3-14] 안동시 주요 관광지 전경

나. 경주시

-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가는 곳마다 신라문화의 유물이 산재해 있어 경상북도 내 문화재 및 역사관광의 중심 도시임.
- 신라문화 중심지인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에 더해 각종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이 있음.
 -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34개, 보물 93개, 사적 77개, 천연기념물 5개, 국가무형문화재 4개, 국가민속문화재 15개, 등록문화재 2개가 있음.
 -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40개, 무형문화재 5개, 기념물 17개, 민속문화재 4개, 문화재자료 47개가 있음.

[표 3-45] 경주시 지정별 문화재 현황

구분		문화재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34
		보물	93
	국가무형문화재		4
	기념물	사적	77
		천연기념물	5
	국가민속문화재		15
	등록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40
	무형문화재		5
	기념물		17
	민속문화재		4
	문화재자료		47
총 합계		341	

자료: 경주시청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 경주시 보문호를 중심으로 약 8,515,243m²에 걸쳐 조성된 국제적 종합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는 1971년 정부에서 수립한 경주 종합 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종합휴양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됨.
 - 현재 경상북도 내 도시 중 가장 많은 특급호텔이 위치한 지역이며, 국제회의시설, 각종 레저 및 휴양시설 등이 있음.
 - 전 지역이 온천지구 및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경상북도는 경주시를 문화도시 중 1개 도시로 선정하고, MICE 중심도시라는 타이틀로 경주시 도시 브랜딩을 꾀함.
 - 경주시는 컨벤션센터 외 숙박시설 내 회의시설 보유수가 경상북도 내 타 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p.41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분석 참고)
- 경주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장기적으로 개발해 온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상북도 내 타 도시 대비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각종 관광프로그램 및 소개 콘텐츠가 타 도시 대비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는 편임.



[그림 3-15] 경주문화관광 웹사이트 권역별 관광지 정보 페이지

다. 포항시

- 해양문화 콘텐츠 도시와 청년문화 창업특구 등의 지역 브랜드를 활용해 경상북도가 문화도시로 선정한 포항시는 동해안 지형을 따라 해수욕장이 있으며, 특히 구룡포 지역과 영일대 해수욕장이 유명함.
- 해안을 따라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가 발달한 포항시는 이 외 자연경관 등을 볼 수 있는 산 속의 폭포, 각종 체험촌, 행사 등을 브랜드화 하여 포항 12경, 5미, 5락의 콘텐츠로 개발 및 홍보하고 있음.

[표 3-46] 포항시 12경, 5미, 5락 내용

구 분		위 치
12경	호미곶 일출	호미곶면 해맞이로
	내연산 12폭포	송라면 중산리
	운제산 오어사 사계	오천읍 오어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동해면 입암리
	영일대 & 포스코 야경	북구 해안로
	포항운하	남구 희망대로
	경상북도수목원 사계	죽장면 수목원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동해면 호미로
	철길숲 & 불의 정원	남구 대잠동
	죽장 하옥계곡 사계	북구 죽장면
	장기읍성 & 유배문화체험촌	남구 장기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남구 구룡포읍
5미	포항 물회	북구 죽도시장
	구룡포 과메기	북구 죽도시장
	구룡포 대게	북구 죽도시장
	호미곶 돌문어	북구 죽도시장
	장기 산딸기	남구 장기면
5락	포항국제불빛축제	북구 해안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제	남구 호미곶면
	칠포 재즈페스티벌	북구 흥해읍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남구 일월동
	스틸아트페스티벌	북구 선착로

자료: 포항시청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라. 성주군

- 경상북도의 문화도시 중 하나로 지정된 성주군은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소개되고 있으며, 지형이 별 모양을 닮았다 하여 '별고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음.
 - 낙동강과 소백산맥의 명산인 가야산이 있어 성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산을 따라 형성된 문화재들도 보유하고 있음.
- 안동시, 경주시, 포항시에 비해 문화재 수는 적은 편이나 성주군만의 브랜드 콘텐츠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표 3-47] 성주군 지정별 문화재 현황

구분		문화재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0
		보물	5
	국가무형문화재		0
	기념물	사적	2
		천연기념물	1
	국가민속문화재		1
	등록문화재		0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21
	무형문화재		1
	기념물		10
	민속문화재		10
	문화재자료		26
총 합계		77	

자료: 성주군청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마. 칠곡군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가산산성에 더해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리는 호국평화기념관, 호국의 다리 등 호국과 관련된 장소가 많은 칠곡군은 이 외에도 테마파크, 공원, 캠핑장 등 문화 관광부터 자연까지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임.
 - 특히 칠곡보 생태공원, 칠곡 가산산성,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왜관 수도원 등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임.
- 이 외에도 농촌, 목장, 장 담그기, 학춤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명소 또한 칠곡군 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48] 칠곡군 지정별 문화재 현황

구분		문화재수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0
		보물	6
	국가무형문화재		0
	기념물	사적	1
		천연기념물	1
	국가민속문화재		0
	등록문화재		0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0
	기념물		4
	민속문화재		1
	문화재자료		33
총 합계		50	

자료: 칠곡군청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2. 숙박시설 현황

1) 관광숙박업 등록 기준

가. 숙박시설 공급 현황

- 숙박시설의 유무는 MICE 행사 유치 시 국내는 물론 국제행사 주최자 및 참가자의 행사 데스티네이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됨.
- 경상북도 숙박시설 공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비교 도시로 대구광역시를 조사함.
 - 2020년 12월 기준 경상북도 관광호텔업 등록 업체 수는 39개로 대구 관광호텔업 등록 업체 수인 25개와 비교 시 14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 외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휴양콘도업 등의 등록 업체 수를 합하면 경상북도는 88개, 대구광역시는 29개로 경상북도가 59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9] 경상북도 vs 대구광역시 관광숙박업 업체 수 비교

(단위: 개)

구 분		업체수		객실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관광 호텔업	5성급	2	1	764	325
	4성급	4	4	1,009	558
	3성급	7	4	640	206
	2성급	14	10	742	694
	1성급	3	2	61	114
	등급없음	9	4	627	567
① 소 계		39	25	3,843	2,464
전통호텔업		1	0	16	0
가족호텔업		3	0	150	0
호스텔업		28	4	383	67
소형호텔업		3	0	104	0
② 소 계		35	4	653	67
합 계(① + ②)		74	29	4,496	2,531
휴양콘도업		14	0	3,055	0
총 계		88	29	7,551	2,5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2020)

○ 경상북도 내 각 시군별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경주시에 2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울릉군 16개, 포항시 9개, 안동시 8개, 울진군과 구미시 각 5개, 문경시와 영덕군 각 3개, 영주시, 청송군, 김천시 각 2개,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각 1개로 총 88개이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에는 등록된 관광숙박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 기준, 경주시 11개, 포항시와 구미시 각 5개, 울진군, 3개, 안동시와 울릉군, 경산시 각 2개가 등록되었으며, 4~5성급의 경우 경주시에 5개, 구미시에 1개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표 3-50] 경상북도 시군별 관광숙박업 업체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경주	울릉	포항	안동	울진	구미	문경	영덕	영주	청송	경산	고령	군위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영천	청도	칠곡	
관광호텔업	5성급	2																			
	4성급	3				1															
	3성급	2		1	2	1	1														
	2성급	2		4		1	3			1	1						1				1
	1성급	2												1							
	등급 없음		2			1	1	1	1		1	1								1	
① 소 계	11	2	5	2	3	5	1	1	1	1	2	1	0	1	0	0	1	0	1	1	
전통호텔업	1																				
가족호텔업		1		1				1													
호스텔업	6	11	2	5					1			1		1				1			
소형호텔업		2	1																		
② 소 계	7	14	3	6	0	0	0	1	1	1	0	0	1	0	1	0	0	1	0	0	
합계(①+②)	18	16	8	8	3	5	1	2	1	2	1	1	1	1	1	0	1	1	1	1	
휴양콘도업	6		1		2		2	1	1							1					
총 계	24	16	9	8	5	5	3	3	2	2	2	1	1	1	1	1	1	1	1	1	

주.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조사 결과 사업체 전무, 표기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2020)

나. 면적 1km²당 등록 숙박업체 및 객실 수 분석

- MICE 행사의 특성상 관광호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이 행사 유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관광숙박업 등록 기준, 경상북도의 경우 관광호텔업을 제외한 기타호텔업, 특히 휴양콘도업의 객실 수가 대구광역시와 비교 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수 대비 객실 수가 많은 것은 한화리조트 경주, 소노벨 경주 등 리조트(휴양콘도업)의 영향으로 조사됨.
- 면적 1km²당 숙박업체 및 객실 공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모든 수치에서 대구광역시 공급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타호텔업(휴양콘도업 포함)의 객실 수는 경상북도의 공급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면적 19,033km², 대구광역시 면적 883km² 기준으로 산출됨.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업체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이며,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은 객실 수가 불분명하여 제외함.

[표 3-51] 경상북도 vs 대구광역시 면적 1km² 당 숙박업체 및 객실 수

(단위: 개)

구 분		경상북도	비교	대구광역시
관광호텔업	숙박업체	0.002	<	0.028
	객실	0.202	<	2.790
기타호텔업	숙박업체수	0.003	<	0.005
	객실	0.195	>	0.076
총 합	숙박업체	0.005	<	0.033
	객실	0.397	<	2.8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기준 재구성(2020년)

2) 관광숙박업 미등록 기준

- 경상북도 내 소재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관광호텔업은 총 42곳으로 각 지역별로는 경주시 17개, 포항시 9개, 구미시 7개, 문경시와 영덕군 각 3개, 김천시 1개, 영주시 1개, 울릉군 1개로 조사됨.
 - 관광호텔업 외 휴양림,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존재하지만 MICE 행사 유치를 고려했을 때 활용도가 낮아 제외함.
- 경상북도 내 소재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등록 업체와 미등록 관광호텔업의 전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표 3-52] 경상북도 시군별 등록 숙박업 및 미등록 관광호텔업 업체 수

(단위: 개)

지 역	등록 숙박업	미등록 관광호텔업	총 업체 수
경주시	24	17	41
포항시	9	9	18
울릉군	16	1	17
구미시	5	7	12
안동시	8	0	8
문경시	3	3	6
영덕군	3	3	6
울진군	5	0	5
영주시	2	1	3
김천시	2	1	3
청송군	2	0	2
경산시	1	0	1
고령군	1	0	1
군위군	1	0	1
봉화군	1	0	1
상주시	1	0	1
성주군	1	0	1
영천시	1	0	1
청도군	1	0	1
칠곡군	1	0	1

자료: ICEM 직접 조사 (2021년 06월)

주: 미등록 관광호텔업체의 조사 불응경우가 많아 부록 내 업체명만 기재

3. 교통 인프라 현황

1) 일반 교통 인프라

- MICE 행사 유치에 있어 교통 인프라는 단순 참가자의 행사 및 숙박 장소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같은 넓은 지역의 도시 간 연계 전략 수행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 예정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 k2와 민간 대구공항을 경상북도 지역 내 함께 옮겨 짓는 사업으로 생산유발액 36조원 수준의 경기 부양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표 3-5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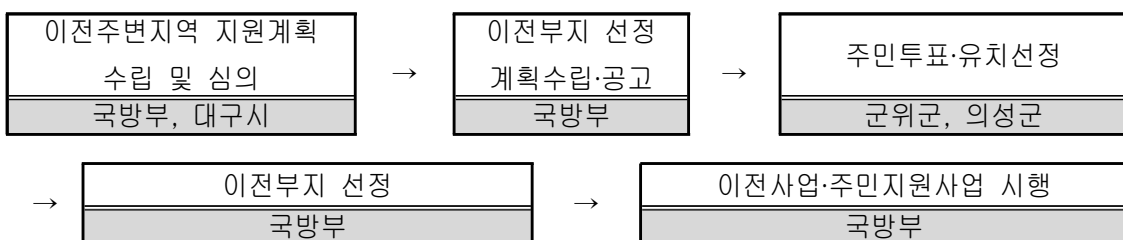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사업기간	2014년 - 2028년, 14년간	
규모	15.3km ² / 463만평 (현 부지 2.3배)	시설면적 11.7km ² 소음완충지역 3.6km ²
사업비	약 9.27조원(민간공항 사업비 별도)	통합신공항 건설(6.74조원) 후적지 개발(1.17조원)
사업방식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및 개항	
군 공항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	
민간공항	기존 부지 매각대금 + 정부재정	

자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공항 안내 부분 재구성(2021년 06월)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 간 연결망 확대가 기대됨.
 -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잇는 공항철도, 북구미IC-군위J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계획임.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항 인프라 구축이 기대됨.
 - 생체인식 수속, AI활용 보안, 빅데이터 및 IoT 활용한 공항 운영 예정임.

- 기반 시설 측면에서 긴 활주로를 통한 여객, 물류처리 효율성 증대와 미주 및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기대됨.
- 2019년 한국항공대학교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항공여객수요 예측’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후 2050년에는 942만 명의 여객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9년 한국항공대학교 동일 자료에서 205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수요는 약 26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의성군 비안면이 89.5%, 군위군 우보면이 78.4%로 공항 유치의 적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우보면 유치를 신청함.
 - 동년 7월 3일에는 이전부지선정위에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하여 공동후보지를 7월 31일까지 선정 유예함.
 - 동년 7월 31일, 군위군, 소보 유치 신청함.
 - 동년 8월 28일, 이전부지선정위에서 군위소보와 의성비안을 최종 결정함
 - 동년 9월 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함.
 - 동년 10월 27일, 국토부에서 ‘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함. (‘20.10.27~’21.10.2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유신)
 - 동년 11월 6일, 대구시에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함. (‘20.11.6~’21.11.5.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
 - 동년 12월 7일,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함. (‘20.12.7~’21.10.2. 한국교통연구원, (주)유신, (주)반석이앤씨)

[표 3-5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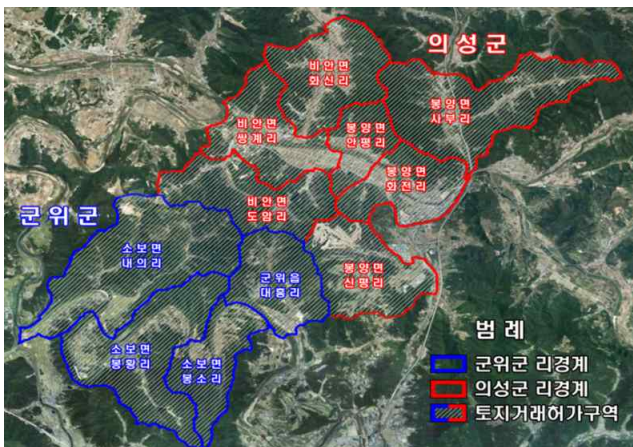
자료: 경상북도청 2021년 도정계획 재구성(2021년 06월)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1,000만여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MICE산업관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인프라와의 복합적인 관계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5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세부 추진과정

구분	군공항 (대구시)	민간공항 (국토부)	교통망 (국토부, 경북도)	공항신도시 (경북도)
'20년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1.6~'21.11.5.) ※민항 시설계획 협의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21~'25) ※충분한 규모 반영 건의	(道) 공항신도시 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용역 ('20.12.7~'21.10.2, 300일) ※도로·철도 국가상위계획 반영 건의	
'21년		사전타당성검토 ('20.10.27~'21.10.22.) ※예타 면제 건의	사전타당성검토 ※예타 면제 건의	예정지구 지정
'22년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23년	관계기관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개발·실시계획 수립
'24년	군공항 건설공사	민항 건설공사	철도·도로 건설공사	신도시 조성공사
'25년				
'26년				
'27년				
'28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자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공항 안내 부분 재구성(2021년 06월)



[그림 3-17]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림 3-18] 공항 조감도

나. 철도 및 고속도로

-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경상북도로의 거시적 접근성 향상에 긍정적임.
- 철도 노선을 살펴보면, 11개의 일반철도와 88개의 역을 갖추고 있음.
 - KTX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할 시, 김천구미 80분, 대구 100분, 신경주 115분, 포항 120분 내 도착 가능함.

[표 3-56] 대구경북 철도 노선 확장 계획 I

철도노선	노선구분	구분	연장규모	완공예정
동해남부선	일반철도	포항~신경주~울산	76.5km	2021년
대구선	복선전철	동대구~영천	38.6km	2021년
대구선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20.4km	2021년
중앙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145.1km	2022년
동해중부선	일반철도	포항~삼척	1663km	2022년

자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교통 부분 재구성(2021년 06월)

- 총 8개 고속도로와 20개 국도, 49개 지방도로가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까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
 - 8개의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내륙, 중앙, 동해울산포항, 상주영천, 광주대구, 익산포항,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있음.

[표 3-57] 대구경북 철도 노선 확장 계획 II

노선명	구간길이	구분	완공예정
대구외곽순환	32.4km	성서공단, 지천, 안심	2021년
포항-영덕간	30.92km	오천, 남영일만, 북영일만, 영덕, 청하	2023년

자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교통 부분 재구성(2021년 06월)



[그림 3-1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 위치 및 주변 교통 인프라

2) 관광 교통 인프라

가. 경북나드리 열차

- 경상북도의 테마형 철도 관광상품으로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함.



[그림 3-20] 경북나드리 열차 운행노선도

-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갔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노선 변경 및 열차 리모델링 개선작업을 통해 재운행에 들어감.
 - RDC동차 4량으로 편성된 무궁화호로 열차 내외부에 경북관광을 대표하는 이미지 랩핑, 가족실, 이벤트실, 일반실, 카페칸으로 구성된 객차가 운행되고 있음.
- 기존 동대구-왜관-구미-김천-상주-문경-예천-영주까지 다시 영주를 출발해 안동-의성-영천-하양-동대구로 돌아오던 노선과 달리, 동대구를 출발해 영주를 넘어 분천 산타마을까지 가는 열차로 변경됨.
- 동대구역부터 포항까지 잇는 열차와 남쪽 청도역까지 잇는 열차도 있음.

[표 3-58] 경북나드리 열차 테마01. 문경편 일정

시간	세부일정	비고
09:55	동대구역 출발-대구역-왜관역-구미역-김천역-점촌역 도착	경북나드리 4501
12:00	점촌역 출발 - 문경새재 이동	
12:30	중식[제공식 - 약돌돼지정식]	
13:00	문경새재 & 옛길박물관, 농특산물 직판장(입장료 개별부담)	
15:20	문경새재 출발 - 구량리역(문경레일바이크 탑승장) 이동	
15:40	문경레일바이크 즐기기	
17:10	구량리역 출발 - 오미자터널 이동	
17:40	오미자터널 즐기기(입장료 개별부담)	
18:20	오미자터널 출발 - 점촌역 이동	
18:40	점촌역 도착 및 경북나드리 열차 탑승대기	
19:10	점촌역 출발-김천역-구미역-왜관역-대구역-동대구역 도착	경북나드리 4502

자료: 경상북도 경북나드리열차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06월)

- 경상북도 북부지역부터 서부를 통과해 남부지역까지 이어지는 경북나드리 열차는 식사제공 및 관광지역 방문 등의 활동과 연계한 관광 교통 패키지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며, 본 단일 상품으로는 경상북도 내륙에서 유연한 접근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 경상북도는 대구, 안동, 문경, 영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 대상 교통카드 기능과 가맹점 및 제휴점에서의 할인 기능 등이 포함된 '선비이야기 투어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선불충전식 결제수단이며, 대구, 안동, 문경, 영주 지역 내 관광안내소 혹은 각 수령처에서 카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함.
 - 카드 수령 후 어플리케이션 설치, 어플리케이션 내 카드를 저장하여 사용 가능함.



[그림 3-21]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디자인 이미지

다. 이 외 관광 셔틀버스 여부

- 관광거점도시 안동시와 문화도시인 경주시, 포항시, 칠곡군, 성주군의 관광 관련 셔틀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안동시 내 하회마을 셔틀버스를 제외하고 특정 행사가 있을 시에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간 연계 프로그램 제작 시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통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경상북도 관광여건 분석 시사점

1) 관광자원 적극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필요

- 문화관광에 있어 국내 최상급의 자원을 보유한 경상북도는 우선 각 도시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요 특성에 따라 도시별 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MICE 행사 유치에 있어 다양한 도시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강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관광특구, 관광단지, 관광지의 위치와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안동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주시, 포항시, 칠곡군, 성주군의 위치를 살펴보면, MICE 시설 공급현황과 산업여건에서 나눈 권역 설정 기준과 일치함.
 - 타 권역으로의 이동까지 고려하며 즐길 거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보다는 보다는 권역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해당 권역 내 MICE 행사 참가에 더해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22] 경상북도 관광자원 기준 권역 설정

2) 숙박 인프라 확충 및 숙박시설 간 연계 필요

- 경상북도 내 숙박시설은 경주시에 공급량이 몰려 있는 상황이며, 리조트의 영향으로 객실 수는 1개 시설 내에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상황임.
- 하지만 타 시도와 비교 시 여전히 공급량 자체가 MICE 행사를 유연하게 유치하는데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 사업이기에 단기적으로 숙박시설 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표 3-59] 경상북도 지역별 객실 수 100개 이상 기준 숙박업체 현황

(단위: 개)

권역	지역	100~300개 미만	300개 이상	합계
동남부	경주시	8	7	15
	포항시	1	0	1
서남부	구미시	3	0	3
	김천시	0	1	1
북부	울진군	2	0	2
	문경시	1	0	1
	청송군	0	1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기준 재구성(2020년)

3)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체와의 협업 등 교통 프로그램 확충 필요

- 위 관광프로그램 및 숙박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이 기획된 후 유연하게 운영되려면 현재 경상북도의 교통 인프라를 단기간 내 확충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관광 교통 프로그램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됨.
 - MICE 행사 참가자의 지역 간 접근성 극대화를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체와 적극 협업하여 KTX역 등 기존 교통 인프라 거점 근처에 바로 활용 가능한 공유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이후 주변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관광 등 타 연계 인프라의 구축이 장기 과제를 고려할 때, 위 프로그램은 향후 MICE 참가자의 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제5절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분석

1. MICE 전담조직 개요

- 일반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센터 내 전시회 및 컨벤션 유치, 관리를 위한 컨벤션뷰로가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내 컨벤션뷰로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수요를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 등 본래 역할보다는 센터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함.
- 광역단체 수준에서의 MICE 관련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각 도청 내 주무부처에서 도 내 MICE 육성 및 지원, 정책기획, 인재교육 및 육성, 산업 현황 파악 등의 역할을 맡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진행함.
- 실제 사업 추진체로는 지역 마케팅을 위한 관광공사 및 재단이 있고, 위 언급되었던 각 컨벤션뷰로에서 MICE 행사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MICE 행사 개최는 각 전시컨벤션센터 혹은 타 메뉴에서 진행하고 있음.



[그림 3-23] 광역단체 기준 MICE 전담조직 체계

2. 경상북도 외 광역단체 MICE 전담조직 현황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공사 혹은 관광재단의 조직을 운영하며 조직 내 MICE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컨벤션뷰로를 운영하거나 전담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 하는 컨트롤 타워와 지역마케팅 조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타 조직 간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토대로 한 MICE산업 육성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관리 방향에 맞춰 관광공사 및 재단, 컨벤션뷰로 및 관련 협의회,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3-24]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MICE 전담조직 Work-Flow 도식

- 경기도의 경우 일산시와 수원시에 각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고양컨벤션뷰로와 수원컨벤션뷰로가 있어 해당 지역의 MICE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여 경기관광공사와 공유하고 지역마케팅 진행 시 거시적 관점에서의 수요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3.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현황

- 경상북도는 MICE 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경상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가 그 역할을 진행하고 있음.
 - MICE 유치지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외 홍보, 도내 축제관련 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6월 기준, 경상북도청 조직도 상 총원 15명 중 전담 인력은 1명으로 나타남.

- MICE 행사 유치업무를 위한 사업 추진체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내 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있으며, 구미코 내 전시팀에 더해 각 지자체 관광과 등이 일부 MICE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구미코 내 전시팀은 각 소속되어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내 개최 가능한 MICE 행사 대상 유치활동 외 센터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공식적인 기타 사업 추진체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경상북도관광협회가 있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12년 경상북도 출자로 세워진 기구로 경상북도 관광 산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관광특구, 관광단지 등의 지역 투자 및 개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경상북도관광협회는 사단법인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회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서비스 개선에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경상북도청이 MICE 업무의 비중을 단체 관광객 유치 등에 두고 있어 관련된 현황 조사 및 관광 서비스 개선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6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경상북도관광협회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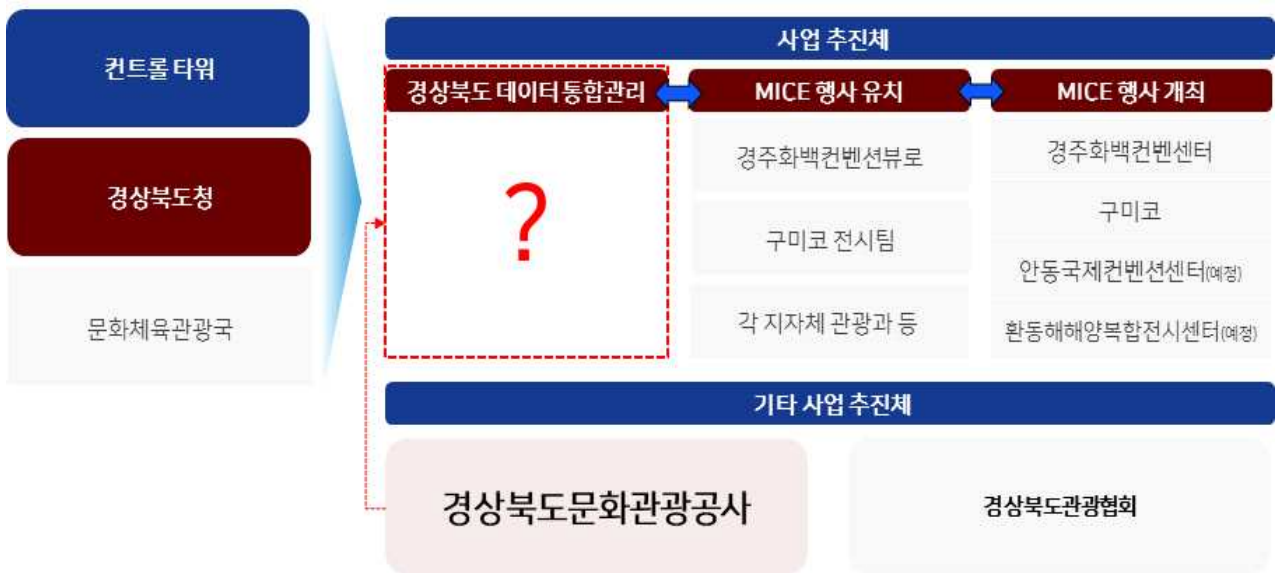
사업추진체	설립년도	주요업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012	·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개발현황, 투자환경 소개 · 분양, 투자 및 입주 유치 · 경상북도 여행 정보 소개
경상북도관광협회	1962	·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관광통계 및 교육 · 관광안내소 운영

자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경상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재구성(2021년 6월)

4.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분석 시사점

- 현 경상북도의 상황에서는 도 전체 총 공급 데이터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대응할 조직이 부재하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구미코 전시팀, 그리고 각 지자체 관광과가 자체적으로 외부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상황임.
 - 타 광역단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마케팅을 위한 조직에서 컨벤션뷰로 및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와의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담당할 사업체가 필요함.
 - 반드시 공사 혹은 재단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도 내 MICE 공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 특히 경상북도처럼 MICE 공급 및 서비스 역량이 도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체계를 통한 MICE 개최 수요에 효율적 대응 역량이 필수임.
 - 경상북도의 현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단일 시군의 자체 대응은 유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더욱이 경주시 외 시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극대화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로 인해 잠재 유치 건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새로운 조직을 출범하는 것은 투자액의 규모 및 기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현재 존재하는 조직에게 전담 업무와 인력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도 출자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MICE산업 통합관리 업무 진행에 있어 그 가능성과 명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3-25] 경상북도 MICE 전담조직 현황 도식 - 통합관리 체계 조직 예시

-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가 잡힌다면, 수요 성격에 맞는 유연한 대응에 더해 도시 간 연계상품 기획 및 판매, 도시의 산업 및 문화 간 시너지 효과 타깃, MICE 개최지 외 타 시군 문화관광 자원 프로그램 판매 등의 유기적인 전략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 4 장

해외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제1절 분석배경

제2절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제4장 해외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제1절 분석배경

- 경상북도 MICE 산업여건 및 환경 분석을 통해 경상북도가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됨.
- 이에 경상북도가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수립에 있어 도 내 도시별 특징이 유사한 해외 도시의 MICE 산업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성 수립에 더해 전략, 운영방안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상북도 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의 헬몬트, 일본의 센다이, 호주의 멜버른 등 3개 도시와 연관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해당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
 -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R&D 인프라, 자동차와 바이오 등 미래형 산업 선진도시 등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외도시 사례들을 매칭 분석함.
- 소개된 해외 도시들은 모두 지리적, 산업적 특성에 더해 MICE산업 공략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과 성공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 경상북도 내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기 적절한 예시들로 선별했음.
 - 특히 라스베이가스, 싱가포르, 런던, 시드니 등 경상북도 내 도시들과 비교 시 규모면에서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 아닌 MICE 베스트 도시들은 선별 시 제외함.
- 각 도시 사례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수립의 일부 근거로 활용할 예정임.

제2절 MICE 특화도시 사례 분석

1. 네덜란드 헬몬트(Helmond)

1) 개요

- 인구 9만 명(2019년 기준) 규모의 중소도시인 헬몬트는 네덜란드 북브라반트주에 있는 행정 구역으로 과거 섬유산업 및 석탄 산업이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웃 도시인 에인트호번, 틸부르프 등 각종 첨단산업 및 통신·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도시의 위엄을 견고히 하고 있으며 매년 대규모 카니발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카니발의 도시로도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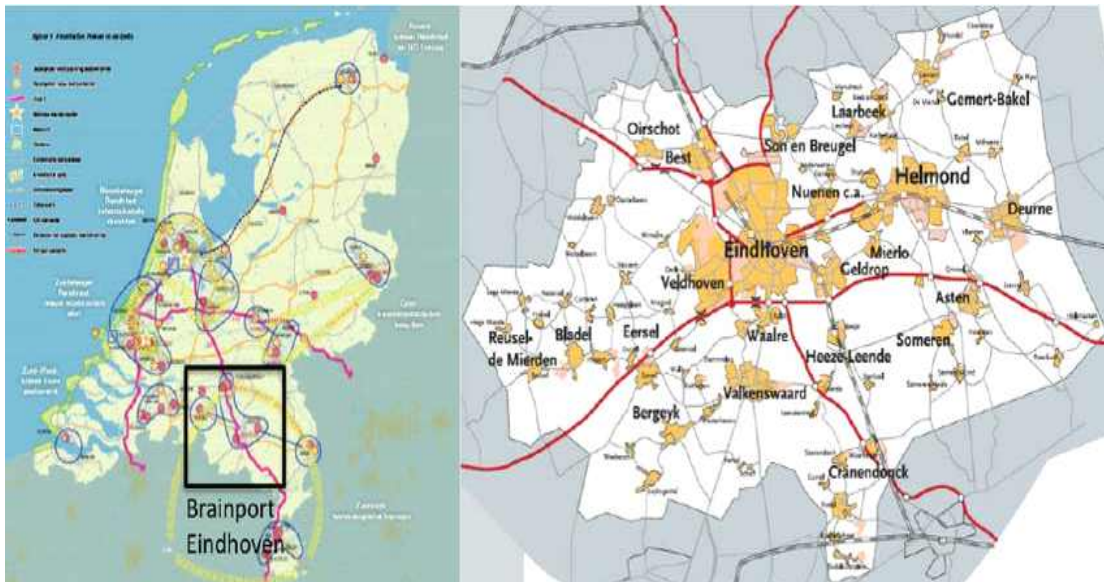
2) 주력산업

- 헬몬트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불보자동차 개발연구소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회사인 지멘스(Siemens)가 인수한 타스인터내셔널(TASS International) 등 자동차 관련 공급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불보자동차 개발연구소의 경우 오늘날 첨단자동차캠퍼스(Automotive Campus)로 불리며 독립적인 자동차 산업 지식센터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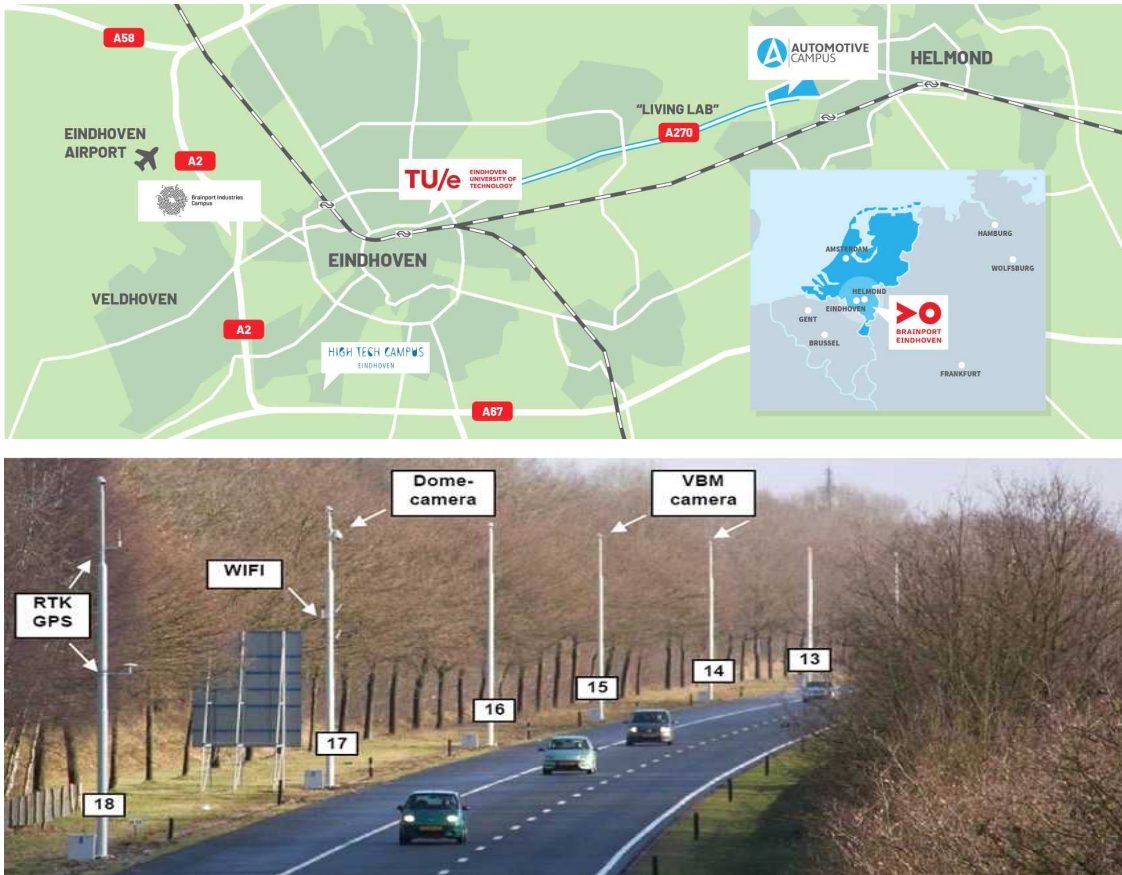
[그림 4-1] 헬몬트 첨단자동차캠퍼스 전경

- 헬몬트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에인트호번을 18km 거리에 둔 지역으로 에인트호번 광역도시권에 속해 있으며 직통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산업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에인트호번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룬 지역으로서 이웃 도시와의 산업 교류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4-2] 에인트호번 광역도시권 개발권역 개념도

- 헬몬트의 산업 고도화에는 에인트호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의 브레인포트(BrainPort) 지원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타 도시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지능형 자율 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테스트베드를 마련하여 스마트카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함.
- 헬몬트의 완성차 기업들과 에인트호번의 첨단산업 기업들(예: FEI 컴퍼니, NXP 반도체, ASML, ALTEN, SIMAC 등)을 양분 삼아 미래형 콘셉트카 시장을 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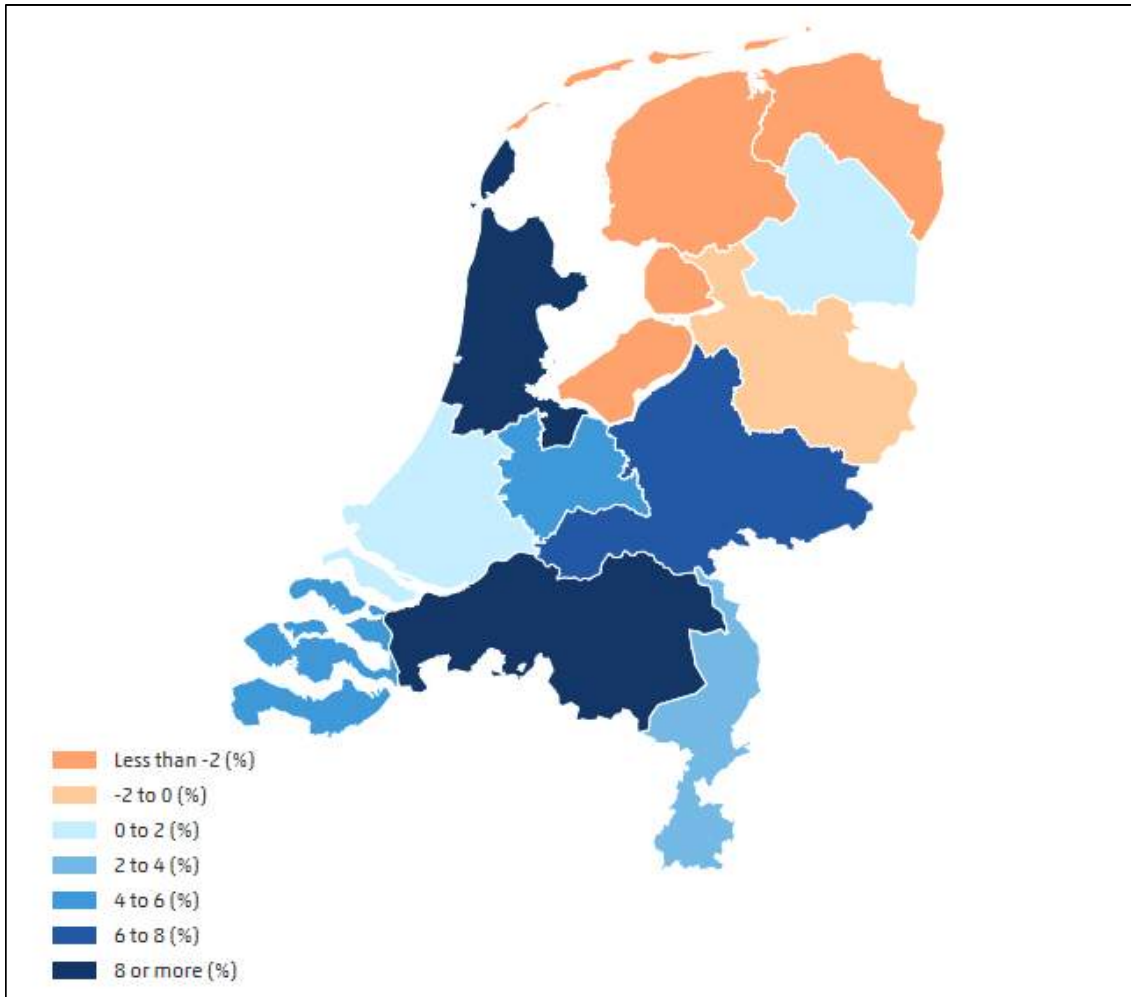


[그림 4-3] 헬몬트-에인트호번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 및 자율 주행차 테스트베드

3) 관광·MICE산업 현황

가. 관광산업 현황

- 헬몬드는 네덜란드의 대표적 축제의 도시로서 다채로운 카니발 퍼레이드로 매년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자,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임.
- 헬몬드를 비롯한 북브라반트주는 2018년도부터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까지는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그 중 북브라반트주 일대의 비즈니스 목적 체류건수는 199만 건으로 집계, 네덜란드 주요 행정구 중 3위를 기록함.



[그림 4-4] 2019년 네덜란드 권역별 관광수요 현황

나. MICE산업 현황

- 헬몬트의 MICE산업은 북브라반트주 일대를 아우르는 비짓브라반트(Visit Brabant)를 통해 육성·관리되고 있음.
 - 비짓브라반트는 북브라반트 지역을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지역 (Smartest Region in the World)’으로 브랜딩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MICE 행사유치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북브라반트의 5개 도시 중 비짓브라반트가 MICE 개최지로서 주력하고 있는 도시는 헬몬트를 비롯하여 에인트호반, 스헤르토헨보스이며, 각각 스마트 모빌리티산업, 지능형 첨단산업, 농업 및 환대산업 등의 지역특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헬몬트를 비롯한 북브라반트주 일대에는 전문 전시컨벤션시설이 부재한 까닭에 에인트호번에서 30km가량 떨어진 위트레흐트주(10만m² 규모의 전시장 보유)에서 지능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B2B 무역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헬몬트와 에인트호번 일대에서는 기존 산업 인프라를 유니크베뉴로서 활용하여 특화산업 분야의 소규모 무역전시회 및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북브라반트에는 46개 회의시설 및 유니크베뉴가 운영 중에 있으며, 헬몬트의 첨단자동차산업캠퍼스와 에인트호번의 하이테크캠퍼스도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는 주요 인프라로 꼽힘.

4) 추진성과

- MICE 관련 인프라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MICE산업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최근 헬몬트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위상 있는 국제행사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무역전시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고 있음.
 - Annual Automotive Week
 - 2016 Grand Cooperative Driving Challenge
 - 2017 Automotive Congress in the Netherlands
 - 2019 ITS European Congress
 - 2021 Photonics Applications Week

5) 분석 시사점

가. 권역 도시 간 유기적 교류로 산업 성장 촉진

- MICE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하는 대표적 지식산업이므로 지역특화 산업육성에 관한 거버넌스는 MICE산업 발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헬몬트와 에인트호반 사례와 같이 정책적 산업 교류 체계는 특화산업을 기반한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MICE 행사 프로그램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지역특화 MICE산업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의지

- 비짓브라반트의 사례와 같이 도시 규모 및 인프라 여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역만의 특성을 담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홍보할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은 MICE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관리조직 및 도시마케팅 전략에 관한 뚜렷한 방향성이 수립되려면 MICE산업에 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다. 지역만의 특징을 내세운 유니크베뉴 적극 활용

- 전문 전시컨벤션센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무역전시회 및 기업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헬몬트 사례와 같이 대형 전시컨벤션센터를 갖춘 수도권 및 광역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MICE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만의 특징을 담은 유니크베뉴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경북권의 무역전시회 수요가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한 대구로 유출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자동차 분야 전시회가 위트레흐트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헬몬트의 경우 첨단자동차산업캠퍼스 및 지역 소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현장 투어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트레흐트에서 행사 관람을 마친 참관객들이 헬몬트와 에인트바인 등도 방문하는 양상을 보임.

2. 일본 센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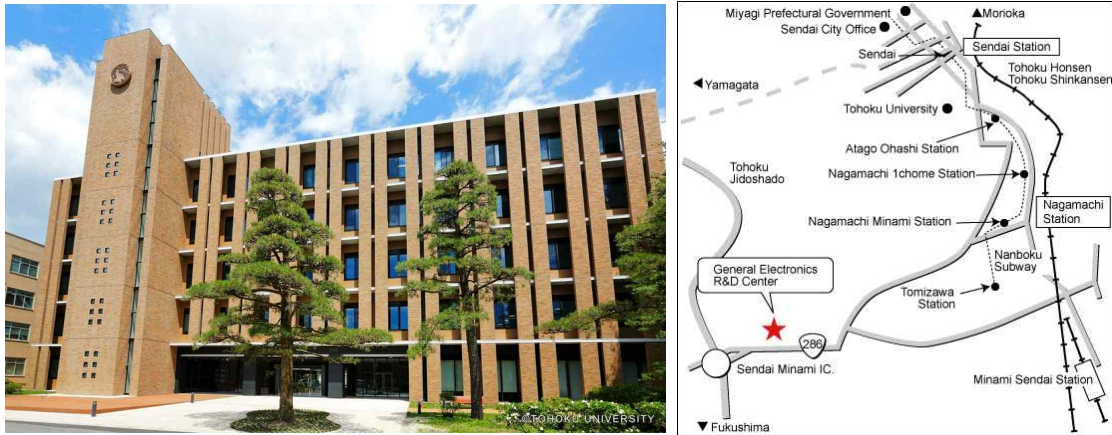
1) 개요

- 센다이는 미야기현의 현청 소재지이며, 도호쿠(東北) 지방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도호쿠 지방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일본 전체 중 인구 순위는 12위임.
- 일본 동북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센다이는 자연과 학문의 도시임. 풍부한 자연과 도호쿠대학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과 반도체연구소 등 각종 첨단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학술의 도시'라고 불림.
- 센다이는 소규모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술과 R&D 인프라가 풍부한 점을 토대로 굵직한 국제회의를 다수 개최하면서 센다이만의 특화된 MICE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

2) 주력산업

- 센다이의 핵심 먹거리 산업 인프라는 교육과 R&D이며 세부 분야는 반도체 및 전자 장치, 방재, 의료 분야로, 관련 기업과 교육기관 등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교육·R&D 인프라의 경우 100여 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분포해 있으며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도호쿠 대학은 스핀트로닉스, 생명과학, 물성물리학 분야의 연구에 특화되어 있음.
 - Philips Japan은 센다이시에 일본 최초의 R&D기지인 "Co-Creation Center"를 설립하여 "헬스케어×ICT"를 슬로건으로 헬스테크 산업 및 인적 자원 육성에 힘쓰며 방재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국제방재연구원(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Disaster Science), 간사이후쿠시 연구원(Kansei Fukushi Research Institute) 등이 핵심 인프라로 활약하고 있음.

- 센다이에 소재한 전자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체는 Ericsson Japan KK, IBM Japan, V-cube 등이 있으며 그밖에 전기 통신 연구소, 정보과학대학원, 미야기 정보 서비스 산업 협회 등도 센다이의 ICT 및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고 있음.



[그림 4-5] 도호쿠대학 전경 및 특화산업 R&D 클러스터 현황

3) 관광·MICE산업 현황

가. 관광산업 현황

- 센다이를 비롯한 미야기현의 관광객 유입 현황은 일본 전체 관광객 (31,882,049명, 2019년 기준)의 약 1% 수준에 그치는 수준임.
- 센다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며, 센다이 타나바타 축제, 조 쟌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요사 코이 댄스 페스티벌, 별빛의 미인 대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나. MICE 인프라 현황

- 상기와 같이 센다이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제회의 방문객 69,227명(MICE 목적 해외 방문객 4,582명)을 유치하여 자국 MICE 도시 중 상위 15위 권 내에 들고 있음.

- 센다이 내에는 센다이 국제 센터와 미야기 전시장(Yume Messe Miyagi) 등 총 8개의 컨벤션 시설이 있음. 센다이 국제 센터는 3,000m² 규모의 전시 공간과 10,0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을 가지고 있음.
- 95개의 호텔, 54개의 료칸이 있어 총 149개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4-6] 센다이 국제 센터와 미야기 전시장 전경

- 센다이는 센다이 관광컨벤션 국제협회(Sendai Tourism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SenTIA) 전담조직이 있어 체계적인 MICE 운영이 가능함. 센다이관광컨벤션국제협회는 센다이 내에 MICE 행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회의 주최자 재정 지원제도, 입찰서류 작성 지원, 단체버스 제공, 공항 내 영접, 통역 서비스, 일본 문화 체험형 투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4-7] 센다이스 MICE 인프라 지도

- 센다이 관광컨벤션국제협회는 방재 분야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재 및 기술 관련 컨퍼런스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학이자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도호쿠 대학을 중심으로 과학 및 기술 학술회의를 위주로 유치·개최하고 있음.

4) 추진성공

- 2011년에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난 분야의 국제적 학술회의가 다수 개최된 바 있음.
 - 2015년 : 제3회 UN 방재세계회의 개최
 - 2017년 : 도호쿠 대학, 센다이시, 다보스 국제 재난 포럼(GRP), 일본 과학 기술 기구(JST)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보사이 포럼/국제 재난 위험 회의' 개최



[그림 4-8] UN 방재세계회의 및 보사이 포럼 현장 사진

- 센다이는 2019년 기준 136개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10건의 중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함.

[표 4-1] 연도별 센다이 국제회의 개최건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최건수	221	115	120	116	136
중대형 국제회의 개최건수	15	13	10	12	10

자료: JNTO, 2019년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통계/국내도시별 중대형 국제회의 건수 일람표 (2019년)

- 센다이는 코로나19로 다수의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 제41회 열전 국제회의 입찰에 성공하였음.
- 센다이 관광컨벤션 국제협회(SenTIA), 국립 재료 과학 연구소(NIMS)의 협력, 국제열전학회의 후원으로 유치에 성공한 행사로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참가할 예정임.

5) 분석 시사점

가. 전략적 협업 체계의 중요성

- 대규모 컨벤션 인프라나 뛰어난 교통수단이 부재한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센다이 관광컨벤션 국제협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상급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고 있는 센다이는 이해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후발주자로서 MICE산업에 뛰어드는 경상북도 역시 관내 도시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하여 국제회의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상호작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전략화

- 센다이가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정상급 국제회의까지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특화 콘텐츠에 선택·집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센다이 지역특화 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피력하였기 때문임.
-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특화산업과 R&D 산업 기반을 활용한 경북형 국제회의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함.

3. 호주 멜버른

1) 개요

- 멜버른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도이자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9,992km²)로 인구는 약 507만 명이며 호주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도시임.
- '지식 도시'라는 별칭을 가진 멜버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빅토리아에는 270개가 넘는 지역도서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및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혁신도시'로서의 브랜딩 활동을 추진 중임.
 - 멜버른은 2019년 2thinknow Innovation Cities Global Index에서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

2) 주력산업

- 멜버른은 생의학 및 제약, 교육, 지속가능성 및 청정에너지, ICT, 금융을 아우르는 지식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음.
 - '지식 도시'의 별칭에 걸맞게 2개의 글로벌 상위 100위 대학, 13개의 연구기관, 10개의 주요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있으며, 각 기관은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활약하고 있음.
 - 호주의 기술 허브로서 호주의 상위 20개의 주요 기술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ICT 섹터에는 글로벌 기업인 IBM, Intel 등 8,000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 멜버른 정부는 관내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학술기관, 연구 및 의료센터, 민간 기업이 모인, 3곳의 '멜버른 지식혁신구역'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4-2] 멜버른의 3대 지식지구 현황

구역	개요	입주 업체
멜버른시티 인근 생물의학지구 (City/Biomedical Precinct)	생물 의학 구역 30개의 병 원, 연구 및 교육기관, 생명 공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음.	에이켄헤드메디컬연구센터, Bio21 연구원, 바이오닉스연 구원, 호주안구연구원, 멜버 른대학교, 정신건강연구원 등
남동부 멜버른 혁신지구 (South East Melbourne Innovation Precinct)	빅토리아주 제조활동의 40% 를 차지하며 소매업, 부동산 등을 포함한 56,000개의 기 업이 입주해 있음.	호주싱크로트론, 커먼웰스과 학산업연구원, 멜버른나노기 술제조센터, 모나시대학교, 소규모 기술스타트업 클러스 터
Northern Precinct (북부 지구)	북부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 며, 8개의 주요 연구 및 기 술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알프레드메디컬연구교육지 구, 농생명과학연구센터, 기 술융합센터, 건강혁신연구센 터, 라트로비아지역학연구원, 라트로비대학교, 리오틴기 술연구센터, 월터&엘리자바 이오기술연구센터

○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연구에도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관련 산업의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음.

-호주 정부는 재생 에너지 실행 계획에 1억 4천 6백만 호주달러 투자함. 멜버른은 1200빌딩 프로그램, 도시 숲 전략, 도시 물 및 배출가스 저감 계획과 같은 도시재생 전략 실행 중임.

- 멜버른은 아태지역 전체에 걸쳐 호주 탄소 서비스의 허브로 자리 잡음. 탄소 시장 연구소(Carbon Market Institute)의 국립 사무실과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와 기후시장 및 거래협회(Climate Markets & Investors Association)의 호주 대표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음.

- 멜버른은 호주 청정에너지 산업의 최고 기관인 청정에너지 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의 본거지로서 4,000개 이상의 태양광 설치 업체와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 수력,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 저장, 지열 및 해양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백 개의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음.

3) 관광·MICE산업 현황

가. 관광산업 현황

- 멜버른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도시이며, 2020년도 3월 기준, 멜버른 방문객 여행 지출액은 195억 달러이며 약 3,78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
 - 멜버른의 연간 방문객은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연간 12.2%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멜버른은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멜버른 작가 축제와 국제 영화제, 멜버른 패션축제, 멜버른 식음료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개최하며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고 있음.

나. MICE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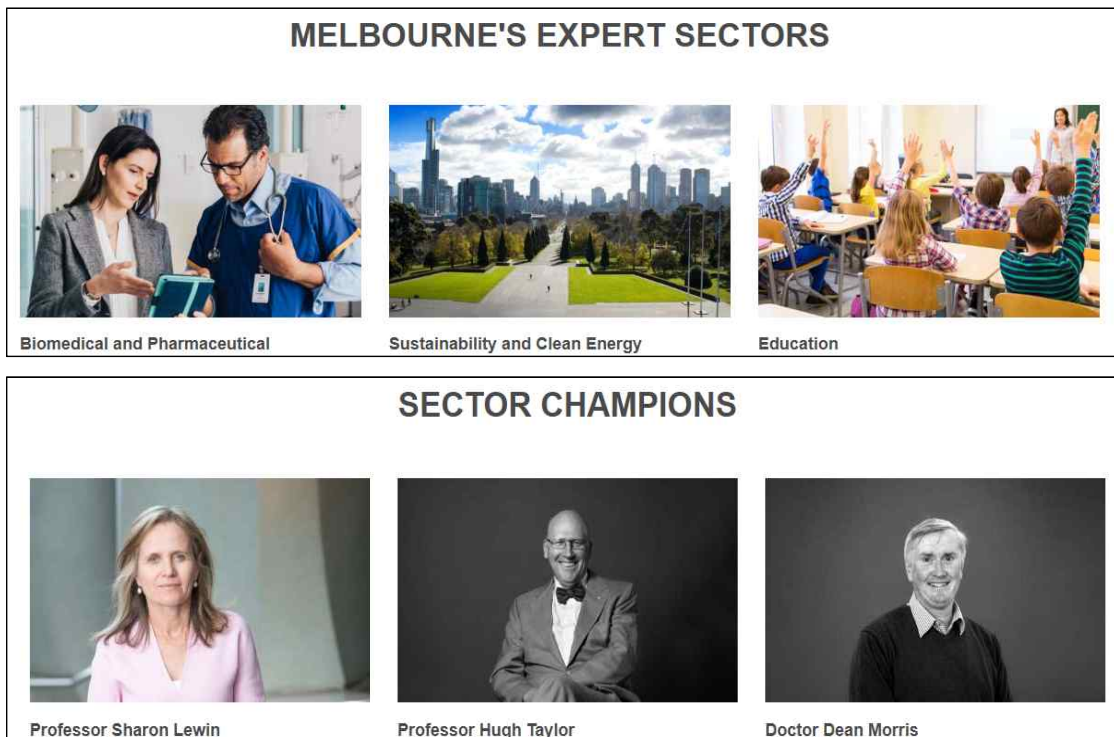
- 멜버른의 주요 MICE 관련 시설 인프라는 호주에서 가장 큰 전시장(40,000 m²)인 멜버른컨벤션전시센터(MCEC)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MICE도시임.



[그림 4-9] 멜버른컨벤션전시센터 내외부 전경

- 멜버른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관련 조직은 주 단위의 비즈니스이벤트빅토리아와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인 멜버른컨벤션뷰로가 있음.
 - 비즈니스이벤트빅토리아는 빅토리아 광역도시권에 속한 지역의 도시마케팅 활동과 지방정부와 각 도시별 컨벤션뷰로 간의 협업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멜버른컨벤션뷰로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토대로 국제행사 유치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화 분야의 저명인사를 앞세워 MICE 도시로서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있음.
 - 멜버른이 주력하는 국제회의 유치 타깃은 바이오·의료 및 제약,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교육, 금융 분야이며 2019/20년 기준 전체 개최행사 중 42%는 의료 분야의 행사가 차지함.



[그림 4-10] 멜버른컨벤션뷰로의 타깃 분야와 저명인사

- 멜버른컨벤션뷰로는 호주컨벤션뷰로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내 타 도시의 컨벤션뷰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130여 개의 비즈니스 이벤트 관련 기업 및 기관들과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4) 추진성과

- 멜버른컨벤션뷰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멜버른은 MICE 행사를 통한 경제효과와 관광객 유입 측면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음.

[표 4-3] 연도별 멜버른 MICE산업 성과지표

(단위 : 호주달러, 명)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경제적 파급효과	30,100	32,100	36,900	50,700	23,430
MICE 참가자수	69,000	67,000	79,000	136,000	48,500

자료: 멜버른 컨벤션뷰로, 연간보고서 재구성(2020)

- 멜버른 내 풍부한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및 의학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2013년 세계 당뇨병 회의
 - 2014년 세계 암 회의, 세계 에이즈학회 학술대회
 - 2016년 세계면역학 학술대회
 - 2017년 에코시티월드서밋, 제56회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컨퍼런스
 - 2019년 세포유전자테라피학회 학술대회, ITS 월드 콩그레스
- 2020년 초반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과가 다소 하락세를 타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하이브리드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을 통해 일정 수준의 행사개최건수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태평양 생명 윤리 교육 네트워크(APBEN 2021)
 - 세계 역학 회의(WCE)

- 마이크로 반응 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IMRET)
- CIB 월드 빌딩 콩그레스
- 연례 국제 전산 신경 과학 회의 (CNS) 등

5) 분석 시사점

가. 도시 특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MICE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의 기반 산업이므로 멜버른은 주력 산업인 생의학 및 제약, 교육, 지속가능성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산업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도시마케팅 성과와 직결됨.

나. 지역만의 특화 브랜드 마케팅 추진

- 멜버른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만의 확고한 브랜드(예: 지식 도시)를 구축하여 행사 주최자로 하여금 전문성 있는 MICE 개최지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함.
 - 주최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는 국제회의 유치전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됨.

제 5 장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개발방안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시

제2절 마케팅 방안 제시

제3절 중장기 발전 과제 제시

제5장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개발방안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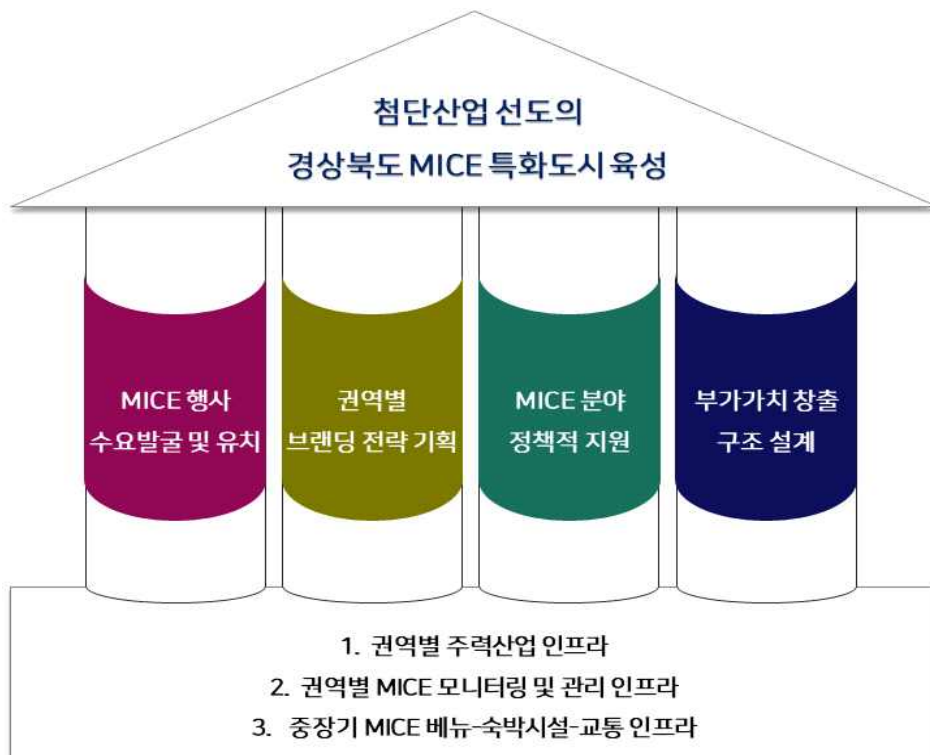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경상북도 MICE 제반여건 조사를 통해 도 내 시설 공급과 수요현황, 경제 산업 여건, 관광자원 및 교통 여건, MICE 업무 전담조직 현황 등에 대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MICE 특화도시 사례의 특징과 함께 고려하여 경상북도가 MICE 특화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함.
-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전을 제시함.

2. 비전 및 목표 제시

- 경상북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력산업 인프라, 모니터링 및 관리 인프라, MICE 시설, 숙박, 교통 인프라 등의 중장기적 개발을 우선 목표로 제시함.
 - 바이오, 전자, 철강, 자동차 등의 경상북도 권역별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지속적인 진흥과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더불어 MICE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보, 경주시 외 안동시, 구미시 등 권역별 숙박 인프라 확충, 도시 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의 중장기적 개발 등은 MICE 특화도시 육성 비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수요 발굴 및 유치, 권역별 도시 브랜딩, MICE 분야 정책지원, 부가가치 창출 구조 설계 등의 핵심전략 수행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진행해야할 미션으로는 MICE 행사 대상 국내외 수요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업무와 이를 위한 특색 있는 권역별 도시 브랜딩 기획, 경상북도 MICE산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 MICE 행사가 유치된 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서비스 기획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구조 설계하는 것 등이 있음.
- 위 인프라 구축과 핵심전략 수행을 통해 ‘첨단산업 선도의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함.
 - 경상북도는 철강 및 자동차 등 산업의 오랜 핵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MICE산업과의 연계로부터 지역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1]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 비전 도식

제2절 마케팅 방안 제시

1. 지역산업 기반 도시

- 지역별로 주력산업 중심의 도시 브랜딩 추진은 전시회를 필두로 MICE 행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최 효과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MICE 산업을 기반으로 각 산업의 융복합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마케팅 전략임.
 - 주력산업인 바이오,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에 더해 에너지, 신소재 등의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내세워 지역 브랜딩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오 산업의 경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한 산업 네트워크를 관리 및 확대하여 관련 MICE 행사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철강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과거 철강 산업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여 포스코라는 기업과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기반 등의 선진형 산업모델을 중심으로 행사 육성 및 유치가 필요함
 - 전자 산업은 홀로그래프기술 개발, 지능형 SOC 플랫폼구축사업 등 대규모 연구 및 실증 사업에 기반한 최신 도시 브랜딩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의 관련 조직을 통해 국내외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래차 전환 시대에 경량화, 친환경화, 지능화 등의 부품혁신 및 개발의 주요도시 브랜딩을 추진하여 전자산업과 철강 산업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경상북도만의 높은 도 내 시너지를 목표로 글로벌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타깃할 수 있음.
- 각 산업별로 권역 브랜딩을 위한 중심 콘텐츠를 설정하고, 해당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함.



[그림 5-2] 지역별 주력산업 브랜딩 및 MICE 행사 유치방안

2. R&D 기반 회의 도시

- 대학교와 각종 산업 연구원, 산업기관 등을 통한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해당 기관들의 국제교류 경쟁력을 활용해 업계 주요 인사 등을 유치하고 MICE 행사의 파급력 증대를 목표해야 함.
- 각 도시 및 권역별 특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R&D 기반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상북도를 지역 브랜딩 콘텐츠로 설정함.
 - 산업 R&D 관련 국제회의 수요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포항공대 등의 기존 교육기관에 더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인공지능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의 기업 지원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이 협업하여 경상북도만의 R&D 기반 회의 도시 브랜딩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함.
 - 해당 도시 브랜딩 추진 시 포스코 등의 지역 기반 기업들의 국제 네트워크 경쟁력도 적극 활용해야 함.

3. 문화관광자원 기반 관광 도시

- 문화관광자원 보유정도와 그 매력도에 있어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임.
- 관광거점도시인 안동시와 더불어 4개의 문화도시 경주시, 포항시, 칠곡군, 성주군,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야함.
 - 특정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은 최근 MICE 행사 개최지 선정 시 행사 외 시간에 지역 방문객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무와 직결하는 이슈임.
 -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자원을 MICE 행사 프로그램 내 적절히 소화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최지 프로모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주시와 안동시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신라문화와 유교문화 콘텐츠의 도시 브랜딩 전략으로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
- 또한 행사 개최장소 역시 문화 콘텐츠가 갖는 유니크베뉴의 시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만의 문화관광자원 콘텐츠 활용 MICE 행사 유치 전략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3]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MICE 프로그램 순서도 예시

제3절 중장기 발전 과제 제시

1. 과제방향

-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을 위해 현 상황 대비 향후 개선시켜야 할 사항들을 구분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켰을 경우 그 결과가 더 효과적인 과제들을 제시함.
- 본 과제 추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인력 및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중장기 발전 과제 제시

1) MICE 수요 공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본 연구를 통해 경상북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MICE 수요와 도 내 공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MICE 시설 공급 담당자 대상 직접 조사를 통해 도 내 전체 공급 데이터 수집을 시도했을 때 담당자가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다수임.
 - MICE 시설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완료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관리 체계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데이터 오류, 누락이 존재함.
 - 더욱이 해당 모니터링 체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시 발굴 및 유치 가능한 잠재 수요가 존재함.
- 수요 및 공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MICE 특화도시 육성에 지원이 가능함.
 - 권역별 수요공급 데이터를 수집

- 시설 및 조직 간 데이터를 연동
- 경상북도 MICE산업의 중장기 지속관리 체계 설계
- 체계 운영방안 도출
- 수요 발굴 및 유치
- 체계 활용을 통해 경상북도 MICE 여건을 적극 활용한 유연 대응

2) 주력산업 중심 MICE 행사 수요 발굴

- 경상북도는 권역별 주력산업이라는 시너지 잠재 효과가 높은 지역 브랜딩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 MICE로의 접목 및 행사 수요 발굴이 필요함.
- 주력산업 중심의 MICE 행사 수요 발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 사항이 요구됨.
 - 기존 및 신규 주력산업 중심 행사 기준 수요 발굴
 - 주력산업 중심 네트워크 발굴
 - 전담조직의 세일즈 전략 설계
 - 글로벌 MICE 행사 타깃 유치 전략 수행
 - 지속적인 주력산업 관련 도시 브랜딩 추진

3) 관광 교통 인프라 확충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기점으로 경상북도 내 도시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이 필요함.
- 교통 인프라 확충은 방문객들의 편리성 증대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있어 누락 없는 프로그램 기획을 가능케 함.
- 지역 방문객들의 도시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의 확충에 더해 조금 더 빠르고 쉬운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관광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사항이 요구됨.
 - 통합신공항과 도시 간 접근성 확인
 - 관광객 우선수요 지역 확인
 - 우선수요 지역부터 순차적 MICE 공급 및 숙박 고려한 인프라 확인
 -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설계
 - 필요 시 중장기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

4) 도 내 MICE 조직 대상 전문 교육 진행

- 본 연구를 통해 경상북도 MICE 산업에 있어 단기와 중장기 등 향후 모든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고려했을 때, MICE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됨.
- MICE 이해관계자는 시설 담당자, 컨벤션뷰로 업무 담당자와 더불어 회의 및 전시기획자, 여행사, 수송업 등의 MICE 행사 개최 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통칭함.
- 이해관계자 대상 MICE 전문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 전략 결과에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인 성과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기간 동안 업계의 자발적인 수요 대응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음.
 - MICE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반적인 수준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 교육은 꼭 필요하며, 이는 한국MICE협회 등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교육을 통해 MICE 산업 육성에 대한 업계 합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5) Meeting Planner's Guide 제작 및 배포

- 경상북도를 잠재 행사개최지로 고려중인 행사 개최자(meeting planner)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개최 연관의 행사장, 숙박, 교통, 관광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 책자 및 배포가 필요함.
 - MICE 행사 개최자 입장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소재 전시컨벤션센터, 유니크베뉴, 호텔 등 시설 인프라와 더불어 교통, 관광,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정보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수집된 정보는 각기 출처가 달라 정보 수집자로부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Meeting Planner's Guide가 배포된다면, 단순 행사개최지, 관광지, 주력산업단지 등의 성격이 아닌 MICE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경상북도 홍보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이드에 포함된 장소, 업체, 콘텐츠 등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 외에도 경상북도 MICE 특화도시 육성전략 차원에서의 연계 프로그램 소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부 록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현황 리스트

[경상북도 MICE 시설 공급 현황 리스트]

- 시군별 - 시설별(유니크메뉴, 숙박업체, 대학교, 기타공공시설 순)
- 전시컨벤션센터 제외(구미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 포항시

1-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라한호텔 포항	PDR	○	10		10				
라한호텔 포항	릴리&로즈	○	150		120	80	150		2
베니키아 호텔 포항	미팅룸	○	30						
포항 코모도 호텔	연회장	○		100					
필로스 호텔	그랜드캐슬홀	○	500	500	300				
필로스 호텔	아레나홀	○	140		140			130	
필로스 호텔	컨벤션홀	○	230	230	200				
필로스 호텔	페테파크코홀	○	94		94			90	

1-2) 대학교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포항공대(포스텍)	국제회의장	○				288			
포항공대(포스텍)	그랜드볼룸	○	200						
포항공대(포스텍)	대회의실	○		98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						4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						4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						4	
포항공대(포스텍)	소회의실 1	○						4	
포항공대(포스텍)	중회의실	○		60					2

1-3)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동부지소 교육장	O		30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다목적홀	X				143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	X				344			
복합문화센터	덕업관 대강당	O				414			
평생학습원(여성문화관)	대강당	O				190			
평생학습원(여성문화관)	제1강의실	X			70				
평생학습원(여성문화관)	제2강의실	X		40					
평생학습원(여성문화관)	제3강의실	X		89					
포항시립미술관	세미나실	X		30					
포항청춘센터	대중소회의실	X		136					4
포항테크노파크	AV회의실	O						30	
포항테크노파크	CEO룸	O						9	
포항테크노파크	다목적실	O		124					
포항테크노파크	연수실	O		42					
포항테크노파크	제1벤처동회의실	O		20					
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회의실	O		20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회의실	O		104					
포항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오융합센터 회의실	O						28	

2. 경주시

2-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교촌마을	아카데미교육장	O		80					
황룡원	금강홀	O		150					
황룡원	대연회장	O		200					
황룡원	미팅룸	O		10					
황룡원	화랑홀	O		150					

2-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주 지지 관광호텔	대연회장	O		120					
경주 지지 관광호텔	소회의실	O			25				
경주 지지 관광호텔	중회의실	O			4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A	O					12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B	O					12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C	O					12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D	O					12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E	O					120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 F	O					150		
경주 코오롱호텔	신라A홀	O					180		
경주 코오롱호텔	신라B홀	O					80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	O					800		4
노벨버 리조트	세미나실	O					32		
더-영호스텔	세미나룸	O	10					10	
더케이호텔 경주	가야금 AB	O		25	27	15	45		2
더케이호텔 경주	가야금 CD	O		25	27	15	45		2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	O		1,000	1,200	1,200	2,000		3
더케이호텔 경주	남산홀	O		60	80	80	120		
더케이호텔 경주	대금홀	O		100	140	140	220		2
더케이호텔 경주	원화	O		50	54	60	90		
더케이호텔 경주	원화A	O		120	150	180	240		
더케이호텔 경주	해금홀	O		60	80	80	120		
더케이호텔 경주	향비파A,B	O			24		50		2
더케이호텔 경주	화랑홀	O		80	100	150	200		3
라마다호텔&리조트 경주	미팅룸	O		72	70		120		
라한셀렉트 경주	다이너스티홀	O		1,000	1,100	2,000	1,700		
라한셀렉트 경주	베가홀, 카펠라홀	O		370	260	180	180		
라한셀렉트 경주	아제나&리겔	O		370	260	180	180		
라한셀렉트 경주	컨벤션홀	O		1,000	1,100	2,000	1,700		3
마우나 오션 리조트	버클리홀	O					30		
마우나 오션 리조트	스탠포드홀	O					80		
마우나 오션 리조트	옥스포드홀	O					200		
마우나 오션 리조트	콜롬비아홀	O					23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베니키아 스위트호텔	산토리니룸	○		20	30				
베니키아 스위트호텔	크레타룸	○		75	100				
불국사 비즈니스 호텔	세미나실	○			80				
블루원 리조트	그랜드볼룸	○		350	500		800		
블루원 리조트	다이아몬드	○		40	60		90	40	
블루원 리조트	더션	○		220	220		300		
블루원 리조트	더프라미스	○		160	160		200		
블루원 리조트	디에어	○		60	60		100	40	
블루원 리조트	멤버스 세미나	○			60		90	40	
블루원 리조트	크리스탈	○		50	60		100	40	
성호 리조트	골드홀	○		40	30		40		
성호 리조트	다이아몬드홀	○		300	400		700		
성호 리조트	루비홀	○		60	80		100		
성호 리조트	사파이어홀	○		40	50		70		
성호 리조트	에메랄드홀	○		80	100		150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	○		480	540			1,000	2
소노벨 경주	사파이어	○		60	90			120	2
소노벨 경주	에메랄드	○		180	250			320	2
스위트 호텔 경주	스위트홀	○		120	140		250		2
신라 가족호텔	세미나실	X			30		40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보문홀	○			80		150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신라홀	○			200		500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천마홀	○			50		120		
일성보문휴양콘도미니엄	첨성홀	○			70		120		
쥬코모도호텔 경주	계림	○		140	150	200	200		
쥬코모도호텔 경주	금관A	○		40	50	60	60		
쥬코모도호텔 경주	금관B	○		40	50	60	60		
쥬코모도호텔 경주	미팅룸	○						12	
쥬코모도호텔 경주	반월성	○		400	500	800	800		
쥬코모도호텔 경주	서라벌	○		100	100	200	200		
쥬코모도호텔 경주	신라	○		80	100	120	120		
쥬코모도호텔 경주	야외가든	○		1,000		2,000			
쥬코모도호텔 경주	월지	○		40	50	60	60		
쥬코모도호텔 경주	임해전	○		200	200	300	300		
쥬코모도호텔 경주	화랑	○		40	50	60	6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켄싱턴 리조트 경주	로커스	○			100		200		
켄싱턴 리조트 경주	마키컨벤션	○		330	600		1,200		
켄싱턴 리조트 경주	센트럴	○			50		100		
켄싱턴 리조트 경주	씨어터	○		70	70		150		
켄싱턴 리조트 경주	포럼	○		250	300		600		
켄싱턴 리조트 경주	포인트	○			50		100		
한국콘도경주	연회장	○			100	200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미추	○			120		170	90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선화	○			60		90	54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세오녀	○		100	144		180	108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소지	○			90		150	90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수로	○			60		90	54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아로	○			60		90	54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연오랑	○		250	250		300	250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유리	○			90		150	90	
한화리조트 경주	담톤 파사	○			120		170	90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기파랑	○			60		80	54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미시랑	○			60		90	54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원술랑	○			60		80	54	
한화리조트 경주	에톤 죽지랑	○			60		80	54	
힐튼 경주	그랜드볼룸	○		420	420	600			3
힐튼 경주	오크룸	○		50	35	60			2
힐튼 경주	주니퍼룸	○		400		550			3
힐튼 경주	체리룸	○		200	150	250			4
힐튼 경주	파인룸	○		70	50	90			2

2-3)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주시 화랑마을	기파랑관	○				411			
경주시 화랑마을	다목적 대회의실	○		150					
경주시 화랑마을	대회의실	○		100					
경주시 화랑마을	소회의실	○		30					
경주시 화랑마을	중회의실	○		5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50					
경주예술의전당	세미나실	○		30					
경주예술의전당	영상회의실	○						15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연장	○				240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					34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				494			

3. 김천시

3-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이화면리녹색농촌체험마을	회의실	○		100					

3-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김천파크관광호텔	세미나실	○		42					
호텔로제니아	대회의실	○	80	80	60				
호텔로제니아	소회의실	○	24	16	24				
호텔로제니아	중회의실	○	40	40	40				

3-3)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김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120					

4. 안동시

4-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예움터마을	가변형실	○		30	30				2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에움터마을	소회의실	○		20					4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	○		50					

4-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안동그랜드호텔	1층 세미나실	○	60	60	60				
안동그랜드호텔	2층 세미나실	○	40	40	40				
안동그랜드호텔	그랑데홀	○	140	140	140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	300	300	300				
안동 씨엠파크 호텔	대연회장	○	400		350		400		
안동 씨엠파크 호텔	로얄볼룸홀	○	100		80		100		
안동 씨엠파크 호텔	루프탑홀	○	150		100		150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A	○	80	60	80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B	○	50		50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A	○	80	60	80				
안동 리첼 호텔	사파이어 B	○	50		50				

4-3)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안동시청소년수련원	강의실	X		20					
안동호반자연휴양림	교육관 및 회의실	X		100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집회장	○		40					
유교랜드	세미나실	○						25	
유교랜드	원형무대	○				40			
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	○				200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대)	○	100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소)	○	20						
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	○		150					
안동 씨엠파크 호텔	루프탑홀	○	150		100		150		

5. 구미시

5-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구미 센츄리 호텔	센츄리홀	○	500	500					
구미 센츄리 호텔	스카이홀	○	120	120	50				
구미 센츄리 호텔	장미홀	○	100	100	40				
라마다바이원당구미	겨울1,2	○	24					24	2
라마다바이원당구미	봄여름가을	○	108	96	108		12		3
피오레 관광호텔	세미나실	○						9	
호텔 BS	세미나실	○	150		150				
호텔 금오산	국화홀	○	40					40	
호텔 금오산	대연회장	○	1,000	550	800		1,000		
호텔 금오산	매화홀	○	40					40	
호텔 금오산	중연회장	○	150	90	100		150		
호텔 파크 비즈니스	연회장	○		90					

5-2) 대학교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금오공대	강당	○				700			
금오공대	글로벌관	○				155			
금오공대	대회의실	○				239			
금오공대	디지털관	○				180			
금오공대	청운대	○		220					4
금오공대	테크노관	○				160			

5-3)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ideapark/lab실	○		20					2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조실	○		30					2
구미비즈니스종합센터	대회의장	X		50					
구미비즈니스종합센터	대회의장	X		100					

6. 영주시

6-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국립산림치유원	2층 중회의실	○		13					
국립산림치유원	간강센터 2층 중회의실	○		12					
국립산림치유원	간강센터 1층 중회의실	○		13					
국립산림치유원	교육실	○	20						
국립산림치유원	상업시설 중강당	○		80					
선비촌 외 2개소	소수박물관	○		128					
국립산림치유원	수련센터 소회의실	○		15					
국립산림치유원	수련센터 중회의실1	○		20					
국립산림치유원	수련센터 중회의실2	○		13					
국립산림치유원	수련센터 컨퍼런스홀	○		150					
선비촌 외 2개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		100					
소백산생태탐방원	회의실	○		210					

6-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풍기관광호텔	세미나실	○	150				150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세미나실1	○	30		30				

7. 영천시

7-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임고서원	대회의실	○		100					
임고서원	소회의실	○		20					

7-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보현산천문과학관	세미나실	○		60					
영천시평생학습관	강의실301	×					20		
영천시평생학습관	강의실101	×					24		
영천시평생학습관	우석홀	○				303			
영천시평생학습관	회의실	○		80					
화랑설화마을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		30					
임고서원	포은연수관	○							

8. 상주시

8-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	PDR	○	64	16	64				3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	그랜드홀	○	150	50	150				

9. 문경시

9-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STX 리조트	그랜드볼룸	○	800	500	600		800		
STX 리조트	대강의실	○	300	120	200		300		
STX 리조트	세미나실	○	30	10	20		30		
STX 리조트	소강의실	○	70	40	60		70		
STX 리조트	중강의실	○	86		86		86		
STX 리조트	파인홀	○	448		448		448		
라마다문경새재 호텔	세미나룸	○	60	40	60				
라마다문경새재 호텔	연회장	○	250	120	110		250		
문경관광호텔	대연회장	×	150				150		
문경새재 유스호텔	대강당	○	400				400		
문경새재 유스호텔	세미나실	○	30				30		
문경새재 유스호텔	소강당	○	70				7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문경새재 유스호텔	중강당	○	80				80		
문경새재리조트	경서홀	○	50		50				
문경새재리조트	문희홀	○	150		150				
성보촌 유스호텔	갤러리홀	○	558				558		
성보촌 유스호텔	워크숍홀	○	88				88		

9-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서울대병원 인재원	서울대병원인재원	○		228					

10. 경산시

10-1) 대학교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대구카톨릭대	강의실	○				80			
대구카톨릭대	대강당	○				2,160			
대구카톨릭대	대학극장	○				100			
대구카톨릭대	세미나실	○				120			
대구카톨릭대	문화관 강당	○				350			
대구카톨릭대	소강당	○				324			
대구카톨릭대	중강당	○				515			
대구카톨릭대	영상세미나실	○				210			
대구카톨릭대	계단강의실	○				180			
대구카톨릭대	소강당	○				250			
대구카톨릭대	효음아트홀	○				400			

10-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북테크노파크	4층 회의실	○					20		
경북테크노파크	5층 회의실	○					1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경북테크노파크	지하세미나실	○		42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회의실	○					20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		90		13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세미나실	○					24		
경산상공회의소	세미나실	○		120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		724					
경산시민회관	소강당	○		100					

11. 군위군

11-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메이플홀	○	70		70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사파이어홀	○	80		80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에메랄드홀	○	30					30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파인홀	○	300		300				

11-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청소년수련원	강당	○		100					
청소년수련원	세미나1실	○		30					
청소년수련원	세미나2실	○		10					

12. 의성군

12-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최치원문학관	대강당	○		754					
최치원문학관	세미나실	○		20					
최치원문학관	전시실	○							

12-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조문국박물관	강당	○				165			
조문국박물관	세미나실	○		30					

13. 청송군

13-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대강당	○		20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세미나실	○		8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소강의실	○		4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중강의실	○		80					

14. 영양군

14-1)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홍도관	○		80					

15. 영덕군

15-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오션비치리조트	연회장	○	200		200				
힐링턴콘도	연회장	○	30		30		25		

15-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예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6			

16. 청도군

16-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다목적홀	○		150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대강당	○				194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세미나실	○		23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회의실	○						30	

17. 고령군

17-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가얏고마을	문화관	○		200					
가얏고마을	체형관	○		50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	○				140			
대가야문화누리	우극홀	○				638			
대가야문화누리	회의실	○		30					
대가야문화누리	우극홀	○				638			
대가야문화누리	회의실	○		30					

17-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대가야호텔	세미나실	X	80		80				

18. 성주군

18-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가야산생태탐방원	강당	○		60					
가야산생태탐방원	제1강의실	○		20					
가야산생태탐방원	제2강의실	○		16					

18-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가야호텔	연회장 1	○	100	30	100				
가야호텔	연회장 2	○	307	100	307				
가야호텔	연회장 3	○	360	120	360				
가야호텔	연회장 4	○	674	250	674				

19. 칠곡군

19-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로즈홀	○		30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리더스홀	○		120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미팅룸	○		20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	아너스홀	○		50					

19-2)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국립칠곡숲채원	강당	○			250				
국립칠곡숲채원	세미나실	○		60					3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산림문화교육관 강당	○		100					

20. 예천군

20-1)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예천박물관	회의실	○		42					

21. 봉화군

21-1)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강당	○				277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미나실	○						2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회의실	○		30					2

22. 울진군

22-1) 유니크베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울진해양레포츠헤터	회의실 대강당	○				176			
울진해양레포츠헤터	회의실 소강의실	○		35			24		
울진해양레포츠헤터	회의실 중강당	○				101			
울진해양레포츠헤터	회의실 중강의실	○		50					

22-2)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대연회장	○	300				300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분임토의장	○	10				10		
덕구 온천리조트 호텔	소연회실	○	150				150		2
울진 그랜드 호텔	그랜드볼룸	○	400	150	200		400		
울진 그랜드 호텔	사파이어홀	○	100	36	50		100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한화리조트 백암	난실	○	150		100		150	80	
한화리조트 백암	매실	○	150		100		150	60	
한화리조트 백암	백암홀	○	220	130	200		220	120	
한화리조트 백암	아트홀	○	1,500	500	700		1,500	420	
한화리조트 백암	태백홀	○	60		40		60	24	

23. 울릉군

23-1) 숙박업체

시설명	회의실명	대관 여부	형태별 수용인원						분할
			라운드	세미나	리셉션	극장	분임조	U자	
리조트라페루즈	미팅룸	○	0						
리조트라페루즈	미팅룸	X	12					12	
리조트라페루즈	세미나실	○	120		120				
리조트라페루즈	세미나실	○	120	70			120		